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1970년대 도시소설의 서울 재현 양상  
-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혜 정



# 1970년대 도시소설의 서울 재현 양상

-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이 혜 정

이혜정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양 등 국



부위원장

손유경



위 원

박진숙



위 원

노지승



위 원

방민호





## ■ 국문초록

### 1970년대 도시소설의 서울 재현 양상

#### -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

본고는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가 이들의 소설에서 추상적인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문학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음을 밝히고자 했다. 도시를 고향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립의 공간으로 파악하며 도시를 이념적으로 인식했던 다른 작가들과 달리, 이 세 작가들은 서울을 구체적인 장소로 그려냈다. 이들은 서울의 내/외부자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서울을 이념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삶의 구체적인 장소로 파악하면서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그려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의 소설적 배경이 서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서울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배경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소설의 존재론적인 기반으로 기능하였음을 도시인문학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 작가의 소설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의 문학연구가 역사성(시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사성 중심의 사유는 전통과 이식,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문제에만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거대담론이 아닌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사유할 때 도시문학의 의의는 증폭된다고 판단하고 이 세 작가의 소설을 ‘다른 형식’으로 바라보는 틀로 도시인문학의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에 있어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의 탐구를 통해 역사중심주의적 서술과 거대담론에서 누락된 다양한 주체의 형상화를 찾아내고 이를 통

해 새로운 문학사 서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장에서는 이들의 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이들이 문단이 아닌 독자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서울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더불어 이들 소설에 나타나는 장소들을 살펴보았다. 초반에 이 세 작가들은 문단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지점을 향하는 듯 했지만, 이 세 작가가 상업영화로 성공하면서 문단의 관심과 독려는 사라진다. 이들은 문단과 독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 본고에서는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으로서의 문학을 지향한 적극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이념이나 추상으로서의 서울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장소로서의 서울을 그린 것도 이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작가들이 남긴 기록이나 다른 문인들의 증언,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와 작가의 서울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을 구체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조선작이 서울의 내부화된 외부자로서 서울에서의 장소 경험을 소설화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작은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의 삶을 주로 그려내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의 정착과 계층이동이 요원한 일임을 「영자의 전성시대」를 비롯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미스양의 모험』, 『말괄량이 도시』를 통해 분석하였다. 조선작의 인물들은 도시적 삶에 정착하기 위해 계층이동을 희망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견고한 도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작은 민족, 민중 이데올로기에서 비껴나 도시의 주변인들을 그려내면서 이들 사이의 감성적 연대를 추구했음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조해일의 소설에서 중산층의 장소경험과 하층민의 장소경험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해일의 소설은 초반에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문화적 소비생활이 제시되고 후반에 이러한 인물들이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을 목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해일의 소설에서 아파트란 주거공간은 부정적인 대상에서 선망하는 대상으로 변하는데, 초기 소설인 「아메리카」와 「무죄탈」에서 아파트는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장편소설 『겨울여자』, 『지붕 위의 남자』에서 아파트는 청년들이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주거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해일이 전반부에서 중산층의 청년들의 주거문화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후반부의 서울 변두리와의 장소 경험을 통해 사회현실에 눈을 뜨게 하고 부끄러움이라는 도덕감을 촉구하고자 했던 서사전략이었음을 강조하였다.

5장에서는 서울의 내부자였던 최인호가 고향 상실의 아님 도시개발로 인한 집의 상실과 서울의 장소성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를 소설화하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서울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보인다. 집의 상실과 도시개발로 인한 장소성의 변화, 아파트라는 새로운 장소의 등장 속에서 도시민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웃 간의 친밀성을 회복을 희구한다. 「타인의 방」에서 아내와의 친밀감을 희구했던 도시민은 『별들의 고향』, 『도시의 사냥』, 『천국의 계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친밀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희구는 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내 마음의 풍차』, 「두레박을 올려라」, 「천상의 계곡」, 「이 상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에 대한 관심 통해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에서 진정한 장소를 잃었던 도시민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을 탐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국가주의 도시개발이 가시화되고 도심과 변두리 지역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양상의 편차가 심화되었다. 고향에 대립되는 도시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내에서의 도시의 구획과 배치가 문제시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소설에서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경험을 통해 현현되는 것으로서 ‘도시문학’이 아닌 ‘서울문학’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서울문학의 계보 파악을 통해 한양과 경성, 서울에 이르는 계보를 형성하고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는 ‘서울문학’과 연속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작가의 소설이 가진 문학사적인 의의를 새로운 방향에서 부여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공간, 장소, 장소정체성, 장소경험, 서울문학, 일상, 도시,  
도시개발

학 번 : 2008-30743

## 목 차

### ■ 국문초록

1.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1.2. 연구의 시각 .....	12
2.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소설과 구체적 경험 공간으로서의 서울 .....	32
2.1. 이념으로서의 문학의 거부와 독자와의 공감 추구 .....	32
2.2. 시골/도시라는 이분법 너머의 서울 .....	46
3. 생존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감성적 연대의 추구: 조선작의 경우 ...	68
3.1. 서울에 대한 풍문과 실제 사이의 간극 .....	68
3.2. 주변인의 자조와 정서적 공동체 .....	91
4. 계몽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중산층의 윤리의식의 세계: 조해일의 경우 .....	100
4.1. 아파트와 문화적 소비생활의 양상 .....	100
4.2. 변두리 탐색과 생활인의 도덕 감정 .....	117

5. 실존적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타인에 대한 관심: 최인호의 경우 .....	132
5.1. 도시개발과 장소성 변화에 대한 인식 .....	132
5.2. 개별자로서의 도시민과 친밀성 회복의 가능성 .....	156
6. 결론 .....	166
■ 참고문헌 .....	170
■ Abstract .....	188

## 1. 서론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고는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1970년대의 서울의 장소성 분석을 통해, 이들이 추상적인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문학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갔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들은 1970년대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지만 문단에서 이탈을 하면서 본격문학의 장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문학은 무엇인가가 아닌 문학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독자대중의 공감을 소설의 필요조건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시를 고향(시골)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립의 공간으로서 파악하며 도시를 이념적(추상적)으로 파악했던 다른 작가들과 달리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그려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자본주의화 되어가던 도시 서울에서 도시를 내/외부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도시를 이념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삶의 구체적인 장소로 파악하면서 도시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그려냈다. 서울사람과 서울의 구체적인 형상화는 독자들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이들의 소설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이 세 작가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편소설을 제외하고는 대중문학의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 세 작가는 초기 단편소설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문학성으로 당대 비평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지만, 이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주로 신문연재소설을 쓰게 되면서 문단에서 이탈하고 본격문학의 장에서 배제된다.<sup>1)</sup> 이후 연구에서도 초기 단편소설이

---

1) 1970년대 당시 등단작과 초기 단편소설 등이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의 주목을 받은 반면, 신문에 소설 연재를 하고 영화가 흥행하면서 주로 대중문학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다.

주로 연구 되거나 대중문학·문화의 장에서 주로 호명되었다. 이들의 소설은 ‘대중소설’이라는 프레임에서 인식되어 온 연구의 경향이 크다. 당대에 이들에게 주어졌던 대중성, 상업성, 통속성이라는 폄하의 시선은 이후 변화되어 왔으며, 이 세 작가의 1970년대 소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논문들은 대중문학의 문학과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경향 또한 ‘대중소설’이라는 프레임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해석자의 욕망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점에서 197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1970년대 대중문화가 정치적인 것으로 의미화 될 수 있었음을 지적한 심재욱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심재욱은 최인호의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가 “텍스트의 내용과 텍스트가 산출한 정치적 효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찾으려는 의식적인 차원의 텍스트 해석으로 귀결”<sup>3)</sup>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텍스트의 심층에 놓여있는 무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통속성을 내세우는 대중소설이 지

김병익, 「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 『신문연구』, 1977년 10월.

김우종, 「문학의 대중문화는 바람직한가」, 『동서문화』, 1978년 2월.

윤재근, 「한국의 산문문학과 대중성」, 『문학』, 1978년 3월.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 1978년 8월.

2)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원규, 「1970년대 소설의 하층 여성 재현 정치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를 비롯하여 대중소설작가로 인식되었던 작가군들의 장편소설은 거의 연구되지 않다가 1990년 이후 대중문화의 부흥과 연동하여 대중서사학회와 대중서사장르학회를 중심으로 대중문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대중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조명은 문학연구의 외연을 확대해 준 유의미한 작업이었지만, 본격문학이 여전히 평가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격문학의 경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로 문학적 성취를 판단하고는 했다. 대중문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효성을 상실하면서 이들 문학에 대한 연구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문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대중소설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논의를 출발시키고자 했다.

3)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랑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 1970년대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면.

배질서를 전복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문학형식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의미 부여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인호의 문학이 1970년대라는 당대의 문학장에서 ‘다른 형식’으로 등장한 존재이며 그 심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중/민족 문학담론과 대중문학담론이라는 이분법적인 이념 대립의 차원에서 벗어나, 1970년대에 청년 세대로서의 감수성과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였던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의 소설을 재평가하는 데도 유효하리라 판단되어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본고는 이 세 작가의 소설을 ‘다른 형식’으로 바라보는 틀로 도시인문학의 관점이 유의미한 지점을 주리라 판단한다. 즉 문학에 있어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의 ‘장소성’의 탐구를 통해 역사중심주의적 서술과 거대담론에서 누락된 다양한 주체의 형상화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학사 서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세 작가의 소설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으로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의 문학연구가 역사성(시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사성(시간성)에 기반한 거대담론이 아닌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사유할 때 도시문학의 의의는 증폭된다.

도시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역사성(시간성)중심의 사유에서 공간과 장소 중심의 사유로의 전환을 통해 이성, 진보, 계몽, 민족, 국가, 계급 등 거대담론에 억압되어 왔던 다양한 주체의 가능성을 탐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둘러싼 전통과 이식,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문제들에 있어서 시간 중심적 사유는 근대는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공간의 문제를 다룰 때조차 그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안에 잠재된 시간성에만 주목하였다. 공간과 장소를 구성하고 재현하는 언어, 담론, 문화적인 상징과 상상을 담지하는 것으로서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통해 역사주의나 발전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학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1970년대 문학과 관련하여서도 시사점을 준다. 즉 해방 후의 민족, 민중 문학 담론이나 순수참여문학논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문제 등 역사주의 내지 발전주의에 기반한 거대담론에 의해, 존재하지만 배제되었던 문학을 재발견하는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문학에 드러나는 ‘도시성’의 문제와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은 대부분 이재선의 선행연구에 기반한 것들이다. 해방 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시소설(City Novel)에 대한 이재선의 선구적인 작업을 전제로 참고하여, ‘도시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적용하여 도시소설로서의 양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주로 1930년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소설’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들은 ‘도시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소설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재선은 1970년대 문학에서 ‘도시’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도시에서의 삶의 양상들이 뚜렷하고 다각적으로 제시되는 등 “도시소설”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되었음을 그 두드러진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sup>5)</sup> 이재선은 1930년대 문학에서의 도시가 특별한 유평적 한계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고, 1970년대에 들어서 시와 소설에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 ‘산업사회화’에서 ‘도시사회화’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와 인구밀집도시가 되었으며, ‘도시생활자’로 활동하는 시인의 작품 세계에서도 ‘도시성(Urbanism)’이라는 삶의 양식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재선은 도시소설을 도시입성의 경험소설형, 노년학적 소설 유형, 생태학적인 소설, 분열형 소설, 이미지 소설 내지 유동상태의 소설, 총괄형 소설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소설

---

4) 이양숙, 「한국문학과 도시성」,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116면.

5) 이재선, 앞의 글, 247면.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와 관련하여 도시소설이 “이 시대의 우리의 소설 그 자체”(263면)라고 하는 판단에는 도시소설의 개념 정립 자체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남현도 ‘도시소설’이 1930년대 이후 하나의 분명한 유형으로 인식되었음을 언급하면서도, 도시소설이라는 개념의 속명적 모호성을 언급하고 있다. 도시소설은 도시, 도시성, 도시적인 삶, 도시적 가치 등의 개념의 정립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범주화하기 어렵다. 도시는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도시적 속성과 가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7)</sup> 이렇듯 도시소설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범주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소설에 대한 개념 정립과 도시성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시도되어왔다.

근대적 도시공간의 특질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의 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성과 근대성이 모더니즘 문학과 가지고 있는 관련성과 연관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sup>8)</sup>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성욱은 리얼리즘 문학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과 모더니즘 문학에서도 모더니즘이라는 문예사조의 “문화적 환경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는 데 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는 단순히 모더니즘의 공간적 배경을 넘어 표현 형식 자체와 관계되며,

---

6) 위의 책, 275~277면.

7) 조남현, 「한국현대작가들의 “도시” 인식 방법」, 『현대소설연구』 35, 현대소설학회, 2007.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근대소설들이 등장한 것은 대부분 1930년대로 인식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소설 중 박영희의 「사냥개」(1925), 「사건」(1926), 김기진의 「젊은 이상주의자의 死」, 이기영의 「원보」(1928), 조명희의 「땅속으로」(1925), 현진건의 「운수 조흔 날」(1924), 「사립정신병원장」(1926),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1928), 유진오의 「스리」(1927) 등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도시소설은 뚜렷한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식민지 시기의 빈궁이나 부자유를 드러내주는 공간으로 등장했을 뿐 농촌과 도시라는 뚜렷한 구분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다. 1930년대에는 여러 유형의 소설이 나오면서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의 분위기나 도시인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 조남현, 같은 글, 8면.

8)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김창식, 「일제 하 한국 도시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방경태, 「1930년대 한국 도시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도시는 새로운 표현 형식을 현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근대 자본주의에서 도시 구성 원리와 운동이 자본주의 모순의 과잉결정이라고 볼 때 리얼리즘 문학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필연적이며, 리얼리즘 문학이 추구하는 인물의 전형은 ‘도시인간’형에게까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한다. “계급모순의 운동 공간 중 핵심은 도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아우르고 근대 문학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도시성’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이상, 김기림, 박태원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도시성’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sup>9)</sup>

한편, 방민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도시소설이 단순히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인식하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경성의 도시공간의 내적 의미를 탐구하는 동시에 작가 의식을 탐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sup>10)</sup> 도시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동안 1930년대 문학에 이어서 서구나 일본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과잉이나 결핍으로서 간주되던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편으로서의 모더니즘 즉 세계적인 모더니즘의 일부로서의 경성 모더니즘을 제안한다.<sup>11)</sup> 이는 도시에 대한 탐구가 단순히 도시 공간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식과 주제 의식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3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진전되었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모더니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미학적 특질을 고구하고 있다면, 1960-7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한 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차이점을 지닌다.<sup>12)</sup> 더 나아가 도시를 구체적인 사회공간이며 사회적 실천의 장

9)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참조.

10) 방민호,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문학연구의 재인식』, 예옥, 2010.

11) 방민호, 「경성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12) 김선건, 「1970년대 이후 노동소설에 나타난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이세영, 「사회변동이 소설형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창은과 백지연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오창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사회적 실천의 장이라는 전제를 두고 1960-70년대 소설의 도시공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간과 주체에 대한 접근에 의미를 두고 그 공간의 성격을 ‘도시성(urbanism)’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성’ 개념으로 1960-70년대 문학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도시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오창은은 ‘도시소설’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오창은에 의하면, 그동안 ‘도시소설’에 대한 논의는 이재선이 제시한 ‘도시소설’ 개념의 압도적인 영향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은 겔판트의 『미국도시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의하면 도시는 이미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인간이 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창은은 작가나 소설 속 인물의 능동적 측면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도시 소설 개념을 공간 개념과 관련하여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시 소설 공간이 주어진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창은이 재정립한 도시소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도시소설은 동시대 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을 ‘공간과 주체’의 역동적 관계로 재현해낸 소설을 일컫는다. 도시소설은 1) 동시대적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2)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3) 도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4) 공간과 인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sup>14)</sup>

---

2000.

강정아,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연구- 김소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류희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성’ 연구-박태순·조선작·조세희 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3) 오창은, 「한국도시소설연구-196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백지연은 1960년대를 “근대 자본주의 제도의 일상화 과정이 본격화된 시기”로 보면서 “이 시기 문학에 나타난 도시체험이 공간과 주체의 관련 양상을 통해 미학적인 성취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도시와 근대체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문학 작품에 구현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김승옥과 박태순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문학적 주체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연구들은 리얼리즘/모더니즘 문학, 참여/순수 문학, 민족/민중 문학이라는 거대담론에서 공간과 장소의 문제를 다루면서 도시공간을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설정하고 도시와 주체의 관련양상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이론이나 도시사회학 이론에 구속되어 도시공간과 인물을 분석하면서, 선형적으로 주어진 도시성과 도시공간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sup>16)</sup>

송은영은 1960~70년대에 현대도시로 ‘재탄생’된 서울이라는 공간이 문학에 재현된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1961~1966년에는 ‘현대도시의 기반이 마련되는 서울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서울로 진입한 사람들의 희망과 좌절의 서사가 담겨 있다. 1966~1971년에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로

14) 위의 글, 21-23면.

15) 백지연, 「196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주체의 관련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참조.

16) 이외에 도시공간과 문학의 관련성에 대해 학회 특집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대소설연구』 35(2007)의 <동아시아 현대소설과 도시>라는 주제로 조남현, 「한국현대작가들의 “도시” 인식 방법」,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 형상」 등 연구가 있다.

『한국문예비평연구』 41(2013)의 <한국문학과 서울의 토폠피리아>라는 주제로, 문선영, 「1960년대 초 방송극에 나타난 서울 풍경의 한 양상」, 장동석, 「1930년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경성” 제시 방식 연구」, 유승미, 「식민지 경성, 그 상실된 장소의 소설적 재현」 등 연구가 있다.

『현대소설연구』 52(2013)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서울>라는 주제로,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연구의 과제」, 장성규, 「신체체기 소설의 “경성” 형상화와 “주변부” 인식」, 양윤의, 「서울 정념의 지도」, 오창은, 「도시의 불안과 여성하위주체」, 최애순,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등 연구가 있다.

인해 계층화, 특권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텍스트에서는 도시공간이 재배치되는 것과 더불어 경제호황에 따른 계층분화가 도시인들의 삶에 사적으로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1971~1979년은 기존 강북 중심이었던 도시화가 강남개발로 방향이 바뀌어 진행되면서 서울이 지금과 같은 모습의 현대 도시로 고착되는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강남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 공간이 생활과 주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공간감각의 탄생을 보여준다고 논의된다. 이처럼 송은영의 논의에서는 서울의 형성에 대해 시기적인 변화의 특성과 더불어 문학텍스트들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이라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에 동참하고 실천적 장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17)</sup>

김문정은 장르론적 접근이나 서울이라는 공간의 재현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속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재편으로 인한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도시인, 즉 ‘서울사람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 사람이 없다는 역설적 현상’에 주목하여 1960~70년대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라 지칭할 수 있는 주인공이 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8)</sup>

이 연구들은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서울이라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특징에 더불어, 서울 사람의 탄생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병행하여 1960~70년대 문학과 서울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 근대화된 서울이라는 공간과 문학의 재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1960~70년대를 포괄하여 도시소설 혹은 서울 공간, 서울

17)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의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18) 김문정, 「1960~70년대의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변화와 서울 사람의 탄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조.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 것은 이 시기를 ‘도시화’ ‘산업화’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특질은 분명히 해방 전과는 다른 형상으로서의 도시성이 이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위 논문들에서도 의식하고 있듯이 1970년대의 도시화, 근대화는 1960년대와 그 양상을 달리한다.

본고는 이 지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에 나타난 서울이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1970년대는 1960년대의 도시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넘어서 국가주도의 도시개발이 가시화되고 도심과 변두리 지역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양상의 편차가 심화되기 시작한다. 즉 이제 고향에 대립되는 도시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내에서의 도시의 구획과 배치가 문제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경험을 통해 현현되는 것으로서 ‘도시문학’이 아닌 ‘서울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울문학의 계보 파악을 통해 한양과 경성, 서울에 이르는 계보를 형성하고,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는 서울 문학과 연속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 또한 부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도시문학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도시의 압도적 다수가 서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도시 일반’이 아닌 서울의 특수성을 문제 삼으면서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즉 ‘도시 일반’이 아닌 고유명사로서의 ‘서울’에 주목하면서 일종의 ‘계보’ 설정의 작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제시한 송은영의 박사학위논문을 비롯하여 한형구, 이동하에 의해 시도된 바가 있다.<sup>20)</sup> 서울 문학 연구는 한양을 대상으

---

19)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 연구의 과제」, 『현대소설과 도시사회』, 보고서, 2020, 77-82면. 이 글에서 이동하는 한국 도시소설에 대한 연구의 선구적 작업인 이재선의 「도시적 삶의 체계와 자연 또는 농촌의 삶의 양식」(『한국현대소설사』)에서 이광호의 『도시인의 탄생』(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에 이르기까지 ‘도시’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대부분 서울을 무대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81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로컬리티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문학 연구 또한 그렇다.

20) 송은영, 앞의 글.

로 조선후기 도시문화를 조명한 고전문학 분야에서부터 식민지도시로서의 경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축도인 서울에 대한 문학이 한국도시문학의 토대로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1)</sup> 20세기 한국 소설과 도시라는 문제에 있어 그 도시의 90%가 서울과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압도적인 수치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을 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구현된 바가 거의 없었다. 한형구는 1980년대까지, 이동하는 2000년대 후반의 소설에 드러난 서울까지 그 계보를 그려내면서, 이를 통해 한국 소설이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함을 포착한다. 즉 서울에 주목함으로써 지금-여기에 이르는 한국 소설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도시인구 증가로 도시적 삶이 보편화되고, 고도경제성장으로 자본주의적 소비생활이 일상화되었으며, 대중문화가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sup>22)</sup> 한국 도시의 보편적 삶의 방식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이의 대표적 표상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소설에 있어 앞서 언급한 도시성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급격한 자본주의화, 압축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도시 ‘서울’에 대한 장소와 경험을 통해 이념으로서의 ‘서울’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장소로서의 ‘서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전과 현저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1970년대 도시 서울을 공간이 아닌 장소로 인식했던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을 도시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도시문학’이 아닌 ‘서울문학’의 구체화로서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서울문학’의 맥락이 의미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형구, 「문자 현상, 혹은 문학으로 본 서울 근대 100년의 이미지」,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2.

이동하, 「20세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서울과 그 의미」, 앞의 책.

21) 이양숙, 앞의 글, 121면.

22) 오창은, 앞의 글, 397면.

## 1.2. 연구의 시각

197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상을 그려낸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문학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시인문학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로서의 서울이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의 장소성을 그려낸 이들의 소설이 갖는 의미를 고구함으로써 이 세 작가들이 그린 장소로서의 서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울문학의 계보를 작성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서울’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오늘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거의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 삶을 기준으로 한국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sup>23)</sup>,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한국사회의 축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도시를 무대로 삼고 도시와 관련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 도시소설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도시가 서울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이는 한양-경성-서울에 이르는 서울문학의 계보설정이 가능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계보의 작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다룬 최근 문학과와의 연속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sup>25)</sup> 이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서울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지의 여부이다.

---

23) 한형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계보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삶의 역사와 그 공간 지리의 변모」, 『서울학연구』 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120면.

24)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 연구의 과제」, 앞의 책, 77면. 도시와 지방의 위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한 질문 또한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문학지리학에 기반한 로컬리티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25) 2000년대 이후 서울을 다룬 소설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다음이 있다.

이은애, 「소설 속에 나타난 ‘강남’ 이미지 연구-〈강남몽〉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조명기,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변증법: 『서울, 어느날 소설이 되다』와 『서울, 밤의 산책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0, 중앙어문학회, 2012.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 『외국문학연구』 6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이양숙, 「도시적 삶과 폭력의 양상」, 『외국문학연구』 6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이가원,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이미지 연구-손흥규 장편소설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여기에서 우리는 한 논자의 지적처럼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도시가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이동하는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같은 일부 구절을 부산이나 인천으로 바꾸어도 「서울, 1964년 겨울」의 주제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sup>26)</sup> 이러한 의문의 적합한지를 판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때 서울은 도시적 특성을 가진 하나의 도시로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물론 근대화, 자본주의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 소설적 재현을 통해 도시성과 도시공간을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서울을 이데올로기적 공간으로 파악할 때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것들이다. 특히 1970년대 도시 공간은 과도한 도시화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무장소성의 공간으로 수렴되어버린다.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론이나 이념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에 천착하여 구체적인 생활세계로서의 서울을 발견하고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에서 새로운 장소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도시 인문학으로서의 도시문학의 필요성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를 고향(시골)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립의 공간<sup>27)</sup>으로서 파악했던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달리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는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경험을 통해 소설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념으로서의 서울을 그린 작가들과 대별된다. 이들은 문단의 주목을 받은 초기 단편부터 신문연재소설(대중소설)에 이르기까지 도시에서의 삶과 도시인의 모습을 꾸준히 그려냈다. 이들에

26) 이동하, 앞의 글, 84면. 물론 이동하도 현 시점에서 소설을 읽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이 소설에서 1960년대의 서울이 가지고 있었던 면모를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27) 도시소설 연구에 있어 시골/도시의 양극적 이분법으로 인해 도시가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골·도시의 이분법은 시골을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추상화시키고 도시를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공간으로 단순화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양숙, 「『원미동 사람들』에 나타난 도시의 일상과 도시공동체의 의미」, 『구보학보』 12, 구보학회, 2015, 241면.



게 있어서 서울이라는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기능했다.<sup>28)</sup>

현대인의 경험은 오직 도시 경험이며 도시에서의 한계와 장애물뿐이라는 진단<sup>29)</sup>은 도시와 문학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근대의 충격이나 경제개발로 한정되어 도시성이 문제시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도시인문학으로서의 도시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sup>30)</sup> 도시인문학으로서의 도시문학 연구는 도시에서의 비인간적인 삶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획일성, 진정한 인간적 관계의 단절 등 현대 대도시의 위기적 징후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sup>31)</sup> 즉 문학에 나타난 도시(성)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성) 분석이 방법론적인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인문학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학에 있어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장소성 담론으로서 나타난다. 현대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장소성 상실(placelessness)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sup>32)</sup> 도시개발은 도시의 흔적을 지우고 효율성을 앞세워 자본의 수익 추구를 우선시했다. 도시인문학은 이러한 장소상실의 비판에 머물지 않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질문한다.<sup>3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작, 조해일,

---

28) 1960~70년대에 ‘고향’을 주제로 한 소설이 많이 쓰였음을 밝히고 있는 한 연구에서 김승옥, 김원일, 문순태, 이문구, 이청준, 이호철, 전상국, 최인훈 등과 달리 최인훈에게서 ‘고향’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최인훈이 서울태생의 작가라고 언급한 점은 주의 깊게 볼 만하다.(박찬효, 「1960~70년대 소설의 ‘고향’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면) 최인훈 소설에서 고향 혹은 시골이 장소정체성, 장소감을 주는 장소로 기능하지 않은 것은 다른 작가들이 시골/도시의 대립 속에서 도시를 파악한 것과 변별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작과 조해일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29)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97면.

30) 이양숙, 「한국문학과 도시성」, 앞의 글, 115면.

31) 위의 글, 114-115면.

32) “장소상실은 근대 도시공간과 인간 삶의 관계를 정의하는 인문지리학적 진단의 요체다. 엄밀히 말해 이는 근대의 공간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질이기도 하다. 도시 공간은 이러한 장소상실성을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현한다.” 정미선, 「1960년대 도시소설의 장소상실과 기획 공간: 최인훈과 김승옥의 경우」, 『어문논총』 2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4, 203면.

33) 서우석, 「도시인문학의 등장」, 『도시인문연구』 6(2),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38면.

최인호의 도시소설의 의미 또한 재고할 수 있다. 1970년대는 국가주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 세 작가는 이러한 도시 개발 현장의 소용돌이 속에 ‘거주’하면서 고향으로서의 시골, 낭만적인 시골로의 회귀가 아닌, 서울의 장소상실을 직시하는 한편, 도시 서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한다.

1970년대 문학에서 도시에 대한 제시가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가 개발과 발전을 위한 성장 위주의 정책에 의해 현대화·산업화·도시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겔판트나 루이스 워스 등 도시사회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하면 도시소설이란 ‘도시생활의 전형적인 도시성을 반영하는 문학’으로 정의되며, 도시성이란 인구의 수, 밀도, 주민과 집단생활의 이질성이란 변수에 근거하여 해명된다.<sup>34)</sup> 1930년대 문학에서도 도시가 배경으로 드러났지만 197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었다는 데는 이런 도시사회학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게오르그 짐멜, 막스 베버, 시카고 학파 등 초기 도시사회학자들과 발터 벤야민 등은 도시가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도시학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오고 있다. 처음 도시학이 논의될 때는 특히 정주인의 규모나 밀도 등과 같은 변수가 도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이루었다. 이들은 도시사회학의 대상으로서 도시를 규정하는 거주규모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들에 근거하여 도시적 생활양식을 설정하였다.<sup>35)</sup> 루이스 워스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에서 도시와 농촌을 대비하면서 “인구집합의 크기”, “밀도” “이질성”이 도시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본다. 이에 따라 도시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의 상대적으로 크고, 밀집된, 영구적인 정주지로 정의”된다.

---

34) 이재선, 앞의 글, 264-268면.

35) 홍준기,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도시인문학 방법론 논의의 맥락에서-조나단 프리드먼과 짐멜의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사상과 도시』, 라움, 2012, 82~83면.

한편 갠스는 도시에서의 규모와 밀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워스를 비판하면서 계급과 주거의 불안정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운다. 즉 도시적 생활양식 혹은 도시성이란 “주거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36)</sup>

이러한 도시사회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판단하건대, 한국에서 도시의 인구와 밀도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성이 확대 심화되는 것은 1970년대 전후라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경성과 산업화, 근대화된 서울은 그 규모면이나 인식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행정구역은 1936년 133.49제곱킬로미터에서 1949년 268.35제곱킬로미터로, 다시 1963년 613.04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었으니 6배로 팽창한 것이다.<sup>37)</sup>

도시화가 되어가는 정도를 지칭하는 ‘도시화’라는 개념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으로도 판정할 수 있다. 해방 후 해외 동포들의 귀환으로 인한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으며, 종전과 함께 195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인구집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38)</sup> 1961년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고 도시화율이 1960년 28%, 1970년 41.2%, 1980년 57.3%, 1990년 74.4%, 2000년 79.7%로 상승해 왔다. 서구의 도시화가 도약기에서 성숙기까지 150-200여년의 시간을 소요한 반면, 우리의 도시화는 이러한 과정을 1/5 혹은 1/6의 기간 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이룬 것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는 농촌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이루어져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과 같은 대도시로 도시화가 집중되었다.<sup>39)</sup>

---

36) 위의 글, 67면.

37) 이영석·민유기 외, 『도시는 역사다』, 서해문집, 2011, 29면. 1980년에는 840만 명, 1990년에는 인구 천 만 명을 넘어섰다.

38) 1955년 도시인구는 528만명으로 도시화율(읍부 제외한 도시지역의 인구기준)은 24.5%에 달했으며, 이후 1960년대까지 100만 명이 도시로 더 이주해 와 28%까지 상승했다. 즉 도시화율로 본다면 1950년대 이후 도시로의 집중이 시작되었으며,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1960년대에 진정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명래, 「한국 도시사회의 변모에 관한 역사적 고찰」, 『도시와 빈곤』 71, 한국도시연구소, 2004, 7면.

39) 위의 글, 8면.

1970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6대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77.7%에 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1977년 도시화율은 50% 포인트를 지나 1990년 전후 성숙단계 초입인 75% 수준에까지 이르렀다.<sup>40)</sup> 이를 보면 해방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1960, 70년대를 지나면서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만 보자면 해방 직후 서울의 인구는 150만 명 수준이었고, 한국전쟁 후 본격적인 증가를 시작해 1959년 200만을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인 1963년 300만, 1970년 500만, 1976년 700만, 1983년 900만을 돌파한 것에 이어 1988년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약 40년간 90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기록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40년 사이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 거주자가 되는 “대변혁”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명래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서울의 모습 역시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41)</sup>

이러한 도시화는 한국의 고도의 압축적 성장의 일면을 보여주는 한편, 한국의 도시화의 특수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압축적 근대화가 ‘군사정권 개발독재’의 감독 아래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한국의 도시성이 사회적인 의미 외에 정치·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성에 대한 도시사회학의 관점은 자연과 고향의 상실, 고독과 소외감, 이방인 의식 등 도시소설에 나타난 도시현상의 제 현상과 도시적 경험의 표출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으며 1970년대에는 이러한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설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특히 이들 1970년대 도시를 형상화한 소설에는 “도시에서의 현저하고 보편적인 양식이 묘사”되어 있으며 “도시가 갖는 특수한 역할이나 의의가 인물의 성격과 행위에 영향을 주고 상징적인 구조나

---

40) 위의 글, 9-12면.

41)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002, 271~287면.

서사적인 기법으로서 처리”되고 있다.<sup>42)</sup>

이렇게 도시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1970년대 문학을 살펴보면, 도시가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도시에 대한 경험·생태·심리효과 등의 지평이 확산됨과 아울러 도시와 도시환경이 지닌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상에서 연유하는 필연적 결과”다. 이 시기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이자 ‘인구밀집도시’로, 시인과 소설가는 ‘도시생활자’로서 도시의 감각과 경험을 드러낸다. 특히 그 재현의 양상은 도시 폭로와 비판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적 삶의 양식인 ‘도시성’과 밀접한 연관이 된다.<sup>43)</sup> 그 이전에도 도시는 존재했지만 도시적 경험이 주로 새로움이나 충격으로 즉 이질적인 경험이었던 것과 달리 인구가 도시 특히 서울에 집중화되어 거대 도시로서의 규모를 지니면서 도시에서의 삶이 일상화되는 한편,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배태되는 것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재선은 이를 바탕으로 1960~197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도시화 현상과 함께 도시는 우리문학에서 주제, 배경, 상징, 성격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도시화와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새로운 변화와 연관된다고 본다. 서구의 경우 상업도시, 산업도시 및 후기 산업도시 등의 발달이 분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도시성은 6·25전쟁이란 특수성과 60년대 이래의 근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 도시재개발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이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44)</sup> 서구의 도시사회학에 기초한 도시화 현

---

42) 이재선, 앞의 글, 272면.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서울의 달빛 0점」,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 「서울 사람들」, 이동하의 「홍소」, 『도시의 늪』, 『장난감 도시』, 「실종」, 신상웅의 「도시의 자전」, 윤흥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한수산의 『부초』, 「침묵」,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황석영의 「이웃사람」, 「돼지꿈」, 「장사의 꿈」, 최인호의 「타인의 방」, 「돌의 초상」, 서영은의 「유리의 방」, 「산행」,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최일남의 「서울 사람들」, 김국태의 「귀는 왜 졸창 열려 있나」, 전상국의 「고려장」, 이문열의 「달팽이의 외출」,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 『가슴없는 세상』, 박범신의 『불의 나라』,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윤후명의 「미혹의 길」, 최수철의 「소리에 대한 몽상」, 박영한의 『왕릉일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3) 위의 글, 248면.

44) 위의 글, 271-272면.

상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도시화에 대한 유효한 분석틀이 됨과 동시에 당시의 도시의 여러 현상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1970년대에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다수 등장하게 된 이론적 준거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1970년대 한국의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25전쟁과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국가개발 등 한국적 사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도시인식은 이제 단순히 도시 그 자체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고 현대라는 시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전반적인 삶의 인식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이재선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작가들이 도시와 도시의 삶에 대해 인지하는 양상의 성격을 분석한다.<sup>45)</sup> 도시를 인식하는 양상의 유형화와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설과 도시가 폭넓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설과 도시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데 유효한 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피상적인 차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

문학에서의 도시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도시성을 ‘도시적인 현상’ 혹은 ‘근대성’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문학에 나타난 도시 체험과 이 체험이 주는 충격의 형상화를 의미한다. 이 입장은 주로 짐멜이나 벤야민의 문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근대적 풍물인 백화점, 카페, 다방, 쇼윈도, 마네킹, 전기, 조명, 에스컬레이터 등이나 철도, 전차, 전화, 라디오, 영화 등 새로운 운송 수단과 매체가 주는 속도감과 이에 따른 변화를 그려내면서, 도

---

45) 첫째는 도시가 이주의 지향처라는 장소의 개념과 직결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시골로부터 도시로의 전이와 함께 인구학적인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함께 욕망실현과 그 성취여부의 땅으로서 받아들이는 의식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로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으로 도시의 삶의 조건을 폭로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조로 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주로 도시개발이나 성장 속에서의 주거의 공간적인 질서의 대비나 차이 및 노동자 도시 빈민들의 가난한 삶의 조건과 협착한 터살이에 관심을 갖는다. 셋째는 도시나 그 속에서의 삶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심리적 양상과 성격을 주시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위상과 관련되는 작품들은 도시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이거나 정신적(도덕적)인 삶의 타락상이나 병리현상에 관심을 두게 된다. 넷째는 생태학적인 관심의 투사로서, 이는 계약적인 이익사회인 도시 사람들의 행동형태나 인간관계의 형태 속에 나타나 있는 특유한 생활 양식 및 생활형태론이나 공간적으로 분할된 특정지역과 장소에서의 삶 및 환경변화를 살피고 있다. 다섯째는 시간과 공간 기타의 수렴화에 의해서 도시를 어떤 이미지의 틀로서 규정하거나 도시탈출의 의식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양상들은 실제로 있어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제시된다. 위의 글, 249-250면.

시 문명의 매혹과 절망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박태원 소설의 ‘구보’와 같은 근대적 주인공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한정된 의미의 도시성인데, 도시를 자본주의가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형상으로 보는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적(the urban)’이라는 개념을 ‘도시(city)’라는 물리적 대상과 구분하며, 이때의 도시(the urban)는 공간, 일상생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이라는 상호 관련된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도시문학은 공간적 매개인 도시를 통해 자본주의적 근대가 인간들에게 내외부적으로 관철되는 양상을 형상화한다.<sup>46)</sup>

게오르크 짐멜은 「대도시와 정신적 삶」에서 거대 도시와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도시적 경험은 개인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전형적인 대도시인은 외부환경의 흐름이나 그 모순들에 의해서 삶이 뿌리째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 결과 도시인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지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대도시의 화폐 경제 위주의 생활로 계산적인 정신이 강화되었다. 한편 대도시에 사는 개인들의 심리적 기반은 신경과민이라 할 수 있는데, 대도시의 새로운 자극들은 오히려 대도시인들에게 둔감함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태도와 함께 도시인들 사이에는 거리두기가 나타난다.<sup>47)</sup> 이러한 도시적인 삶의 태도와 양상은 1970년대 도시화가 일상이 된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에게서도 보이는 것을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샬 버만은 19세기 중엽의 파리와 페테르부르크의 대비를 통해 ‘저개발의 현대화’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경제적 정치적 현대화의 물자 위에 직접 건설된 선진국가의 모더니즘과 후진성과 저개발에서 나오는 모더니즘을 발견한 것이다. “저개발의 현대화는 현대성이란 환상과 꿈 위에 건설하고 신기루와 유령에 대한 친밀감과 갈등 위에서 성장하도록 강요받는다.”<sup>48)</sup> 이는 서구

46) 이양숙, 「한국문학과 도시성」, 앞의 글, 116-117면.

47) 게오르크 짐멜, 김덕영 역,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35-53면.

48)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8, 283면.

의 근대화와 다른 한국의 근대화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도시성을 분석해야 함을 요청한다.

1970년대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근대화 담론에 대한 한국 지식사회의 논의는 계속 되었지만,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1970년대 한국 도시의 보편적 삶의 방식으로 고착되었다. 도시인구 증가로 도시적 삶이 보편화되었고, 고도경제성장으로 자본주의적 소비생활이 일상화되었으며, 대중문화가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sup>49)</sup> 따라서 1970년대 소설에 있어 앞서 언급한 도시성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급격한 자본주의화, 압축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도시성의 탐구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창작된 도시소설은 도시 체험과 도시체험으로 인한 충격을 주로 그려내면서 이러한 충격을 가하는 도시에 거리를 두거나 경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해일, 조선작, 최인호에게 있어서 서울이라는 공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자본주의적 문화가 침식된 공간으로 부각된다. 이미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 도시적 생활을 욕망하거나 그 생활을 환멸하면서도 이들은 이러한 도시적 생활을 일상생활로 영위한다. 즉 르페브르가 말한 바 이들에게 있어서 도시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회적 문화적 공간의 실천의 장인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이 공간적 실천, 공간적 재현, 재현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공간적 실천이란 일상생활이나 상징적인 감으로 인지되는 일상적 지각 공간을 가리키고, 공간적 재현은 기호, 담론, 개념 등에 의해 재현된 개념공간을 가리킨다. 재현의 공간은 상징과 이미지들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 즉 예술과 문학을 통해 생산되고 접근되는 생동공간을 의미한다. 공간적 실천은 “공간을 지배하면서, 또 전유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생산한다.” 즉 “지각되는 공간 안에서 일상적인 현실(시간표)과 도시현실(일터와 사생활, 여가활동 장소 등을 이어주는 경로와 관계망)을 밀접하게

---

49) 오창은, 앞의 글, 397면.



연결 짓는다.” 공간 재현은 학자들이나 도시 계획가들이 “체험된 것과 지각된 것을 인지된 것과 동일시”하여 기획한 공간이다. 재현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으로 “상상력이 변화시키고 자기 것을 길들이려고 시도하는 공간”을 “비언어적인 상징과 기호들의 다소 일관성 있는 체계화를 지향”한다.<sup>50)</sup> 도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소설에도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제 현상들과 도시인들의 모습들이 재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시사상가들의 도시이론들은 이미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르페브르에게 있어서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 내용은 분리되기 어렵고 짐멜 또한 문화철학을 기반으로 인문학적 도시이론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인문학은 이미 도시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다.<sup>51)</sup> 도시인문학은 이를 넘어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도시의 장소상실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시사상가들의 도시성에 대한 분석 또한 참조하면서 도시인문학의 관점에서 이들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과 장소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문지리학적인 접근으로서 문학에 나타난 지리적 요소를 탐구하거나 문학지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문학에 나타난 장소성을 탐구하는 등 학제적 연구로 이루어져왔다.<sup>52)</sup>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정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을 탐구하는 시도도 있었다.<sup>53)</sup> 이를 참조하여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을 작가의 경험 즉 개

50)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예코리브리, 2011, 80-97면.

51) 이성백, 「글로벌폴리스와 도시인문학의 가능성」, 『도시인문학연구』 1(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15면.

52) 지리학계와 국문학계의 연구 방법론과 성과에 대해서는 권혁래,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우리문화회, 2016 참조.

53) 강민구, 「유하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조미숙, 「『무화과』에 나타난 1930년대 경성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6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조미숙, 「『빛의 계단』에 나타난 1950년대 서울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7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송지선, 「문학지리학적 관점으로 본 이윤악 시의 지식인의 소명의식에 따른 고향 서울의 장소성 연구」, 『국어국문』 72, 국어문화회, 2019.

인의 경험과 의미를 담지한 장소로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소설에서 누락되었던 지점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한편 도시의 장소성이 기억이나 의미해석이 아닌 공간의 배치와 구획에 따라 생산된다는 것<sup>54)</sup>은 장소상실 혹은 탈장소 이후의 새로운 ‘장소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sup>55)</sup> 이 세 작가들은 구체적인 장소로서 서울을 경험하고 이를 소설에 재현함으로써 도시라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경험적 장소로서의 서울을 그려냈다. 또한 서울의 확대에 따른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와 그에 따른 장소성의 상실을 담론의 차원을 넘어서 장소경험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도시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 비록 이들의 소설에서 새로운 장소성이 구축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서울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성찰을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장소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푸 투안의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푸-투안은 공간과 장소는 생활세계의 기본요소라고 보면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공간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과 ‘장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공간은 개방성, 자유, 위협, 움직임과 관련되며, 장소는 안전(security), 안정(stability) 그리고 정지(멈춤)이라 볼 수 있다. 움직임 속에서 정지할 때 장소가 되는 것이다.<sup>56)</sup> 공간이 비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라면 장소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공간이 장소로 기능한다. 인간은 목적적 운

54) 김춘식,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55)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 현상을 이해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로, 현존하는 장소를 유지 관리하고 새로운 장소를 창조하는 데 장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7면.

56)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9-20면.

동과 지각을 통해 공간에서 개별 대상들의 친밀한 세계를 경험하고 이것이 장소가 된다. 장소는 가치의 응결물이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다.<sup>57)</sup> 즉 공간에 경험과 의미가 부여될 때 공간은 장소가 되는 것으로, 장소와 장소성에 있어서 인간의 경험이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장소의 개념에 주목할 때 현상학에 토대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장소’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립한 에드워드 렐프의 논의는 참고할 만하다. 그는 기존의 형식적, 실증적 지리학에서 설정한 장소와 달리 지식보다 우선하는 생활세계로서의 장소를 설정하고 있다. 이 생활세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자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장소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지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실존이란 ‘거주’하는 것이며, 장소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렐프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비장소성을 의미화하는데, 장소성은 이의 반대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렐프가 말한 비장소성을 통해 장소성을 정의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장소성은 비장소성(placelessness)의 반대쪽 극단에 해당한다. 장소성은 한 장소가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지각적 국면, 그리고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실존적 국면에 제대로 부합함으로써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형성된 총체적 특질”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sup>58)</sup> 다시 말해 장소성은 “인간에 의해 장소에 부여된 의미를 통해 장소가 갖게 되는 성격”이다.<sup>59)</sup>

기존의 지리학에서 장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과 장소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고유한 특성”을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개념화한다.<sup>60)</sup> 렐프 또한 장소에 있어

---

57) 위의 책, 29면.

58)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81면.

59)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275면.

60) 심승희, 「에드워드 렐프의 현상학적 장소론」,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5, 40면.

서 장소에 대한 경험에 의미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소정체성’이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the place)’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 with the place)’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때 장소를 내부인으로서 경험하는지 외부인으로서 경험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sup>61)</sup> 장소의 본질은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 속에 있으며, 장소의 본질은 장소를 공간상에서 서로 분리시키고, 물리적 환경, 인간활동, 의미로 이루어진 독특한 체제를 규정한다. 어떤 장소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고, 그곳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더욱 깊이 내부에 있게 될수록 장소와의 동일시, 즉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sup>62)</sup>

외부성과 내부성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렐프는 장소를 내부자로서 경험하는가, 외부자로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크게 외부성과 내부성의 구분을 시도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에서 장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행자가 되어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내부에서 어떤 곳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둘러싸여 그 일부가 되는 것이다.<sup>63)</sup> 렐프는 이를 통해 장소의 본질이 외부, 그리고 경험되는 내부의 경험 속에 있다고 말한다.

장소의 외부성은 실존적 외부성, 객관적 외부성, 부수적 외부성으로 분류가 된다.<sup>64)</sup> 부수적 외부성(incidental outsideness)은 무의식적인 태도로, 장소는 활동을 위한 배경이나 무대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부수적으로 생각된다. 부수적 외부성은 방문자로 있는 장소나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의도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것은 집이라는 장소에서는 우리의 의도가 무엇이든 ‘부수적 내부자’인 것과 반대된다.

부수적 외부성이 무의식적인 태도라면 실존적 외부성과 객관적 외부성은 의

61)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0면.

62) 위의 책, 116면. 렐프는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의 요체로 외부에 대한 내부의 경험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부로의 깊은 경험을 통해 장소와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32(5), 1997, 178면.

63)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6면.

64) 위의 책, 119-122면.

식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ness)은 의식적인 무관심, 사람들과 장소로부터의 소외, 돌아갈 집의 상실, 세계에 대한 비현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장소는 실존의 의미가 있는 중심일 수 없고, 의식 없는 망상적 활동의 배경이 될 뿐이며, 최악의 경우는 공허해진다.

지리학계의 오랜 전통인 객관적 외부성(objective outsideness)은 장소에 대해 의도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도시계획가들이 자신들이 계획하는 장소를 자신의 감성을 분리시키고 논리, 이성,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하는 태도로 객관적 외부성으로 볼 수 있다. 인간 활동, 물체가 위치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장소를 선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장소에 대해 의도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람과 장소가 분리된다.

내부자로서 장소를 경험하는 것을 렐프는 장소의 내부성이라 하면서,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대리적 내부성, 행동적 내부성, 감정이입적 내부성, 실존적 내부성으로 구분한다.<sup>65)</sup>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은 간접적이거나 대리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예술가나 시인이 작품에서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은 한 장소에 있으면서 그 장소가 관찰 가능한 성질을 가진 사물·관점·활동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인식한다. 장소가 사건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경험되는 부수적 외부성과는 달리 신중하게 그 장소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다. 행동적 내부성은 ‘여기’에 있으면서 특정 장소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적 내부성(empathetic insideness)은 장소에 대한 관심이 외관의 특성에서 감성적이고 감정이입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감정이입적 내부성은 장소의 의미에 마음을 열고, 느끼고, 장소의 상징을 알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요구한다. 마치 종교의 신자가 아니어도 그 성소(聖所)를 신성한 것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단순히 어떤 장소를 바라보는 것looking만

---

65) 위의 책, 122-128면.

이 아니라, 그곳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만나고seeing 이해하는 것이다.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은 장소 개념의 토대가 되는 그 장소에의 소속인 동시에, 깊고 완전한 동일시이다. 실존적 내부성의 자세로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장소의 일부가 되며 장소 역시 그의 일부이다. 이는 장소와의 깊은 유대감과 동일시를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본고는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가 서울의 내/외부자로서 서울을 경험한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 때 이 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서울을 각각, 행동의 장소(조선작), 감정이입의 장소(조해일), 실존적 장소(최인호)로 유형화하여 이들 작품의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의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조선작은 성년이 된 후 대전에서 서울에 상경한 외부자로서 서울에 하숙하면서 서울로의 진입을 꾀한다. 서울의 외부자로서 서울의 변두리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사화한 조선작은 서울이라는 장소를 렐프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 외부성으로서 파악했지만 서울에서 작가로서의 삶과 서울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점점 내부자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작은 상경청년들의 서울의 장소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서울의 중심부로의 편입의 불가능성과 계층이동의 불가능함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것이 1970년대 당시 종로일대의 도심부와 주변부의 장소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울이 고향이었던 최인호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살게 된 조해일은 서울의 내부자로서 서울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자전적인 소설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해일은 중산층의 문화적 생활의 장소로서의 서울을 그려내는 한편 하층민의 거주 장소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대상과 장소에 감정이입 되고 있음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인호는 초기 소설부터 인간의 근원적인 장소인 집의 상실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서울에서 실존적 장소의 탐색을 시도한다.

한편, 내부자로서 경험을 한 서울의 장소성을 탐구할 때, ‘비판적 동행자’라

는 소설가의 존재론적 위치를 참조점으로 삼고자 한다. ‘비판적 동행자’는 1977년 「산업사회의 비판적 동행자들」이라는 안삼환의 당대의 비평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최인호를 비롯한 소설가들이 ‘비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행자’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66)</sup> 본고는 이러한 ‘비판적 동행자’를 참조점으로 삼으면서,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가 서울의 ‘거주자’로서 도시와 도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울의 장소 경험을 소설화했다고 보고자 한다. 즉, ‘비판적 동행자’로서의 소설가라는 지점에서 나아가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의 서울을 분석하는 한편, 그것이 이들은 더 나아가 서울이라는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는 고향(시골)/도시라는 이분법적 공간으로서 서울을 파악하기보다는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며 그 속에 사는 동시대인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197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사회가 가시화되던 시기로, 이전까지의 도시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그 이전까지 서울을 이분법적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면, 1970년대에 자본주의적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내면화되어 작동한다. 도시인들은 자본주의화된 도시와 소비문화에 현혹되기도 하고 좌절하고 비판을 하는 등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인들의 삶은 서울이 거대 도시로 형성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으로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도시공간 또한 재배치되면서 도시인들의 삶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도시를 주된 배경으로 도시인의 삶을 그려낸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다층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본고는 렐프의 장소의 내부성 개념을 원용해 이들이 행동의 장소(조선작),

66) 안삼환, 「산업사회의 비판적 동행자들」, 『문학과지성』, 1977 겨울호, 1110-1118면. 이동하는 도시문학에 대해 작가의 개성과 관계나 장르적인 차이 없이 ‘현대 도시문명은 철저히 비판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명제에 대해 대부분이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가 실제 누리는 도시가 과연 절대적으로 비참한 곳이며, 철저히 비판받아야 마땅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안삼환의 ‘비판적 동행자’ 개념이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동하, 「한국문학의 도시문제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앞의 책.

감정이입의 장소(조해일), 실존적 장소(최인호)로서 서울을 그려냈음을 소설을 통해 분석하고, 도시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장소성 성찰을 통해 새로운 문학사의 가능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들의 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이들이 문단이 아닌 독자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서울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소설 속 장소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등단 초기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의 관심을 받고 특히 『문학과지성』은 이들의 소설을 재수록하면서 호평한다. 초반에는 이 세 작가들과 문단의 이데올로기는 같은 지점을 향하는 듯 했지만, 이 세 작가가 상업영화로 성공하면서 이러한 관심과 독려는 사라진다. 이들은 문단과 독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는데 이때 이들은 후자를 선택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으로서의 문학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문단이 아닌 독자를 선택하고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한 것은 이들에게 이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이 이념이나 추상으로서의 서울이 아닌 구체적 삶의 장소로서 서울을 그린 것도 이와 관련성을 보인다. 1960~7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 서울은 시골/도시의 이분법적 도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 작가들은 이를 넘어서 서울을 구체화한다. 다른 작가들이 이념으로서의 도시 서울을 형상화한 것과 달리 자신들이 경험한 장소 서울을 구체화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들이 남긴 기록이나 다른 문인의 증언,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와 작가의 서울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조선작이 서울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외부자적인 시선을 보이지만, 점점 서울의 내부자에 가까워지면서 서울이라는 장소경험을 통해 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으로 장소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선작은 상경청년들의 서울의 장소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서울의 중심부로의 편입의 불가능성과 계층이동의 불가함을 그려내고 있다. 이를 1970년대 당시 종로일대의 도심부와 주변부의 장소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의 삶을 주로 그린 조선작의 소설을 통해, 아무런 연고가 없이 도시적 삶에 다가간다는 것이 이들에게 요원한 일이었음을 「영자의 전성시대」를 비롯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미스양의 모험』, 『말괄량이 도시』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조선작의 인물들은 서울에서의 삶에 정착하기 위해 계층이동을 희망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견고한 도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작은 민족, 민중 이데올로기에서 비껴나면서 이념적이고 경직된 이념이 아닌 도시의 주변인들의 감성적 연대를 추구한다.

4장에서는 조해일의 경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외관의 특성에서 감성적이고 감정이입적인 것으로 옮겨가, 그곳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감점이입적 내부성(empathetic insideness)으로 장소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해일의 소설에서는 중산층의 장소경험과 하층민의 장소경험이 드러나는데, 초반에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문화적 소비생활이 제시되고, 이후에 도시 변두리의 판잣집의 목도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조해일의 소설에서 아파트란 주거공간은 부정적인 대상에서 선망하는 대상으로 변화한다. 초기 소설인 「아메리카」와 「무죄탈」에서 아파트는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장편소설 『겨울여자』, 『지붕위의 남자』,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아파트는 청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해일은 중산층의 청년들의 소비, 문화생활을 보여주면서도 후반부에 가서는 변두리에 대한 탐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5장에서는 최인호가 서울을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도시적 감수성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최인호의 소설을 통해 도시개발로 인해 집을 상실하는 한편, 아파트라는 도시적 삶이 일상적이 되어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최인호의 소설에서 서울은 고향과 대별되는 고정적인 실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유동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집의 상실과 도시개발로 인한 장소성 변화, 아파트라는 새로운 장

소의 등장 속에서 도시민들은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이들은 실존적 장소를 모색하면서 타인과 도시적 친밀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족에서 이웃으로 확대되어 감을 살펴볼 것이다.

## 2.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소설과 구체적 경험 공간으로서의 서울

### 2.1. 이념으로서의 문학의 거부와 독자와의 공감 추구

조선작(1940~), 조해일(1941~2020), 최인호(1945~2013)와 1970년대 왕성하게 활동한 이문구(1941~2003), 황석영(1943~), 조정래(1943~), 김원일(1942~), 조세희(1942~), 이문열(1948~) 등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생활을 하였지만, 문학에 있어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이들은 1970년대에 등단하여 문제작을 쏟아내면서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의 관심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후자가 70년대 문단의 거대 산맥인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과 이념적 지향을 공유한 것과 달리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는 『창작과 비평』이나 『문학과지성』 중심의 문단에서 이탈하면서 대중소설 작가로 분류된다.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는 등단 시점부터 사회비판적인 단편 소설을 주로 창작한 시기까지는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의 관심을 받는다. 특히 『문학과지성』은 1970년 창간호에 최인호의 「술꾼」을, 1974년에 조선작의 「미술대회」, 조해일의 「임궏정」(13호, 1973년 가을호), 「임궏정3」(20호, 1976년 여름호), 「무쇠탈2」(28호, 1977년 여름호)를 재수록하였다. 『문학과지성』은 창간부터 재수록제도를 통해 신인들을 발굴하는 한편 자신들의 문학관과 가치를 공고히 했다.<sup>67)</sup> 즉 『문학과지성』의 필진들은 이 세 작가의 소설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천착하거나 구조적 모순에 주목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작가가 이른바 상업영화로 성공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독려는 사라지게 된다. 공교롭게도 『문학과지성』이 이들의 소설을 재수록한 이

67) 『문학과지성』의 재수록에 관한 의의는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참조.

후, 1974년에 <별들의 고향>, 1975년에 <영자의 전성시대>, 1977년에 <겨울 여자>가 영화화되고 흥행에 성공한다.<sup>68)</sup> 이렇게 이들은 신문소설을 연재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되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문단과 대중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정황은 최인호의 회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인호가 「술꾼」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은 후, 1974년 동명의 영화 <별들의 고향>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김현은 최인호에게 양자택일을 주문하고 최인호는 문단에 소속되기보다 대중작가가 되겠다고 말한다.

그 무렵 평론가 김현 씨가 나를 불러 어느 술집에서 자리를 함께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내게 말하였다.

“당신은 참 좋은 작가였다. 그런데 <별들의 고향>으로 대중작가가 되려 한다. 당신은 우리가 옹호하던 작가였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난처한 우리 입장이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니 양자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 달라.”

나는 그때 단호하게 말하였다.

“내게 신경 쓰지 마시오, 형님. 내가 못마땅하면 내 이름을 평론에서 빼시오. 내 이름이 부담스러우면 내 이름을 평론에서 제외시키시오.”

지금의 얘기지만 그때의 그런 판단이 내게는 참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문단을 떠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sup>69)</sup>

김현은 70년대 문학을 돌아보면서 70년대 특유의 폐쇄적인 정치, 사회적 정황은 문학이 사회정치적 문제에 연루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문학가의 대화 회적 태도가 화두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즉 당시 문학가에게 있어서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상황에 자신들이 옹호하던 작가인 최인호의 행보가 이들에

68) <별들의 고향>은 1974년 4월 26일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여 105일동안 상영하고, 관객 46만 이상을 동원하였다. <영자의 전성시대>(김호선 감독)도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어 36만 이상 관객을 동원하였다. 1977년에 개봉한 <겨울여자>는 58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별들의 고향>을 능가하였다. 정종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2 1955~1997』, 열화당, 1997, 88-91면.

69)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여백, 2015, 248면.

게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1970년대는 “민족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문학을 통한 역사의식의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게 된 시기로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으로 나타난 그 한계를 극복한 ‘민중문학론’이 성과를 이룬 시기로 인식되어 있다.<sup>70)</sup> 그리고 문단에서 『문학과지성』과 『창작과비평』은 문학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파급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구축하였다. 『창작과비평』의 경우 ‘민중’문학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민중이라는 역사 변혁의 주체이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주체라는 시각을 공유했다. 따라서 민중은 “자생적으로 위력적인 역량을 가진 존재, 역사를 변혁하는 주체, 문학의 주제, 양심과 인간다운 것을 구현하는 주체, 관용과 온정을 행사하는 존재, 모든 종류의 참다운 의식으로 인도하는 시금석”으로 이상화되었으며 한편으로 이것은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기제가 되었다.<sup>71)</sup> 이러한 민족, 민중 담론이 점차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서 작품 또한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으며 문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아갔다.

이러한 당시 문학에 대한 지식인들 및 일반인들의 기대는 최인호의 「무서운 복수」(1972)에 잘 드러나고 있다. 최인호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작중 소설가 ‘최준호’에게 정외과 김오진은 최준호의 소설이 역사의식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글쓰는 이의 ‘사명’에 대해서 말한다. 글은 국민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조간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을 그려내는 것에서 나아가 그 모순을 파헤쳐 형상화 시켜야 하며 그것이 작가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네 글 쓰는 친구들은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돼요. 난 정말 그것을 꼭 최형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당신네 붓들은 모두 사적인 얘기에 치우치고 있어요. 나이 먹은 축들은 옛날 대동강에 뱃놀이할 때가 좋았다고 쌍팔년도식 회고담

70)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245-265면.

71) 박수현, 「1970년대 한국소설과 망탈리테」,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8-55면.

이나 주절대거든요. 글은 모름지기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국민을 옳은 길로 각성 내지는 계몽을 시켜야 된다 말씀이야. 그렇다고 무조건 사회의 부정을 쓴다고 수작(秀作)은 아니에요. 사회의 부정을 씹네 하면서도 대부분 조간신문을 보고 글을 쓰더군. 누가 복어알 먹고 죽었다 하면 단박 그것을 쓰거든. 복돌 어멈과 복돌 아범을 등장시켜 말ियो.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 현실을 예리하게 파헤친 수작. 수작 좋아하네. 요컨대 무엇을 쓰느냐의 문제는 조간신문만 보면 수천 개라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모순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에서는 엄 켜병이거든. 그저 복어알 먹고 콧 죽고,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자살한 이야기만 쓰면 현실을 고발한 것으로 안단 말씀이야. 그런 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밖에 안돼요. 요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위를 가정 적절한 사건으로 형상화시켜야 되거든요.<sup>72)</sup>

이처럼 당대 지식인들이 문학의 기능에 대해 설파하면서 작가에게 작품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정황은 최인호의 후일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최인호는 단편 「술꾼」이 『현대문학』에 실린 후, 이것이 『문학과지성』에 재수록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던 중에 『창작과 비평』의 편집자인 염무웅에게 작품을 주었는데 실리지 않아 이유를 묻자 저항의식이 약하므로 후반부를 강하게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수송동 어느 일층 다방에서 만났는데 그는 내게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중편이 하나 있다고 대답한 후 곧 <미개인>을 완성해서 며칠 후 그를 만나 작품을 주었는데 다음호에도 또 그 다음호에도 내 작품은 실리지 않았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내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연락을 한 후 물었더니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품의 주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저항의식이 없으니 뒷부분을 강하게 고쳐달라는 것이었다. 주인공이 두들겨 맞고 끝나는 것은 지나친 패배의식이니 이를 좀더 강하게 고쳐달라는 것이었다.

염무웅씨의 그런 주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창작과 비평>은 소위 참여문학을 주장하고 있었고, <문학과 지성>은 순수문학을 주장하고 있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작품을 평론가가 감히 이리 고쳐라 저리 고쳐라 하고 주문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입으로 말해버렸다. 젊은 작가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72) 최인호, 「무서운 복수」, 『최인호중단편소설전집 2』, 문학동네, 2002, 209면.

로서는 놀라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당장 그 작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두말없이 출판사 편집실로 돌아가 원고를 가져와 내게 돌려주었다.<sup>73)</sup>

당시 문단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가에게 작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거부한 에피소드는 당시 신인작가 최인호의 ‘젊음’의 패기와 새로운 세대의 가치지향의 일단을 보여준다. 최인호는 문단의 이런 경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작가란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학인들은 아직도 문학 그 자체에 도움이 되지 못할 이론과 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문학은 곧 민족문학이어야만 할 것이며, 또 한쪽은 민중의 문학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쪽은 문학이 문학외적인 것에 시선을 돌리면 이데올로기나 어떤 목적의 시녀로 전락되어 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4)</sup>

내가 문단에 등단해서 제일 환멸을 느낀 것은 솔직히 이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작가들과 비평가, 혹은 그 무의미한 논쟁이 보이지 않는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도무지 읽히지도 않는 소설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도저히 문학의 기초 상식조차 없는 자칭 엘리트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이 끝없는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수냐, 참여냐, 리얼리즘이나, 관념소설이나, 민족문학이나, 농촌문학이나, 소시민문학이나, 도피문학이나 하는 어지러운 명칭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sup>75)</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인호는 민족/민중 문학이나 순수/참여 문학, 리얼리즘/관념 문학 등 문단 내에서의 논쟁을 비판하면서 문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최인호는 작가는 문단을 떠나야 한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이는 문단을 통해 작가 활동을 시작했거나 주목을 받았지만

73)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여백, 2015, 198-199면.

74) 최인호, 「작가는 무엇을 쓸 것인가」,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 예문관, 1979, 261면.

75) 최인호, 「나의 문학노우트-1975년간 <최인호 전작품집> 수록」, 위의 책, 296-297면.

문단에서 벗어나 독자를 지향한 조선작이나 조해일의 선택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작과 조해일 또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독자를 선택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정황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들 작가의 태도일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최인호는 작가는 문단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으며, 조선작과 조해일 또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문단이 아닌 독자를 선택했다. 조해일은 “널리 읽히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신문연재소설 제의를 수락한다.<sup>76)</sup> 조선작 또한 지적 조작과 미학적 설계에 의한 창작보다 ‘독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소설의 재미가 작가의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

조선작은 짧지 않은 습작시절에도 불구하고 낙방을 거듭하다가, 『세대』사의 낙선소설 공모에서 「지사총」(1971)으로 등단한다.<sup>77)</sup> 『세대』사에서는 각 신문사 신춘문에 낙선작에서 당선작을 뽑는 독특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여기에 조선작이 당선된 것이다.<sup>78)</sup> 그동안 김동리를 위시한 기성세대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외면 받았던<sup>79)</sup> 조선작의 작품이 김승옥, 김현, 박태순, 염무웅, 유현종 등

76) “최인호가 조선일보의 발탁으로 『별들의 고향』을 발표한 73년 이후 신문의 연재소설은 급격한 변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변모는 우선, 문단 경력 5년 안팎의 신인작가들이 대거 진출, 연재소설의 집필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이변, 혹은 거의 충격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범박하게 말해서 신문소설은 그것의 문학적 의미가 어떻든, 그리고 신문에서의 역할이 어떠하든, 신문이 문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의례이며 따라서 그 집필자는 작가 경력이 최소한 10년은 넘고 문학적 성과도 어느 정도 인정된, 소위 중견층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러나 최근 수삼 년 동안 70년 작가들의 활약은 괄목할 수준을 넘어 연재소설계를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다.” 김병익, 앞의 글.

최인호의 회고에 따르면 그 당시 연재소설은 50년대 작가들의 독무대로 박종화, 유주현 등이 역사소설을 주로 썼으며, 손창섭의 『부부』, 이호철의 『서울의 만원이다』가 인기를 끌고 있었고, 60년 작가로 이청준이 연재소설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여백, 2015, 230면). 이런 분위기에서 신문연재를 한다는 것이 젊은 작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77) 작가가 스스로 작성한 연보에 따르면 조선작은 1960년대 초·중반 「지사총」, 「비극배우」, 「불나방 이야기」, 「시사회」 등을 창작하여 응모하였으나 매번 낙방하였다고 한다. 특히 등단작인 「지사총」의 경우 여러 번 변형을 하여 신춘문에 응모하였으나 낙방을 거듭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낙방한 후, 『세대』의 낙선소설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 등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작, 「연보」, 『고독한 청년』, 열화당, 1977.

78) 「신춘문예 공모 낙선소설 조선작작 지사총 당선」, 『경향신문』 1971.5.7, 6면.

79) 조선작은 59년 이래 10번을 떨어지고 지사총은 69년도 중앙일보에 응모하여 낙선하였고 71년에 다시 서울신문에 응모하고 또 최종심에서 떨어졌다. 이때 최종심에서 계속 낙방 시



젊은 작가와 비평가로 이루어진 이 심사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문학적 관습과 다른 파격성과 새로운 세대의 문학적 정신과 방법이 조선작 소설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1970년대 당시 최인호, 송영, 조해일과 더불어 조선작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호명되었다.<sup>80)</sup> 1971년에 등단한 이후, 조선작은 「영자의 전성시대」(1973)를 통해 이른바 인기작가로 부상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이듬해, 「미술대회」, 「모범작문」, 「고압선」, 「내걸린 얼굴」 등을 발표하고 창작집 『영자의 전성시대』(민음사, 1974)를 출간한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4)는 대중소설로 호명되었지만 본격문학의장에서 『문학과지성』과 『창작과비평』 양 진영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문학과지성』은 조선작의 「미술대회」를 재수록하면서 그를 재조명하였다.<sup>81)82)</sup> 이들에게 있어서 조선작은 “뿌리 뽑힌 인간 군상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 작가인 것이다.<sup>83)</sup> 하지만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1975)의 대중적 성공과 그 이후의 『미스양의 모험』(1975)을 위시한 신문연재소설을 연재하면서 대중소설 작가로 분류되고 문단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조선작이 자신의 창작관이나 문학관에 대해 남긴 글은 많지 않은데, 「지사총 주변에서」(1975)는 당시 등단하게 된 과정과 당대 문단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창작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글이다. 1975년 『문학사상』에서 70년대 작가를 호명하는 자리에서 조선작은 자신이 「지사총」(1971)

---

킨 김동리는 “재능은 뛰어난데 어딘지 내용이 건전치 못한 것 같아서” 낙방시켰다고 술회했다. 이문구, 「나중에 난 뿔-조선작」, 『이문구의 문인기행』, 예르디아, 2011, 235면.

80) 김병익, 「삶의 치열성과 언어의 완결성」, 『문학과지성』 16, 문학과 지성사, 1974.

김병익, 「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 『신문연구』 1977.10.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81) 김병익, 「삶의 치열성과 언어의 완결성」, 『문학과지성』 16, 1974 여름.

82) 『문학과지성』은 조선작의 「미술대회」를 재수록하면서 그를 발굴하고, 민중의 삶을 형상화하면서 『창작과 비평』 진영에서도 고평을 받는다. 박수현, 「조선작 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화회, 2013, 497면.

83) 위의 글, 497면.

을 비롯하여 창녀를 등장시킨 소설을 창작하면서 ‘이단아’처럼 취급되고 도덕 주의적인 시선에서 질타를 받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소설들을 “발가벗고 스트리킹을 벌이는 느낌”으로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창작했음을 밝히고 있다.<sup>84)</sup> 주목할 것은 “소설의 재미는 작가의 의무”라는 창작관이다. 이러한 재미의 추구는 독자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이 재미있다는 것은 스포츠나 쇼와는 다른 문학성을 전제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내 소설에 재미가 있다면 바로 이 뻔뻔스러움의 속물근성이 소설적인 패턴의 어느 일부와 야합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나의 방법론적인 선택이 결코 아니며 이미 천성적으로 굳어 버린 원인적 기질의 소치이다. 이것은 바로 내 창작의 강점이자 한계요, 매력의 요체이자 또한 혐오감을 부채질하는 악취라는 사실도 깨닫고 있다. 때문에 나는 내 소설의 재미에 관한 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늘 자기 혐오와 열등의식에 허덕이고 있는 편이다. 나는 늘 다른 작가의 면밀한 지적 조작과 미학적 설계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꾸며진 성공적인 창작들에 대해서 압도당하며 선망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들처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선볼리 본뜨려고는 하지 않는다. 요컨대 나는 소설을 완성품으로 꾸미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작하거나 설계하지 못한다는 말이며, 더욱이 불후의 명작 따위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참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겨우 나는 신춘문예에 낙선할 정도의 작품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런 가운데도 나는 쓰는 동안 계속해서 나의 황량한 감각대와 피폐해진 양심에 가해오는 충격을 맛보며, 이런 정도의 충격도 가해오지 않는 작업은 계속해 나가지 못한다. 내가 고심참담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만족의 추구에 실패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바로 나의 제작과정과 예술적인 만족의 일치점을 의미하는데, 소설의 재미란 이 일치점의 보편성이 획득하는 독자의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소설의 재미란 스포츠나 쇼우의 재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며,

84) “<지사총>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도 나는 창녀가 등장인물이 된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마치 이단적인 작가인 양 소개되고, 점잖은 숙녀들로부터는 도무지 상종 못할 인간으로 지탄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심지어는 나를 마치 창녀촌의 펴푸나 악덕 포주로 사갈시하는 고고한(?) 인품들까지도 만났다. 그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의하거나 단식투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용색한 사고방식을 긍휼히 여기는 편이랄까.” 조선작, 「지사총 주변에서」, 『문학사상』, 1975.5

설사 이것이 강조되었다 해서 문학성을 저버리거나 문학적 사명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소설의 재미란 소설만이 갖는 하나의 속성이며 최소한도의 의미이지 금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sup>85)</sup>

조선작은 자신과 자신의 소설에 대해 창녀작가, 창녀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자신은 특별한 목적보다도 그들의 삶에서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창작한 것이라고 응수한다.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고 소설을 썼으며 자신의 창작은 미학적 설계나 지적 조작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조선작이 ‘문학성’이라는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설의 재미를 독자의 공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문학성이 뛰어나고 도덕적, 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더라도 독자의 공감 없이는 좋은 소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문학적 도덕주의’에서 비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창작과 비평』 필진은 문학에서 작가의 도덕의식을 문학의 지상 가치로 상정하였으며 ‘건강성’과 ‘건전’이 상투적으로 쓰였으며 민중과 민족을 통해 ‘건전한 인간성’이 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1970년대 작가들과 민중들은 계몽의 대상, 즉 의식개조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인간은 부단히 계발되어야 할 형성 중의 존재”이며 “성인이라기보다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었고 문학이 그 계발과 교육의 회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86)</sup> 『문학과지성』 필진 또한 ‘새로운 도덕의 추구’ 혹은 윤리라는 해석적 지표를 내세웠다. 하여 이들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나 ‘진정한 인간의 삶’을 상투적으로 사용하고는 했다.<sup>87)</sup> 조선작은 문학인들을 잠식해온 문학적 도덕주의에서 벗어나 독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독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문학을 창작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해일은 1970년 「매일 죽는 사람」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활발

85) 조선작, 「지사총 주변에서」, 『문학사상』, 1975.5.

86) 박수현, 「조해일의 소설과 도덕주의」, 『어문학』 121, 우리어문학회, 2013, 174-178면.

87) 위의 글, 179-181면.

하게 창작 활동에 임하면서 단편을 주로 창작하였고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sup>88)</sup> 『문학과지성』은 조해일의 소설 「임꺽정」(13호, 1973년 가을호), 「임꺽정3」(20호, 1976년 여름호), 「무쇠탈2」(28호, 1977년 여름호) 등 여러 번 그의 소설을 재수록하였다. 1974년에 김현의 주선으로 첫 창작집 『아메리카』를 발간하여 호평을 받는다.<sup>89)</sup>

그러나 이후 중앙일보에 연재한 『겨울여자』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영화 <겨울여자>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문단과 평단의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해일은 소설집 『왕십리』(1975), 중편소설집 『우요일』(1977), 『지붕위의 남자』(1977), 『갈 수 없는 나라』(1978)를 신문에 연재하고, 연작소설집 『임꺽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1986)를 내는 등 꾸준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조해일은 중앙일보로부터 소설 연재 제안을 받고나서 일반적인 통념으로 “품위 있고 좋은 소설”을 쓰기 마땅치 않은 장소라는 생각으로 망설였다가 그러한 통념을 깨고 “널리 읽힐 수 있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연재를 시작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우리네 풍속으로는 인기작가라는 말에 대한 얼마간의 거부 반응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기작가란 좋은 작품을 쓰지 않는 작가라는 풀이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같다. 마치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양서

88) 김병익, 「근작 정치소설의 이해」, 『문학과지성』 19, 1975년 봄.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 29, 1977년 가을.

김치수, 「문학과 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 30, 1977년 겨울.

김주연, 「70년대작가의 시점」,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89) “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론가 김현 형의 주선으로, 당시 신진 출판사로서 알맹이 있는 문학서들을 발간하기 시작한 출판사로부터 창작집 발간의 제의를 받았을 때 여간 기쁘지 않았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동반한 기쁨이긴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란 물론 나의 작품들의 됴됨이에 대한 불안이었다. 이런 정도의 작품들을 가지고 과연 한편의 책을 엮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평론가 김병익씨는 책의 해설을 써주었고 소설가 김승옥 형은 책의 장정을 거들어 주었다) 마침내 74년 3월 책이 되어 나오자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여러 신문과 잡지들이 호의 어린 서평을 써주었고 새로운 관용어도 만들어 내었다. 이른바 ‘70년대 작가’라는 말이 그것이다.” 조해일, 「<아메리카>를 내던 무렵」, 『키작은 사람들』, 삼조사, 1978, 222-223면.

는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모든 베스트셀러를 악서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처럼.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작가는 자기 작품이 널리 읽히기를 희망한다. 다시 말해서 인기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인기작가가 되고나면 어쩐지 부끄러움 비슷한 감정을 맛보게 된다. 야릇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널리 읽히는 작품을 썼느냐 안썼느냐에 있지 않고 좋은 작품을 썼느냐 안썼느냐에 있는 것 같다.(…)

필자도 ‘겨울여자’를 쓰면서 좋은 작품 쓰는 것을 목표를 거기에 두었다.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쓰되 널리 읽힐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연재가 끝났을 때 필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끄러운 작품을 쓰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맛볼 수 있었다.<sup>90)</sup>

그러나 창작에 임한 조해일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이후 상황을 보면 조해일은 신문연재소설을 주로 창작하면서 대중소설작가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해일의 신문연재소설들은 각각 <겨울여자>(김호선 감독, 1977), <지붕위의 남자>(박남수 감독, 1978)로 영화화 되었으며, <갈 수 없는 나라>는 각색되어 1987년 8월 17일~25일 M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이러한 노정으로 인해 조해일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상업주의에 편승한 작가라는 인식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해일은 앞서 보았듯이 신문 지면이 품위 있고 좋은 소설을 쓰기에 알맞은 장소라는 통념을 깨고 “널리 읽히는 좋은 소설”을 쓰고자 했으며, 여기에는 독자들이 꼭 저열한 소설만을 재미있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이 값싼 흥미에만 이끌려서 책을 사본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상한 것에 대한 동경이 깃들어 있다. 대중을 의심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자들의 오래고 못된 습성일 뿐이다. 소설이 본래 누구의 것이냐? 대중의 것이 아니더냐? 그것이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한때 귀족들의 향유물이 되었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 와서도 귀족적 심

---

90) 위의 글, 229-230면.

성의 소유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뿐이지 않느냐?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작가가 되는 것은 작가가 오히려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냐?<sup>91)</sup>

위 인용문이 실린 「여름 속의 <겨울여자>」에는 『겨울여자』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초판과 재판이 한 달 만에 매진되면서 소위 베스트셀러작가, 인기작가가 되어 경멸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작가의 내면이 그려지고 있어 흥미롭다. 조해일은 이미 소설집 『아메리카』(1973)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을 때도 ‘인기작가’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나는 그 말이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작가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 그 말을 사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sup>92)</sup>라고 당당히 말한 바 있는데,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는 그 고민이 더 깊고 치열해진다. 여기에서 또한 조해일은 독자대중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작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그 전제로 ‘좋은 소설’을 쓰면 된다고 말한다.

최인호의 일화나 조해일의 고민을 보건대 당시 신문소설을 연재하는 것이 이들 작가들에게 문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이념으로서의 문학을 추구하는 문단보다는 독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문학이란 독자에게 재미를 주고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문학성을 포기하고 대중을 추수했다는 것은 아니다. 조해일 또한 좋은 소설을 쓰고자 했고, 조선작 또한 스포츠나 쇼와는 다른 문학성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이들 작가들이 문단이 아닌 대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사회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진단도 있었을 것이다. 1970년대가 되면서 대중소비시대가 되었으며 대중문화가 점점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작가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병익은 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작가들이 작가를 엘리트로 생각하기보다 대중의 일원으로서 생각하며 소설가 또한 직업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진

91) 조해일, 「여름 속의 <겨울여자>」, 앞의 책, 1978, 232면.

92) 조해일, 「<아메리카>를 내던 무렵」, 위의 책, 1978, 224면.

단하고 있다.<sup>93)</sup>

실제로 1970년대의 한국이 얼마나 대중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서의 대중사회구조가 실현되었는가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대중문화권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사회를 1930년대의 그것과 비교할 때 대중문화적 요소의 폭증과 대중사회 구조로의 현저한 변화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로 미루어 보자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육박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진적인 도시화,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의 전자매체 주간지 월간지 여성지 등의 활자매체의 대폭적인 보급과 증가, 인스턴트 식품 전기 기구 아파트 따위가 시사하는 일상생활의 규격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각종 요소들은 인간의 삶과 의식을 동질화 획일화 시키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비판하든 대중적 문화양식을 생산한다. 오늘의 신문소설도 이들 대중들에게 수요되는 제품으로서, 바로 이 대중들과 같은 의식의 편향을 가진 작가들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다. 신문소설이 단행본과 영화로 전매된다는 것이 그 하나의 방증이며, 작가들이 자신을 대중의 일원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점이 또다른 중요한 증거이다.(필자는 4년 전쯤 70년대 작가들과 좌담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작가의 개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엘리트가 아니며 평범한 소시민이고 작가란 직책을 회사원과 같은 직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의식에는 아무런 부끄럼이 없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sup>94)</sup>

---

93) 최인호가 스스로를 ‘소설노동자’라고 일컫는 것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볼 수가 있다.

“나는 소설노동자小說勞動者라는 입장에서 언제나 소설의 주인공 이름 하나쯤은 대중의 입에 기억되어 오르내리는 그런 소설을 서비스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뜻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듯도 싶다.”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여백, 2015, 256면.

한편 대중화, 대중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을 하는 글에서는 현 사회는 작가의 권위보다는 ‘친구’로서 존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그런 풍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사회의 변혁은 몇몇 개인의 힘으로만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읽을거리를 찾게 되었으며 공통된 흥밋거리를 찾으려 했다. 권위의식에 염증이 나 있던 시민들은 문학의 고고한 자세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대중에겐 작가가 존경받을 상대로서보다는 친구로서 존재해 주기를 기원했다.” 최인호, 「나의 文學書翰」,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 예문관, 1979, 316면.

94) 김병익, 「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 『신문연구』, 1977.10.

이러한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시대에 대한 수용과 기대는 작가들마다 다른 것이었겠지만 적어도 당시 청년 작가였던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은 대중문화와 대중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였다.<sup>95)</sup> 조선작은 영화감독 유현목의 조감독을 2년간 했던 이력이 있으며<sup>96)</sup> 조해일은 <겨울여자>에 삽입된 ‘눈물로 쓴 편지’, ‘겨울이야기’, 1987년에 드라마화된 <갈 수 없는 나라>에 삽입된 ‘갈 수 없는 나라’라는 노래를 작사했다. 최인호는 초중고등학교 때 영화를 닥치는 대로 보았으며 영화감독을 꿈꾸기도 했고 자신을 ‘할리우드키드’였다고 말하고 있다.<sup>97)</sup> 실제로 최인호는 다수의 영화 작업을 했으며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에 출연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중문화의 공급자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대중문화를 향유하던 수요층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장배경과 체험,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이들 작가에게 이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듯 이들은 이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독자의 공감을 통한 문학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이들은 비평가가 아닌 독자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다.<sup>98)</sup> 그리고 이들이 동시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동시대의 서울사람과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였다고 할 수 있다.

95) 70년대에 “전쟁의 기억보다 풍요로운 경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적극적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할 주체로 성장하였다는 점”과 대학생 및 노동자들이 대중문화의 소비주체로 형성된 점 등으로 대중문화가 활성화된다.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배선애, 「1970년대 대중예술에 나타난 대중의 현실과 욕망-〈별들의 고향〉,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참조

96) 조선작, 「연보」, 『고독한 청년』, 열화당, 1977.

이문구, 「나중에 난 뿔-조선작」, 앞의 책, 239면.

97)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앞의 책, 221-228면.

98) “비평가의 편견 있는 평가 없이도 직접 대중과 정면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사랑하는 경아는 내게 기쁨과 깊은 고독을 선사하였다. 이 <별들의 고향> 이 작품으로 남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사랑스런 경아는 두고두고 잊히리라 확신한다.” 최인호, 「나의 문학노우트-1975년간 <최인호 전작품집> 수록」,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 앞의 책, 304면.



## 2.2. '시골/도시'라는 이분법 너머의 서울

최인호를 비롯한 조선작, 조해일의 소설에서는 고향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들의 소설적 배경인 '서울'은 시골/도시의 이분법적 도식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승옥, 김원일, 문순태, 이문구, 이청준, 이호철, 전상국, 최인훈 등 1960~7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 고향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출생인 최인호에게서 '고향'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고향' 이미지는 전쟁체험과 관계되거나 산업화와 관련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 고향은 도시와 대비된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sup>99)</sup>

이 세 작가들은 시골/도시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서울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60~70년대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과 다른 지점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이것은 “시골을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추상화시키고 도시를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공간”으로 단순화하여<sup>100)</sup> 도시소설을 분석하였던 기존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생활세계로서의 서울을 그린 이들 작가의 소설을 분석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1970년대 소설에 있어서 도시공간의 삶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도시 풍경과 경험이 표출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농촌이나 시골에서의 삶의 양식을 드러낸 소설의 퇴조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된다.<sup>101)</sup>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는 전후 도시화와 그 도시화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와 생태가 축도화된 소설로, 60년대 대도시 서울의 삶의 초상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 이 때 도시의 이미지는 인구학적인 만원과 경쟁적인 '싸움터'로 파악되며 70년대 이후 소설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는 한편 스모그와 공해, 새장과 감옥, 사막 미로 등으로 지각되는데 이는 시골의 이미지와 대극의 성격을 보이는

99) 박찬효, 앞의 글, 2면.

100) 이양숙, 「『원미동 사람들』에 나타난 도시의 일상과 도시공동체의 의미」, 앞의 글, 241면.

101) 이재선, 앞의 글, 247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02)</sup> 즉 도시소설에서 있어서의 도시성이 시골과의 대립을 통해서 정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농촌(시골)과 도시가 이분법적으로 제시되는데, 각각 전근대/근대, 전통/현대성, 공동체/소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인구급증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도시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고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1960년대 등단한 이청준, 김승옥, 서정인, 이문구, 이동하, 김원일의 소설에서 고향과 귀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들은 어린 시절의 전쟁 체험과 1960년대 도시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들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sup>103)</sup> 이들은 해방 전후 태어나 유년 시절에 전쟁을 체험하고, 4·19 전후 대학 생활과 서울 생활을 한 세대로, 그 경험을 소설화하였으며, 보편적 시대경험으로 만들었다.<sup>104)</sup> 이들이 고향을 안식처 혹은 존재의 근원으로 파악하든<sup>105)</sup> 상처의 근원으로서 파악하든<sup>106)</sup> 그것은 도시에서의 삶을 경유하여 드러나고는 했다.

박찬효는 그간의 고향이미지가 고향을 ‘안식처’로 단순화하고 ‘토포필리아’로서 파악하는 것이 고향의 다양한 함의를 간과하고 ‘고향’의 의미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고향(긍정)/도시(부정)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 ‘고향’ 이미지를 분석한 바 있다.<sup>107)</sup> 이를 위해 탈향과 귀향의 서사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60년대는 전쟁과 가난 등으로 인한 탈향의 의지가 강하며, 탈향하는 주체 또한 일시적이지만 도시에서의 삶을 모색하며, 70년대는 귀향의 의지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때 귀향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102) 위의 책, 274면.

103) 김한식, 「상경 청년, 귀향 성장 서사의 의미」,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13, 210면.

104) 위의 글, 212-213면.

105) 대표적인 논문으로 김정아, 「이문구 소설의 토포필리아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장윤희, 「소설에 나타나는 고향탐색 모티프 양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구자황, 『이문구 문학의 전통과 근대』, 역락, 2006 등이 있다.

106) 이들의 고향과 귀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박찬효, 앞의 글;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07) 박찬효, 앞의 글, 10면.

고향을 인정하거나 비판과 반성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고자 한다.<sup>108)</sup> 이는 앞선 고향(긍정)/도시(부정)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김승옥, 김원일, 문순태, 이문구, 이청준, 이호철, 전상국, 최인훈 등 대부분의 작가에서 고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작품을 발표한 서울 출생인 최인호에게서 고향 이미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광범위한 작가를 다루고 있는 이 논문에서 최인호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70년대초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조선작, 조해일의 소설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고의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세 작가는 문단과의 관계설정, 서울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 등에서 문학사에서 주류를 점해 온 작가들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조선작이 1960년대 중반에 대전에서 올라와 김승옥처럼 ‘촌놈의식’을 바탕으로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을 다루었으며, 조해일 또한 해방 후 가족들과 만주에서 귀국하여 서울에서 정착했다는 점, 최인호 또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가족들은 월남한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소설에서 고향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만 작가의 서울 출생의 여부로서만 설명되기는 불충분해 보인다. 즉 이들이 당시 서울을 고향(시골)과 대립된 도시 공간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서울 자체를 삶의 장소로 파악하고, 실제 서울의 경험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학적으로 1970년대 서울 특히 1972~1978년의 서울은 소위 강남의 탄생과 ‘중산층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1970년대의 문학 또한 사회학적인 공간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09)</sup> 이러한 연구는 당시 서울의 소설적 재현 내지 반영이 사회학적 연구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함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서울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서사화를 누

108) 위의 글, 12면.

109) 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의 표제는 ‘1960~19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로,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락시킬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학에서 ‘서울’의 도시 계획과 확장을 통해 이 시기 공간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서울사람들의 삶의 장소는 종로일대와 주변지역인 소위 강북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세 작가들은 서울을 도시/시골의 리얼리즘적 재현이 아닌 서울 자체를 경험 공간으로 삼고,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재를 그려내었다. 즉, 이념으로서의 서울이 아닌 구체적 경험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그려낸 것이다. 이는 이들이 당대 문단의 이념적 지향에서 이탈함으로써 당대의 문법에서 벗어날 수 여지가 생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서울의 특정 공간을 구체화한 데는 이들의 실제 서울의 경험과 관련성이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적 배경은 대부분이 ‘서울’ 중 강북일대이며, 서울에 사는 ‘서울사람’을 주로 그려낸다. 이들이 서울을 서사화하는 데 있어서 도시라는 추상화된 공간을 통한 이념의 전달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외부자로서 경험한 ‘서울’을 서사화해냈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경험의 장소인 서울을 그려내고 실제 서울의 삶을 그려냈다.

한편,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청)소년이거나 이십대인 경우로 해방 후 출생한 인물들인 경우가 많다.<sup>110)</sup> 김승옥이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에서 그린 인물들이 해방 전 출생한 인물들이란 점과 다른 설정은 주목을 요한다.<sup>111)</sup>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경우 김

110) 「지사총」(1971)의 ‘나’는 이십대 전후(1950년 전후 출생), 「영자의 전성시대」(1974)의 ‘나’도 이십대 중반 정도로 제시되며, 『미스양의 모험』(1975)의 은자도 스무 살 전에 상경한다. 「모범작문」, 「성벽」 등은 소년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

『별들의 고향』(1972)의 경아는 1947년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편 중에 소년 화자 다수 등장한다. 『겨울여자』(1976)의 이화는 스무 살이며 이십대의 대학생들이 등장한다. 『지붕위의 남자』(1977)도 사회 갓 취업한 27세의 청년 등 이십대의 인물이 주를 이룬다.

111) 김승옥의 「무진기행」(1964)에서 ‘나’는 1932년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6.25사변으로 대학의 강의를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나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여 리 길을 발가락이 몇 번이고 불어 터지도록 걸어서 내려왔고, 어머니에 의해서 골방에 처박혀졌고 의용군의 징발도 그 후의 국군의 징병도 모두 기피해버리고 있었었다.” 즉, 김승옥은 1941년생이지만 이 소설의 의 화자는 6.25사변 때 대학생이었으며, 4년전 무

승옥과 출생연도는 비슷하지만, 소설의 인물설정이 상이하다. 김승옥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더 앞선 세대를 소설의 인물로 내세운 것과 달리, 세 작가는 해방 후 태어난 이십대 청년들이나 소년들을 소설의 인물로 내세운다. 이 인물들은 해방 전 출생한 인물들과 서울 경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 세 작가는 해방 이후에 태어나 서울에서 태어나거나 서울에 상경한 인물들의 서울에서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단의 중견작가들과 달리 이들이 소설 외에 남긴 글은 그리 많지 않다. 단편적이지만 그들의 서울에서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소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하겠지만 조선작은 망우리 일대, 조해일은 성동구 일대에, 최인호는 아현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서울 일대를 구체화시키고 있어 이 세 작가의 소설을 함께 읽으면, 70년대적 삶의 공간으로서 서울 강북의 모습이 재현되어 매우 흥미롭다.

즉 고향/도시의 이분법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형상화와 강남의 탄생이라는 기존의 사회학적 논의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생활세계였던 강북의 형상화라는 점에서 이들의 소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사대문 밖에서 거주하면서, 도심인 종로일대와 동대문 그리고 왕십리, 부도심인 청량리, 대학가인 신촌 일대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내/외부자로서 경험한 서울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흥미롭다.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작가들의 서울살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설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작은 대전 출신으로 문학에 뜻을 두었지만 생계를 위하여 대전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에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소설을 쓰겠다는 열망으로 1966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였다.<sup>112)</sup> 흑석동에서

---

진을 방문했을 때 29세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33세 정도가 된다.

한편 「서울, 1964년 겨울」(1965)에서 나와 대학원생은 25세이며, 사내는 36.7세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해방 전에 출생한 인물들이다.

하숙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은 결혼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하숙 생활의 경험은 『고독한 청년』, 『말괄량이 도시』, 『장대높이뛰기선수의 고독』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삼년 동안 집필생활을 하면서 신춘문예에 응모하나 거듭 낙선을 하다가, 영화감독으로 출세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유현목 감독 밑에서 연출부 말단으로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출판사에 취직하여 열두 시간씩 대만의 무협소설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등 신산한 서울살이를 했던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1971년 서른이 넘는 나이로 『세대』사에서 주최한 낙선당선작에 「지사총」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는데<sup>113)</sup> 그즈음 그는 망우리에 자취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sup>114)</sup> 등단 후, 망우리 셋방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음을 신혼생활을 쓴 소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15)</sup>

112) 이문구는 기자 시절 쓴 글에서 조선작의 신상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문구는 대전의 중심가인 선화동 32번지 형제 중 맏이로 태어났으며, 부친은 그가 12세 때 6·25 전쟁 중 지방 공산주의자의 손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념가는 아니었으며, 연보에 의하면 아버지는 “노가다판의 야큐샤”로 가정생활에 무심했다고 한다. (이문구, 「나중에 난 뿔-조선작」, 앞의 책, 240면)

113) 조선작, 「연보」, 『고독한 청년』, 열화당, 1977.  
「작품 속의 자화상(9) 소설가 조선작」, 『경향신문』, 1981.3.14.

114) “아무튼 <지사총>이 당선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당선을 알리는 전보가 날아온 것이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둔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이었으니, 서른 세 살의 늙다리 총각에게 여러 가지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그것이 망우리의 내 자취방 앞에서였고, 때마침 며칠 뒤의 내 신부감이 방문해 와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였었다.” 조선작, 「지사총 주변에서」, 『문학사상』, 1975년 5월호.

다음 기사에서도 조선작이 당시 망우동에 거주하였으며 중화 국민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월간 세대지가 공모한 제1회신춘문예낙선소설당선작으로서 조선작의 지사총이 결정됐다. 교사인 조선작씨(동대문구 망우동552)는 지난 11년간 계속 각 일간신문 신춘문예에 응모했으나 번번이 낙선되었다가 이번에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심사위원은 김승옥, 김현, 박태순, 염무웅, 유현종 씨 등이다.” 「지사총 당선 세대지공모문운」, 『매일경제』, 1971.5.13.

115) 신혼 때의 일을 다룬 글에 의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망우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못내 우리들이 신혼 살림을 벌이고 있는 망우리의 한 셋방에 혼자 누워있는 딸년 때문에 불안한 느낌이였다. 그러나 아내는 터무니없이 태연자약했다. 아무튼 우리는 칼국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마치 연애시절처럼 다방에 들어가 커피까지 한 잔씩 마시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희한했던 일은 생후 일개월 남짓의 딸년이 그때까지, 그러니깐 부모의 외출해서 돌아오기까지 두 시간 반 동안 한번도 깨지 않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작, 「외식②」, 『사랑의 우화집』, 세대문고사, 1977, 178-179면.

조선작과 관련된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등단 이후에도 서울에서의 삶을 계속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문구에 의하면 등단하면서 서울 변두리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대기 교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변두리 학교에서의 교사로서의 경험은 독방촌의 학교를 다룬 소설에서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문단에 등장하던 해부터 서울 변두리 국민학교를 전전하며 다시 교편을 잡기 시작했지만, 그나마 여느 평범한 교사직이 못 되는 것이었다. 대기교사 노릇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편히 놀다가 어느 학교에 만삭이 된 여교사가 해산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그동안만 담임 노릇을 하고, 그녀가 몸조리 하여 다시 출근함과 함께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했던 여벌 선생이요 잉여 남자였던 것이다. 지금은 아예 집어치우고 창작에만 전념하게 되어 다행히도 교사봉급보다 많은 교료 수입을 갖고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씨로서는 은근히 그런식의 교사직에 내심 미련이 남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난하고 본데없이 자란 철딱서니 소녀들은 대개 조씨가 한달, 두달씩 분필 가루를 마신, 서울 변두리 국민학교의 재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씨가 사랑하여 마지 않은 그 아이들은 대부분 청계천과 중랑교 독방 근처에서 살고 있으며, 버림받은 시민의 자식들이었던 것이다.<sup>116)</sup>

「미술대회」, 「모범작문」 등의 소설은 이때의 경험을 소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대회」의 화자는 교사로 서울 변두리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그려내고 있다. 「모범작문」은 어린 화자를 내세워 사창가의 창녀의 학교선생님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 그려낸다. 이러한 교사생활은 1974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7)</sup> 위에 인용한 이문구의 글은 1974년경 쓰인 것으로 조선작의 당시 거주지가 도봉구 수유동이라고 전하고 있다.<sup>118)</sup> 황석영 또한 자신이 서울 변두리 우이동버스 종점부근에 살았을 당

116) 이문구, 「나중에 난 뿔-조선작」, 앞의 책, 238-239면.

117) 교사이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따르면 중화동 송신 국민학교로 전근한 교사로 조선작의 이름이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교사 대폭 이동」, 『경향신문』, 1974.2.25.

118) 그리고 1974년 당시 1남 1녀의 단란한 아버지가 되어 도봉구 401-30에 안주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문구, 앞의 글, 240면.

시 수유리입구에 60년대 국민주택 시대에 생겨난 양옥 주택가에 조정래, 신상웅, 구중서, 염무웅 등이 살았는데 그 중 길쭉한 한옥집에 조선작이 살았다고 전한다.<sup>119)</sup> 1983년 무렵에는 평창동에 대지 64평 건평 35평의 주택을 직접 지었다고 하는데<sup>120)</sup> 황석영의 회고에도 평창동에 집을 짓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하여 한두 채씩 집을 지어 파는 일을 했다고 전한다. 2000년 무렵 일산의 같은 동네였는데 용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sup>121)</sup>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을 모아본다면 조선작은 1966년 상경한 이래로 창작활동을 할 동안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그 창작기간 동안 『초토』를 제외하고 서울을 배경으로 서울의 삶을 그려냈다는 것이다.<sup>122)</sup>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지사총」이나 「영자의 전성시대」를 비롯한 단편과 『미스양의 모험』, 『말괄량이 도시』 등이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음은 작가의 삶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대전출생인 그에게 있어 대전은 떠나고 싶은 곳이고 서울은 도달하고 싶은 곳이었다. 그는 서울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그려냈지만, 그를 비롯한 그의 소설인물들은 변두리일망정 서울에서의 삶을 희구하며 서울사람이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서 셋방이라도 얻어서 가족을 만들고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이는 서울에서 상경한 인물들을 그린 1960년대 김승옥의 소설에 구체적인 생활이 결여된 것과 차이가 있다.<sup>123)</sup>

119) 황석영, 「청계천 다리 밑에 개떡 같은 집을 짓고」,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101-5』, 문학동네, 2015, 184면.

120) 「작가 지망생의 필독 원로작가-베스트셀러의 흥행사들-(4)한수산/조선작/김주영/고우영/이문열」, 『월간경향』, 1983.

121) 황석영, 앞의 글, 188면.

122) 『초토』는 경향신문에 1977년 7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442회 연재된 역사소설로 대전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6·25를 다루고 있다. 「새 연재 대하소설 초토의 무대 인기작가 조선작씨 대전 현장에」, 『경향신문』, 1977.7.15. 대하소설로 기획되었으나 1부까지 연재로 끝나고 만다.

123) 1960년대 주로 활동했던 김승옥 소설의 ‘도시에서 살아남기’의 특징은 구체적인 생활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승옥 소설의 주제는 이러한 1960년대 서울의 환경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물들의 불협화음에 있다(김한식, 「김승옥 소설에서 생활의 문제」,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2011). 하지만 1970년대 서울사람들은 서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는다. 서울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적응하였거나 적응하고자 하는 의



조선작은 서울의 외부자로서 상경 청년들의 이른바 서울 생존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십대 후반에 서울에 상경한 조선작은 서울에서 성장기를 보낸 조해일, 최인호와 다르게 서울을 외부자로서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해 그려낸다. 특히 그는 사창굴이나 독방촌의 판잣집 등 서울 변두리의 삶에 주목하면서 도시 변두리로 내몰린 상경 청년들의 삶을 주로 그려낸다.

조선작은 「지사총」, 「영자의 전성시대」, 「성벽」, 「모범작문」에서는 중랑천, 청계천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판잣집이나 사창굴의 도시하층민의 삶을 그려내었을 뿐만 아니라, 답십리 등에서 하숙을 하며 주변인에서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한 그려냈다.(『말괄량이 도시』, 『고독한 청년』) 이들이 사는 지역은 당시 강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 개발, 택지개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선작은 상경한 외부인의 시선에서 서울의 변두리의 생활을 그려내는 한편, 소시민들을 통해 서울에서 자리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그려낸다.

또한, 당시 중랑천과 청계천은 대표적인 판자촌 지역이었는데, 조선작은 이 지역들을 배경으로 하여 주변부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모범작문」과 「성벽」은 아이의 시선에서 독방촌과 사창가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모범작문」에서 ‘나’의 가족은 시골에서 올라와 ‘나’의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일명 ‘색시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택가와 사창가가 분리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후 발표된 「성벽」(『창작과비평』, 1973 가을)에서 독방촌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청량리-제천 간 전기철도 개통식을 위하여 독방촌을 가리는 설정을 보건대, 청량리 일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124)</sup> 「성벽」에서 양말공장에 다니던 ‘나’의 누나는 결국 사창가로 흘러 들어간다.

1971년 완성된 「지사총」과 1973년의 「영자의 전성시대」에서는 이른바 종삼

---

지를 보인다.

124) 우리나라 철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인 1973년 6월 20일에 중앙선 중 청량리-제천 간을 전철화하였으며, 1974년 6월 20일에는 태백선까지 전철을 연장하였고, 동년 8월 15일에는 서울의 지하철과 연결하여 인천, 수원, 성북 간의 수도권 전철화에 성공하였다

이 사라지고 청량리로 사창가가 이동했음을 볼 수 있다. 「지사총」에서는 지명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창숙이 있는 곳이 종로일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영자의 전성시대」는 청량리 588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sup>125)</sup>

「지사총」(1971)의 ‘나’는 ‘청계천 2가’ 철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공장 숙직실에 기거한다. ‘나’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청계천 다리 밑으로 도망가 구걸하면서 생존하다가 공장의 숙직실에 기거하는 중이다. 지사총 초대장을 입대영장으로 착각하는 것을 미루어 스무 살 정도의 청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창녀인 창숙의 아버지의 제사에 따라 나섰던 ‘나’는 우편물이 지사총 초대장이었음을 알게 되고 ‘나’의 부모 또한 대전 사람으로 ‘나’ 또한 지사의 후예임이 밝혀진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사총은 생소한 곳으로 이들의 관심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서울에서의 생존으로 돌아온다. ‘나’는 월급의 1/3인 3천원을 모아 창숙이와 살 사글세방을 얻기로 하며 소설은 끝맺어진다.

이들의 이러한 약조는 연작소설격인 「영자의 전성시대」(『세대』, 1973.7)를 보건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시하층노동자와 창녀의 약속이 순조롭게 진행될 만큼 서울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월남전에서 돌아온 ‘나’의 훈장은 아무 쓸모가 없었으며, 신흥주택가에서 목욕탕의 때밀이를 직업으로 삼게 된다. 창숙이를 찾으려던 ‘나’는 ‘청량리 588’에서 철공장 시절 마음을 두었던 영자를 만난다. 식모에서 외팔이 창녀로 전락한 영자와 ‘나’ 또한 서울에서 함께 전세방을 차려 같이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지만 현실 앞에서 무참히 무너짐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성벽」에서는 빈민촌의 모습과 대비되는 청량리역의 발전, 「영자의

125)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사회악’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윤락행위 등방지법>(법률 제 771호)을 제정하여 성매매 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결집지역 및 특정지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일명 나비작전을 통해 동대문구 창신동, 종삼 등 윤락가를 철폐한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에는 청량리역 앞 사창가인 전농2동이 매춘의 성시를 이룬다. 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106-111면.

전성시대』에서는 사창가와 대왕코너<sup>126)</sup>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서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렇게 중랑천 독방동네와 청량리, 청계천 일대의 빈민들을 주로 그리던 조선작은 「고압선」이나 「내걸린 얼굴」에서는 서울에 사는 소시민의 삶을 그려낸다. 이들은 동대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제기동이나 면목동 등을 주거지로 하고 있다.

「고압선」(1974)의 ‘나’는 사남매를 키우는 가장으로 11년 만에 대출을 얻어 셋방살이를 청산하고자 한다. ‘나’는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옥집 문간방을 전세금 삼만원으로 시작하여 계속 셋방살이를 하다가 11년 만에 집장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나’가 집을 찾기 위해 서울 동쪽과 서울 외곽의 주거공간을 순례하는 것을 통하여 당시의 주거지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흥미롭다.

내 직장이 동대문 근처에 있으므로 동대문 바깥쪽으로 버스가 달는 동네는 모조리 순례했다. 이문동과 선관동을, 중화동과 망우동을, 상봉동과 면목동을, 중곡동과 화양동을, 그리고 구의동과 천호동을 나는 개처럼 험뎌거리며 쏘다녔다. 버스로 걸리는 시간을 재면서 심지어는 서울 밖 교문리와 성남까지도 가보았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다리가 천근이나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실망감과 허탈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자. 아내도 물론 나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였다.<sup>127)</sup>

결국 ‘나’가 집을 구한 곳은 “중곡동의 새로운 구획정리지구”이다. ‘나’는 원하던 집을 찾지만 고압선에 의해 이웃 아이가 사고사를 당하면서 집을 내놓는다. 마지막 부기에는 친구의 입을 빌어 서울의 도시계획의 단견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

126) 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던 일종의 백화점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진에서 ‘청량상가대왕코너-한국최초의 총 도매센터이자 동부서울의 심볼’이라고 쓰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 1968-1970』,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2013, 130면.

127) 조선작, 「고압선」,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159-160면.

(서양의 경우) 고압선은 도시 밖 그 어떤 지점의 변전소에서 일단 끝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도선은 지하 케이블에 의하여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우리 서울의 경우는, 즉 고압선들이 주거지역의 상공을 함부로 넘나들게 된 것은 도시의 이상 팽창과 먼 장래를 내려보지 못한 단견의 도시계획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주석을 붙였다. 내 형편을 소상히 알자 그 친구는 동정을 하면서 술을 샀는데 그날 나는 아주 역병으로 취해버렸다.<sup>128)</sup>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려진 서울의 모습들은 장편에서는 범위가 확대되어 서울의 여러 지역이 등장한다. 『미스양의 모험』에서는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소녀가 거칠 수 있는 직업들과 함께 서울의 장소들이 제시된다. 충남 논산에서 올라온 미스양은 그 거취에 따라 ‘전농동(언니네) - 돈암동(문대선) - 미아리(경혜) - 영등포(한양옥) - 중산추가정(권영철집) - 청진동(해장국집) - 소공동(다방) - 신촌(관광호텔) - 원효로(미스남 자취방) - 청량리(퀵 살롱) - 제기동(자취방) - 도심사창가 - 압구정동(아파트)’의 서울을 경험한다.

『말괄량이 도시』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하숙하던 청년은 취직이 어려워지자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 서울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시 서울의 세태의 한 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상담소는 서울의 중심부의 빌딩에 위치하지만, 이들은 서울의 주변부에서 하숙하거나 여관에서 숙식하다가 보다 더 주변인 청량리의 무허가 하숙으로 밀려난다.

조해일(1941~2020)은 만주에서 태어났으나 해방이 되면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 터를 잡는다. 「어느 하느님의 어린 시절」(1974)은 이러한 조해일의 출생과 유소년시절에 대한 회고를 볼 수 있는 자전적 소설이다. 여기에서는 해방되면서 만주에서 서울로 와서, 부산 피난, 4·19가 일어나기까지 즉 청년이 되기까지의 성장기가 그려져 있다.<sup>129)</sup>

---

128) 위의 책, 184면.

129) 조해일의 연보와 황석영의 회고를 참고한다면, 만주에서 태어나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왔다는 점, 1.4후퇴까지 서울에서 줄곧 살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다는 점, 서울로 돌아

이 소설에 따르면, ‘나’는 인왕산 기슭에 살다가 청진동, 정동(덕수국민학교), 관훈동 등에 살다가 1.4 후퇴 때 부산으로 2년 정도 피난을 갔다가 6학년 때 서울로 환도한다. 조해일은 만주에서 출생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줄곧 살았으며, 서울은 그의 유년의 고향 그 자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와서의 3년 동안, 즉 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의 기억은 아주 단편적인 것들뿐이다. 온 식구가 조개탄 개스에 중독이 되어 정신없이 토하고 안집 아주머니가 퍼다 준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살아나던 일, 나보다 조금 큰 아이들과 더불어 당시만 해도 숲이 무성하던 인왕산 기슭에 올라가 개울의 돌 밑에서 가재를 잡거나(잡는다고기보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잡은 걸 얻어 갖는 게 보통이었지만) 햇빛이 가득 비친 나뭇가지에 꼼짝않고 붙어있는, 빛깔 신비한 풍뎅이를 잡던 일, 어느 산이던가, 역시 큰 아이들을 따라서 산이 저만큼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문득 그 산꼭대기에 오르면 파란 하늘을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던 일, 횃배를 얹아 할머니를 따라서 염천교(현재의 염천교: 서울 중구 소재-인용자) 다리를 지나 한의원에 가던 일, 늦은 홍역으로 한여름 철에 방 안에 꼭 갇혀서 할머니가 얻어다 준 참새 한 마리를 줄에 매어 날리면서 놀던 일, 맛있는 줄도 모르면서 큰 아이들이 그러는대로 아까시아 꽃잎을 한 주먹씩 앞에 넣고 씹던 일 등등.<sup>130)</sup>

인왕산 일대는 대표적인 판자촌 지역이었다. 이 자전적 소설에 의하면 만주에서 내려오던 아버지가 기차에서 전재산을 분실했다고 하며,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당시 판자촌이 일반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하다.<sup>131)</sup> 이후 청진동에서

---

온 뒤 사립 명문 중학교에 입학(보성중학교)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전적 소설이라 판단할 수 있다. 황석영, 「역행의 아름다움」,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5』, 문학동네, 2015 참조.

당대 서평에서 “『어느 하느님의 어린 시절』은 자서전적 작품으로서 무척 흥미롭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상섭, 「세 개의 영역」, 『문학과지성』 22, 1975.11, 960면.

130) 조해일, 「어느 하느님의 어린 시절」, 『세대』, 1974.1, 359면.

131) “인왕산과 안산산록의 현저동 일대와 홍제동 고개 부근, 만리동과 아현동에서 공덕동 일대의 구릉사면, 노고산동 일대, 신공덕동과 효창동 일대, 남산 남사면의 후암동과 한남동 일대, 장충동 및 약수동 신당동 일대의 구릉사면,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일대, 창신동과 송인동, 동숭동에 이르는 낙산 일대, 돈암동과 미아리 고개 일대, 답십리에서 전농

세 들어 살다가 덕수 국민학교 근처의 낡은 한옥집 문간방으로 이사를 간다. 여기에서 6·25전쟁을 맞게 된다. 아버지가 인민위원회에 관련되어, 국군이 점령하자 잡혀갔다가 병자가 되어 나오고 동네에서 고자질을 당할 수 있던 우려로 관훈동으로 이사를 간다. 아버지는 제2국민병 소집 영장을 받고 떠나고 나와 할머니는 고모의 도움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2년여를 살다가 “고생을 하더라도 서울 가서 하자”는 아버지의 용단으로 6학년 무렵 서울로 환도하여 마장동에 셋방을 얻게 된다.

황석영에 따르면, 조해일은 1954년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이듬해 보성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화가를 지망하여 미술반에 들어갔다가 중학 삼학년 때부터 문예반에 들어갔다고 한다. 1961년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였고, 1966년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제대하였다. 이 시기 조선작의 아버지는 동두천에서 사업을 하고 조해일은 왕십리에서 혼자 자취를 하였다고 한다.<sup>132)</sup> 왕십리 일대에서 꽤 오랜 기간 살아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뽕」에서 왕십리에서 흑석동에 이르기까지의 서울의 모습과 「왕십리」에서 왕십리의 변화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생활 근거지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25피난시절을 빼고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으며 서울사람으로 자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3)</sup>

동, 이문동, 휘경동 일대, 미아리에서 수유리에 이르는 북한산 동쪽 산지, 그리고 강남의 흑석동, 노량진 등 일대의 구릉사면 등 주로 구릉지 지역이었다. 또한 청계천, 중랑천, 정릉천 변이나 제방, 경춘선, 중앙선 그리고 조금 폭이 넓은 도로의 양안 등 공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서 불법정착지구를 형성하였다. 이 당시의 불량주택은 “판잣집”으로 불렸거니와, 이는 미군부대에서 나온 나왕이나 미송 등의 목재조각과 루핑, 깡통 등을 이용하여 지은 바라크 집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1961년에 이르러서는 서울에 4만채가 넘는 무허가 불량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광중·윤일성, 「도시재개발과 20세기 서울의 변모」,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563면.

132) 황석영, 「역행의 아름다움」,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5』, 문학동네, 2015.

133) 「작품 속의 자화상(6) 매일 죽는 사람의 소설가 조해일」, 『경향신문』, 1981.2.21. 이 기사에 따르면 조해일이 서울사람으로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동두천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방학 때는 동두천에서 지냈는데 이 경험이 작가에게 특별했으며, 이 경험과 문제의식으로 「아메리카」, 「대낮」, 「애란」 등을 창작하였다고 한다.

「뽕」(1972)은 왕십리에서 자취하던 ‘나’가 흑석동으로 이사가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의 서사와 별개로 주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게꾼의 이동과 함께 등장하는 서울이다.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왕십리- 중국음식점 육합춘 - 광무극장 - 퇴계로- 동국대학- 대한극장 - 성심병원- 아스토리아 호텔 - 프린스 호텔 - 결혼회관- 산업경제신문사-DP&E, 블론디 - 정 건강 관리 연구소 -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 서울역 - 교통센터 건물- USO - 동자동 버스정류장 - 대림산업 - 칠성사이다- 성남극장 - 용산미군부대 벽돌담 - 삼각지 로터리 - 용산전화국, 용산우체국- 미원 주식회사 - 철우회관, 전국 철도노동조합 - 대한여행사 관광버스 영업소 신진자동차 용산서비스센터 - 한강대교. - 한강맨션 - 헌병 파견소

‘나’는 이 경로를 걷기는 처음이기에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나’가 버스를 타고 늘 지나치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 일상적인 공간은 버스로의 ‘이동’이 아닌 ‘걷기’를 통해 나에게 ‘장소’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내기인 작가에게 서울의 건물과 거리들은 추상적인 공간보다는 경험적 장소였으며 그렇기에 소설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새 중국 음식점 <육합춘(六合春)> 앞을 지나고 <광무 극장> 앞도 지났다. 버스를 타고 오가며 지나쳐 내다보기는 했어도 땅을 딛고 걸어보기는 처음인 이 길이 낯선 고장처럼 생소한 느낌이 들었으나 주위의 건물들이며 모든 사물들이 일상의 허울들을 벗어던지고 가순호들에게 말을 건네오는 듯했다.<sup>134)</sup>  
「왕십리」(1974) 또한 서울의 변화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울을 경험한 내 부자의 시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14년 만에 서울에 돌아온 준태가 서울역에서 내리는 순간 목도하는 것은 전차의 궤도가 사라지고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

택시는 시구문을 끼고 돌아 신당동 쪽으로 빠져 나왔다. 그때 준태는 전차의 궤

---

134) 조해일, 「뽕」, 『제3세대 한국문학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83, 195면.

도가 없어져 버린 걸 알았다. 차창으로 내다본 차도는 맨송맨송하게 포장돼버린 위로 흘러 넘친 빗물만이 불빛에 비쳐 번질거릴 뿐이었다. 중앙시장 앞을 지나 광무극장 앞 어림을 통과할 때 준태는 눈여겨 내다보았다. 그 작은 극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 서투른 솜씨의 간판 그림을 이마에 이고 광부의 탐색등 같은 작은 몇 개의 전등빛에 제 전신을 드러낸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중학생 때(겨울이었다) 숯불을 피운 드럼통 화로 주위에 웅기중기 둘러앉아 을씨년스럽게 서양 영화를 구경하던 그 극장은 지금도 그 자리네 남아 비를 맞고 있었다. 그때 본 영화가 무엇이었더라. <마술사의 사랑>이었던가.<sup>135)</sup>

준태에게 있어서 왕십리라는 장소는 개발이 한창중인 도시 공간이 아니라 추억의 장소로 소환된다. 전차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광무극장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안도감을 주며 중학생 때 영화를 구경하였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래의 예문은 이러한 왕십리에 대한 감각적인 기억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장소를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준태는 느릿느릿 걸었다. 왕십리 특유의 먼지가 없어진 건 비 온 뒷날이기 때문이라 치고 왕십리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어떤 향긋한 공기 냄새, 이를테면 잡초 더미 같은 데서 말할 수 있는 싱그럽고 은은한 냄새를 전혀 말할 수 없는 점이 준태는 서운했다. 준태는 좀더 걸었다. 왕십리 로우터리가 나타나고 소방서와 경찰서가 보였다. 로우터리에서 청량리 쪽으로 빠지는 큰 길이 보였다. 유명하던 먼지털이 말쑥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준태는 횡단보도를 건너 곧장 역(驛) 쪽으로 걸었다. 역앞의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전에는 전차의 종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역시 먼지가 풀썩이던 곳, 사람들은 전차에서 내리면 우선 그곳 특유의 햇빛에 바랜, 바싹 마른 먼지와 대면하게 되곤 했었다. 그 먼지는 역 근처라는 이유 때문이겠지만 얼마간 석탄 가루가 섞인 듯한 회색빛 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먼지와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왕십리에 왔다는 것을 알곤 하였다. 그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되는, 왕십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사물이었다. 물론 비가 오는 날이거나 비 온 뒷날엔 사람들은 깨끗이 씻긴 왕모래와 만났었다. 의당 군데군데의 물웅덩이와도.

135) 조해일, 「왕십리」, 앞의 책, 74면.



그런데 지금 그곳은 말쑥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군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다. 준태는 역쪽으로 좀더 걸어 내려갔다. 기동차길이 보이지 않는다. 동대문에서 청계천변을 끼고 달려나와 뚝섬까지에 이르는, 시에서 운행하던 단선의 궤도차가 역 앞 광장의 한복판을 통과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기동차라고 불렀었다. 성(城東)의 명물의 하나이던 그것. 통학생들과 광주리 장수 아주머니들에게 그지없이 사랑받던, 뚝섬 방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유일하던 교통 기관, 준태가 정희와 같이 타고 비오는, 또는 눈 내리는 들판을 내다보면서 몇 번이고 왕복하던 그 기동차도 없어져 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마장동이나 사근동의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름길을 제공해주던 역의 적재장 입구도 완전히 막혀 있었다. 준태는 발길을 돌이켰다. 햇빛은 어느 새 오후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준태는 발길을 돌이켰다. 햇빛은 어느 새 오후의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천천히 되짚어 준태는 다시 <천지회관> 쪽으로 돌아왔다.<sup>136)</sup>

14년 전 스물셋의 대학생이었던 준태는 부모가 판잣집에 사는 정희와의 결혼을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다 귀국한 것이다. 그가 정희를 찾는 과정은 아름답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과거 찾기이며, 그에게 있어 왕십리로 대변되는 서울의 과거가 소환된다. 14년 만에 서울에 돌아온 준태는 서울의 변화상을 목도하면서 정희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서울사람인 이들에게 있어 서울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과 경험의 장소로 기능한다.

이후 신문연재소설에서 조해일은 대학생들이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 청년들을 그려낸다. 『겨울여자』(1976), 『지붕위의 남자』(1977), 『갈 수 없는 나라』(1978)가 쓰여진 시점을 고려한다면 1950년 전후 태생의 젊은 청년들을 그려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은 서울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군들로 그 자식인 젊은 청년들은 그야말로 서울 태생들이다. 조해일은 대학생이거나 중산층인 이들의 동선을 따라 대학교, 아파트,

---

136) 위의 책, 82-83면.

음악감상실, 경양식집, 다방, 창경원에서의 일상을 그려내는 한편 소설 속에서 이들이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삶을 마주치면서 각성에 이르는 순간을 서사화하고 있다.

최인호는 스스로를 ‘서울내기’ ‘해방둥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가족은 월남민이며, 실향민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서울깍쟁이’로 규정짓는다. 21세기에 20세기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고향을 서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비록 서울 태생이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북 평양에서 살아왔다. 아아, 그렇다면 나는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 아닌가.

그러나 서울도 역시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닐쏘냐.

그렇다. 나는 사대문 안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중구에서 태어난 서울깍쟁이다. 서울은 그동안 지방에서 이주해 온 촌놈들로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었다. 경우 바르고, 체면 차리고, 냉수 마시고 이빨을 쭈실지언정 깍쟁이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서울내기로서의 면모는 거친 사투리와 지방색적 단결심으로 완전히 멸망되었다.

서울내기, 진짜 서울 깍두기의 모습은 요즈음 서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함께 골목에서 뛰놀던 깍쟁이 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아마도 전국 팔도 가시 내를 여편네로 삼아 순수한 서울 피를 혼혈하고 있을 것이다. 순 서울산 재래종들은 점점 멸종되어 가고 교배 잡종들만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덕수국민학교, 서울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거친 나는 그야말로 순금의 서울내기다. 살아온 곳을 더듬어보면 태어난 곳은 중구 예관동이요, 영희국민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사 간 곳이 지금의 강북 삼성의료원 자리의 평동 58의 2번지다.<sup>137)</sup>

평동에 줄곧 살았던 최인호의 가족은 중학교 2학년 때(1959년) 북아현동집으로 이사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거주한다. 그가 아홉 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어머니는 하숙을 치거나 방에 세를 주어 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

137)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앞의 책, 15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이 무슨 여관처럼 방이 많은 큰 집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그런 게 아니라 방이 서너 개에 불과한 작은 한옥일 뿐이었다. 형이 고등학교에 갈 때 우리는 아랫방을 세 주었고, 막내 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건넌 방을 세 주었다. 형과 나 그리고 누이와 남동생, 그리고 일찍이 시집간 두 누이를 빼어놓으면 네 남매가 같은 성장기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방 하나에서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단칸방 신세로 지내왔었다.<sup>138)</sup>

이런 경험은 어머니와 함께 신촌에서 수유리로 집을 구하러 가는 「순례기」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실제로는 식구가 단칸방으로 지내고 나머지 방을 세주다가 등록금이 오르면 전셋값을 올려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일화와 달리 이 소설은 세를 주다가 점점 변두리로 이사를 가면서 등록금 및 결혼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변주되어 있다.

집을 팔 때마다 사실은 어머니는 언제나 주름살이 두어 개씩 늘곤 하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오늘날까지 십오륙 년 동안, 별이 하나 없이 우리에게 오직 집을 줄이는 것만이 가장 큰 수입이었기 때문이었다. 큰형이 대학교 들어갈 때엔 아랫방에 세를 주었고,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집을 팔았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사가는 집은 으레 방이 서너 개 있는 것이 보통인데, 안방을 제외한 문간방은 막내 아들 중학교 등록금용이요, 사랑채는 비싸만 가는 내 대학교 이학기 등록금용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세를 줄 방이 없으면 어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내놓았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를 갈 때마다 언덕 하나를 넘어야 했고, 나중엔 둘, 다음엔 네 개, 학교에 가려면 처음엔 도보로 십 분 내로면 충분하던 것이 버스 다섯 정거장, 처음엔 수도물이 팔팔 나오다가도, 다음엔 공동 수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한 바깥씨의 수도물을 날라와야 했고, 후엔 솥재 저 언덕길 아래에서 허이허이 땀을 흘려가며 펌프물을 길어와야 했던 법칙에 이미 익숙해 있어서 이번엔 적어도 언덕 다섯 개 이상과 시내로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열다섯 개, 우물물을 먹고 배탈이 날 계라는 각오쯤은 하고 있었다.<sup>139)</sup>

---

138) 위의 책, 81면.

139) 최인호, 「순례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2, 72면.

이 소설에서 모자는 신촌의 집을 팔고 딸의 결혼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이 당시 교외였던 수유리에 가기도 어렵다는 현실과 직면한다. 이는 소설적 상상력과 서울의 변화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더불어 작가의 서울살이 경험이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인호는 결혼하고서도 아현동에 거주하는데 가난한 젊은 부부는 십오만원 짜리 전세방을 얻어 1970년 12월부터 72년 봄까지 살았다고 한다.<sup>140)</sup> 그 집은 그 부근의 학교선생들의 항의에 창녀집을 아파트로 개조한 ‘날조아파트’로 이때의 일화를 유머러스한 콩트로 적어놓고 있다. 아래층은 대중탕이고 부부는 이층에 목욕탕 앞에 침대가 놓여 있는 5평짜리 방에 살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가 물탱크를 잘못 건드려 물난리가 났을 때 그것을 피해 부부가 북아현동 약수터로 피신을 한 것을 보건대 이 신혼집도 북아현동에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sup>141)</sup>

1972년에 현대문학상의 상금 십만원과 전세금 십오만원을 합쳐 연희동에 있는 새마을 아파트 3동 404호, 방 두 칸의 열세평 아파트로 전세를 얻는다.<sup>142)</sup> 『별들의 고향』의 아파트 또한 최인호가 실제로 산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한때 내 소개로 시인 고은씨도 한 일 년간 살다 갔으며 소설가 최인훈씨도 육개월 살다가 떠났던 아주 유서 깊은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이 아파트를 잊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별들의 고향>의 작품 무대가 바로 이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주인공 문오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였으며, 주인공이 걷는 철로변의 풍경 또한 바로 이 아파트 근처의 교외선이 배경이었던 것이다.<sup>143)</sup>

140)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여백, 2015, 197면.

141) 최인호, 「신혼기」,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4. 한 기사에 따르면, 북아현동 한성고등학교 복수목욕탕이라고 전한다. 어느 날 이 목욕탕 물탱크를 건드려서 목욕 197면. 정지용·윤동주가 詩 읊던 곳…최인호 ‘별들의 고향’의 고향(18) 시인 손정순의 서울 북아현동 골목, 문화일보, 2014. 10.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2401033130136002>(검색일자: 2020.6.19.)

142)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앞의 책, 218면.

143) 위의 책, 220면. <별들의 고향> 영화에 최인호와 최인호가 살았던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

최인호는 자신을 ‘할리우드 키드’로 명명하며 초중고 시절의 영화관 순방을 구체적으로 회고하고 있는데<sup>144)</sup>, 유년 시절의 이러한 경험은 60년대 작가들과 확연히 다른 감수성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가는 평동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전세방을 놓아서 생활했기에 다섯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였으며, 자신만의 방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소원은 신혼집을 차리고서도 2년이 지나 방 두 개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작가가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다는 것이 다만 물질적인 공간의 희구가 아니라 실존적인 공간을 추구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날마다 내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잠들고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천장의 무늬를 세어도 어린 날에 꿈꾸었던 그런 내 방의 기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다. (생략)

그러나 내가 꿈꾸었던 내 방이 이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 혼자만의 내 방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새들이 삭정을 물어다가 아무도 모르는 나무숲 가지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 듯, 나도 일상의 생활에서 삭정이들을 물어다가 내 마음 속에 아무도 모르는 빈방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방을 소유하는 일이라는 것을.<sup>145)</sup>

최인호는 당대 도시적 감수성의 작가로서 주목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울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그리고 다시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서울 내부의 변화상을 서울내기로서의 경험하였으며, 그것이 소설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내부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도시 개발로 인한 서울의 재편과 장소(집)의 상실 문제에 천착했다.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는 서울의 내부자 혹은 외부자로서, 고향/도시라는

---

을 볼 수 있다.

144) 위의 책, 221-229면.

145) 위의 책, 220면.

이분법을 넘어서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서울을 고향에 대립된 도시 ‘공간’으로 파악했을 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장소경험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지점을 포착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세계로서의 서울의 의미가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 3. 생존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감성적 연대의 추구: 조선작의 경우

#### 3.1. 서울에 대한 풍문과 실제 사이의 간극

조선작은 성인이 되어 대전에 상경한 외부자로서 서울을 예리한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서울의 외부자의 위치해 있던 조선작과 소설의 인물들은 서울에 상경하여 서울의 여러 장소들을 겪으면서 점점 내부화되어 간다. 이들은 풍문으로 들었던 서울과 실제 서울의 간극을 서울의 여러 장소들을 경험하면서 실제 서울 삶의 실체를 알게 되지만 귀향하지 않고 서울 변두리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은 서울에서 하숙하거나 식모살이를 하거나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서울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상경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장소는 하숙집, 사창굴, 숙직실이었으며, 서울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친 결과 겨우 전셋집을 마련하거나(「내걸린 얼굴」) 고압선에 언제 감전될지 모르는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고압선」) 조선작의 소설에서는 외부에서 편입된 내부자로서 서울이라는 장소를 경험하면서, 장소에 대한 부수적 외부성과 달리 장소에 신중하게 주목하는 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으로 장소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6)</sup>

조선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그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영자의 전성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거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 대상으로 하층계급과 창녀를 다룬 작품에 나타난 사회비판의식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다.<sup>147)</sup>

---

146) 에드워드 랠프는 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은 장소가 사건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경험되는 부수적 외부성과는 달리 신중하게 그 장소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23-124면)

147) 조명기, 「영자의 전성시대 연구」, 『문창어문논집』 35, 문창어문학회, 1998.

홍성식, 「조선작의 초기 단편소설의 현실성과 다양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김경연, 「70년대를 응시하는 불경한 텍스트를 재독하다-조선작 소설 다시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7, 284-286면.

초기단편소설의 경우 중심에 편입하지 못한 주변부 군상들을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고평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 단편에서의 현실인식과 달리 1975년 『미스양의 모험』을 연재하면서부터는 사랑에 대한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며 저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대 비평에서부터 꾸준히 되풀이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창녀소설’이라는 수식어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작 소설에 대한 연구 중에는 여성 표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sup>148)</sup> 이처럼 조선작 소설에 대한 연구는 단편소설에 편중되거나 주제의식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작은 작가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보수주의적 문단의 도덕주의적인 시선을 넘어서 독자의 공감과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실의 심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저평가 받아온 장편소설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조선작은 1975년 『미스양의 모험』을 신문에 연재한 후, 단편소설을 창작하는 한편 꾸준히 장편소설을 연재한다. 단편소설을 통해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의 부박한 삶의 모습을 제시했던 조선작은 장편 소설에서 또한 서울에서의 상경 청년들의 삶에 천착하고 있다. 조선작이 단편소설에서 보여준 호스티스의 삶은 장편 연재소설 『미스양의 모험』, 『말괄량이 도시』(1977) 등으로 이어진다. 호스티스를 인물로 내세운 것은 단순히 독자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욕망과 모순을 폭로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스티스의 삶의 묘사가 세밀해질수록 주인공은 도시의 진면목

박수현, 「조선작 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앞의 글, 4~5면.

148) 이정옥, 「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1970년대 ‘창녀문학’에 나타난 여성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양상」, 『한국문학논총』 29, 한국문학회, 2001.

김영옥,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제1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1.

김경연, 「주변부 여성 서사에 관한 고찰-이해조의 강명화전과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42, 문창어문학회, 2005.

김경연, 앞의 글.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원규, 앞의 글.



을 알아가게 되고 도시의 모습은 더욱 뚜렷해지게 된다.<sup>149)</sup> 따라서 『미스양의 모험』을 비롯한 장편소설에서 청년들의 상경 서사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도시적 삶의 양식과 상경민들의 몰락서사를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장소경험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할 때, 그간 경직된 문학사 서술에서 누락된 소설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조선작의 소설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인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자의 전성시대」의 영자와 창수, 『미스양의 모험』, 『말괄량이 도시』의 주인공들은 모두 서울로 상경한 청년들이다. 이들은 서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상경하지만,<sup>150)</sup> 도시는 이들을 호락호락하게 도시민으로 인정하지도 포용해주지도 않는다.

조선작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서울로 몰려드는 상경민들 특히 이십대 전후의 청년들의 상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이것이 조국근대화라는 환상에 의한 것이며 그 환상이 현실과 불일치함을 상경민들의 몰락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작은 이를 위해 이들의 서울에서의 삶과 상경민의 몰락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데 이것은 그의 창작관과 연결된다. 그는 소설 창작이 ‘구체적인 어떤 것과의 만남’이라고 말하면서, 로맨티시즘이나 관념성을 배격하고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만나고자 한다.

149)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앞의 글, 65면.

150) “불우하나 꿈 많은 시골의 소년 소녀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대도회를 향해 진출하는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날의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도 아닐 것이며 입지전(立志傳)에 의하면 이런 사례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미어 터질 만큼 켜 버린 현상이다. 더구나 그 입지전의 주인공들처럼 출세를 했다거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수효는 아마 빙산의 일각도 못될 것이다. 아홉 마리 소 중의 털 하나라는 중국식의 비유가 있지만 이런 허풍장이식의 비유도 이런 경우는 단순한 비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리라. 아무튼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도좌절의 점괘가 맞아 떨어져 그 도저한 쓴 맛을 견디지 않으면 안될 이 일에 투신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운명은 이미 담보되고 미래는 역시 미지수를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청소년들이 그렇겠지만 양은자 양 역시 이런 확실한 자각과 뚜렷한 막연한 호기심과 막연한 기대, 그리고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가능성 등이 양은자양을 움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라고는 그녀가 이제까지 한번도 겪어본 일이 없는 삼만원이라는 거금과 눈여겨보아왔던 신문광고, 수첩에 적힌 몇 개의 주소밖에 없었다.”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상』, 예문관, 1975, 95면.

내게 있어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를테면 갈비찜 같은 구체적이고 확실성 있는 것들이다. 먹으면 배가 부르고, 입으면 따뜻하고, 타면 빨리 달리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나 겨우 나로 하여금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도록 한다. 내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램브란트의 그림이 아니라 쌓아 올리면 집을 만들 수 있는 벽돌 한 장이며,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이 아니라(술은 안마시니까) 맹물 한 컵이며, 여권 운동가가 아니라 한 명의 창부일 수도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그림같은 집을 짓고~~」 하고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나올 때 나는 배시시 웃음을 머금을 수가 있다.

「님과 함께」도 ‘청계천 다리 밑에/개떡같은 집을 짓고/귀신 같은 마누라와’ 정도로 뒤바뀌서 중량천 독방의 다리를 저는 동석이라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 고래고래 터져 나올 때, 나는 매우 비참한 감동으로 찢찢 매며 몸둘 곳을 몰라 한다.

미스 코리아에 당선하고 눈물을 찍어내는 여자보다 하루 저녁에 6천원이나 벌었다고 울먹이며 좋아하는 미스 살롱의 77번 아가씨가 보다 감동적이며, 장학금을 받은 장학 퀴즈의 우수한 고등학생보다 간밤에 밤차 타고 서울 올라와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한 조치원의 이발관 청년이 훨씬 더 감동적이다.

그가 경연에서 낙방하고 고개를 딱 떨굴 때, 그리하여 모처럼 해입은 양복에 어울리게 반들반들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 위로 조명등이 만들어 놓은 하이라이트를 발견한 순간 나는 구체적인 삶의 어떤 실체와 만날 수 있으며 쓰고 싶다는 충동을 받는다.<sup>151)</sup>

그는 자신에게 실감을 주는 것은 램브란트의 그림이나 여권운동가가 아닌 갈비찜, 벽돌 한 장, 창부라고 말한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이나 운동보다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창작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창작관은 「지사총」을 비롯한 단편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창작되는 장편소설에서도 이어진다. 조선작이 자신의 창작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앞서 구체적인 현실을 그려내려고 했다는 점과 더불어 『미스양의 모험』에 대해 “70년대의 변동사회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는 소회를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52)</sup> 그리고 이것은 등단작부터 장편에 이르기까지

151) 조선작, 「구체적인 어떤 것들과 만나기 위하여」, 『한국현대문학전집』 55, 삼성출판사, 1979.

152) 조선작, 「작가의 말」, 『미스양의 모험』, 고려원, 1989.

조선작 소설 전반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조선작은 초기소설부터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70년대 변동사회'였던 서울의 여러 장소를 바탕으로 상경 청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냈다. 조선작은 등단작인 「지사총」(1971)을 시작으로 『장대높이뛰기선수의 고독』(1980)에 이르기까지 종로, 동대문, 청량리, 답십리, 중곡동 등 서울의 강북으로 상경한 청년들의 삶을 주로 그려낸다. 조선작이 등단 이후 가장 많이 창작하였고 「영자의 전성시대」(1973)라는 문제작을 창작한 1970년대는 사회학적으로 강남 개발 시기(1972-1978년)와 겹치지만, 조선작 소설 인물들의 활동 장소는 여전히 강북의 도심 종로 일대와 그 주변부이다.<sup>153)</sup> 이는 조선작이 서울 도심과 주변부 서울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1972~1978년의 시기의 서울은 소위 '강남의 탄생'으로 요약된다.<sup>154)</sup> 1966년부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나 진척이 없었던 강남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1972년에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서울시가 강남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북을 특정시설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송은영은 이에 기반하여 소설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기미가 드러났으며, 박완서의 「낙토의 아이들」(1978)과 「어떤 야만」(1976)을 통해 '강남개발과 중산층 시대의 도래'라 이 시기를 명명하고 있다.<sup>155)</sup> 하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도 여전히 서울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강북이었다.<sup>156)</sup>

---

153) 조선작뿐만 아니라 조해일, 최인호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위 강북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종로, 청량리, 답십리, 동대문, 미아리 등 특정 지역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급되지 않더라도 창경원, 덕수궁, 조선호텔, 프린스호텔 등 당시 특정장소의 언급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서울의 각 장소들은 일차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장소로 제시된다.

154) “‘강남’이 “1970년대 개발을 통해 물리적으로 새롭게 탄생된 도시공간”이라면 ‘강북’은 강남의 탄생으로 인해 새롭게 재인식된 공간”으로, 우리가 ‘강북’이라 명명하는 땅이 강남으로 인해 새롭게 명명된 단어라는 측면에서, ‘강북’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탄생되었다는 측면에서 ‘강북의 탄생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안창모,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64면.

155) 송은영, 『서울탄생기』, 앞의 책, 352-411면 참조.

156) 송은영 또한 이 시기를 강남의 탄생이라 명명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갑자기 강남을 선망

1960년 서울인구가 200만을 돌파하면서 1963년 500만 수용을 전제로 서울의 지역 확장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 편입되어 서울시 면적은 268.35㎢에서 596.50㎢가 되었고 조정을 거쳐 613.04㎢가 되었다. 한강 이남에 대해 1966년 60만명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남서울 도시계획’이라 명명하였으나, 경공업지역 개발 계획 중심이었다. 1963년 행정구역의 확대로 서울의 행정구역이 한강 이남으로 확대되었고, 면적은 122% 증가되었으나 세대수는 5%, 인구는 5.6% 증가되었을 뿐이었다. 1960년과 1970년 시가지분포를 비교해 보면 시가지가 눈에 띄이게 확장된 한강 이북과 달리, 한강 이남은 영등포 일대를 제외하고 시가지 변화가 거의 없다. 1980년대에도 강북과 영등포 일대의 시가지 확장이 뚜렷한 것에 비해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963년의 행정구역의 확대가 1970년에 이르기까지 도시적 기능과 무관했으며, 서울시민들에게 있어서도 한강 이남이 지역으로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1970년대 이후 강남개발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인구 증가는 여전히 강북에 집중되었다.<sup>157)</sup>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도시계획과 행정 개편과 별개로 당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로를 기반으로 하는 구도심이 서울의 중심으로 여전히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중심은 여전히 구도심으로 인지되어 한강 이남은 영동(영등포의 동쪽), ‘남서울’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다가 1975년 성동구 중 일부가 ‘강남구’로 독립되면서 ‘강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보다 영동, 남서울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한강 이남이 서울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지 1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

하고 물려간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강남은 넓은 논밭에 건물과 주택들이 드문드문 세워진 곳으로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개발을 장려하고 이주를 독려하고 사람들도 강남이 뜬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 더 익숙하고 편리한 강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남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쉽게 이동하지 않아서 개발 규제 면제, 학교 이전 등 각종 유인책을 써나갔기에 가능했다.(위의 책, 357-358면)

157) 안창모, 앞의 글, 76-78면.

한강 북쪽이 서울이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8)</sup> 즉 서울 시민들은 정부의 도시계획의 의도와 달리 종로 일대를 일터이자 주거지라는 삶의 터전의 장소로 살아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역에 발을 내딛으며 서울 땅을 처음 밟는 상경민들에게 서울이란, 지금 우리가 강북이라 부르는 일대가 생존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작은 상경민들이 서울역에서 내려 서울땅을 밟는 순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외부자에서 내부자로서 편입하면서 그들에게 생존으로서 주어진 장소를 서사화한다. 즉 이들에게 주어진 곳은 독방촌의 판잣집(「성벽」)이나 남의 집(식모살이), 공장 숙직실, 창녀촌, 하숙 등 임시 거주 장소이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식모, 식당, 버스 차장을 하다가 결국 청량리 집창촌에서 생존하던 영자는 창수와의 보금자리로 셋방이라도 얻기 위해 매음을 한다. 「지사총」의 창숙이 또한 창녀촌에서 나와 영식에게 돈을 모아 셋방이라도 얻자고 한다. 서울의 변두리인 답십리에 하숙을 살고 있는 청년은 돈많은 재혼녀를 만나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는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상담소 문을 두드린다.(『말괄량이 도시』) 이들의 지상 과제는 서울에서의 생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확인할 뿐이다.

이들이 서울의 주변부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하더라도 서울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생존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방 서기에서 고군분투하여 서울로 입성하여 중앙부서에 근무하고 서울에 자리 잡은 노총각은 노처녀와 결혼하여 단칸방에나마 터를 잡지만 늘 생활에 허덕인다.(「내걸린 얼굴」) 전세방의 설움을 면하고 빛이 있을망정 셋방살이 11년 만에 집의 주인이 되기 위해 찾은 집은 고압선이 흐른다(「고압선」). 이들은 서울의 주변부를 배회할 뿐 이들에게 중심부와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조선작 자신 또한 ‘무작정 상경’한 청년으로서 서울의 외부자에서 내부자로 편입하면서 외부자의 시선과 내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주목한다. 특히 그는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의 서울의 삶에

---

158) 위의 글, 84-86면.

주목하면서 이들의 서울 편입이 서울의 가장자리에 겨우 매달려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조선작이 자신의 경험을 비롯하여 서울의 특정 장소에 대해 예리하게 관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조선작 소설에 그려진 장소에 주목함으로써, 그 장소들이 가진 장소성을 통해 서울 주변부의 삶의 의미화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작은 대표작인 「영자의 전성시대」뿐만 아니라 등단작인 「지사총」, 「모범작문」, 「성벽」 등에서도 창녀가 등장하는 소설을 써서, ‘창녀작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창녀와 사창가와 관련한 여러 소설을 창작하였다. 이때 인물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사창가나 독방촌 등 하층계급의 장소의 서사화이다. 조선작은 서울의 외부자로서 도심과 주변부를 그리되 미화하거나 감정이입하지 않는다.

등단작인 1971년의 「지사총」과 1973년 발표된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 소설의 배경인 사창가가 ‘청량리 588’이라는 점이다. 「지사총」에서는 지명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창녀인 창숙이 있는 곳이 종로일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종로일대는 이래로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는데 1966~1968년 동대문구 창신동 종삼 등 윤락가를 철폐하고 일명 나비작전을 통해 종삼에서는 윤락여성이 사라졌으며, 이들은 양동, 전농동, 미아리, 천호동 등 새로운 창녀촌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청량리 역 앞의 사창가인 전농2동이 매춘의 성시를 이루게 된다.<sup>159)</sup>

「지사총」과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장소의 변화는 인물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1974)는 등단작인 「지사총」의 연작소설의 형태로, 「지사총」에서 식모였던 영자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외팔이 창녀로 등장한다. 「지사총」에서 청계천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등장했던 ‘나’는 베트남전을 돌아와서 목욕탕 때밀이로 등장한다. ‘나’의 꿈은 재단사나 무교동 보타이가 되는 것이었지만 군대에 다녀온 후 상황은 더 나빠진 것이다. 영자의 경우는 더 가혹하다.

---

159) 오유석, 앞의 글, 109-111면.

영자는 가난한 시골 농삿집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농삿집이래야 밭 두 뼤기 뿐이어서 굶기를 밥먹듯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로 식모살이 온 것은 오로지 배불리 먹어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모살이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부엌일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밤을 견디는 일이라고 풀이했다. 『내가 철공장집에 있었을 때는 댁도 그러잖았어. 남의 가슴팍에 왜 손을 슬쩍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영자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이렇게 서두를 끄집어냈다. 사내들이란 뭐 어린애나 늙은이나 모두 주책이라고 말했다. 『아, 식모살이라면 지긋지긋 했어. 식모를 뭐 제집 요강단지로 아는지, 이놈도 올라타고 저놈도 올라타고 글썽 그러려들더라니까요. 하룻밤은 주인놈이 덤벼들면 다음 날은 꼭지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지랄발광이고……내 미쳐죽지 미쳐죽어……』 식모살이를 네 군데나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모두가 그 모양이었노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을 하숙치는 집에도 좀 살아봤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걸 뭐 더 악마구리 떼갈았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식모살이는 그만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 팔자소관이겠지, 기왕 이렇게 알몸뚱이로 벌어먹어야 할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곧바로 이리로 찾아왔지 미쳤다고 여차장은 뛰어들었느냐고 아주 탄식 어린 어조로 말했다. 여차장을 하다가 만원 버스에서 떨어져 마침 달려든 삼륜차 앞바퀴에 팔 한 짝을 바쳤노라고, 이제는 신경질도 안 부리고 줄줄 잘도 고백했다.<sup>160)</sup>

오직 배불리 먹기 위해서 ‘식모살이’를 했지만 남성들의 일상화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여차장이라는 직업은 영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이러한 영자의 몰락은 서울에 연고지 없는 상경한 여성에게 서울에서 안전한 장소의 존재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영자를 오랜만에 만난 ‘나’는 영자의 신체적 변화에 더해 영자의 성격의 변화에 충격을 받는다. ‘나’가 철공장에 있을 때 영자는 식모임에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언젠가 콧대 높은 영자를 범해보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창녀인 창숙을 찾아갈 수 있을 뿐이었다. 식모일망정 영자는 ‘나’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군대에 다녀온 동안 외팔이 된 영자는 나를 만나 거리낌 없이 옷을 벗고 신경질도 부리지 않

160)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66면.

고, ‘나’에게 다시 놀러오란 요구 또한 수치심 없이 한다.

한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자가 외팔이가 된 경위이다. 영자는 여차장 노릇을 하다가 삼륜차 앞바퀴에 팔을 잃는다.<sup>161)</sup> 연탄 배달 등 운송을 목적으로 했던 삼륜차는 1960년대 당시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버스와 자동차처럼 1970년대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다.

여기서 조선작의 영자가 실제 모델이 있었으며, 본래 4·19 시위 때 총상을 입은 여차장으로 나중에 창녀가 된 인물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테면 버스 차장을 하다가 한길에 떨어져 차에 치여 외팔이가 되고 창녀로 전락한 ‘영자’의 이야기도 작가의 체험에서 변형된 이야기였다. 그 무렵에 김승옥이 시나리오로 각색해서 「영자의 전성시대」를 영화화한다고 조선작과 어울려 다닐 적에 조선작이 내게 실토한 적이 있다. ‘영자’의 실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4·19 때 시위 군중이 차량을 탈취해서 돌아다녔는데 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총상을 입고 한쪽 팔을 잃은 여차장이 있었고, 그이는 신문의 부상자 명단에도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제대 후에 종로의 사창가 부근을 지나다가 정말로 외팔이 창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나중에 그녀가 바로 그 여차장이었음을 확인했다고. 그런데 ‘영자’가 차에서 승객들에 밀려 팔을 잃는 것으로 자제하고 이야깃감을 변용하는 어른스러움이 조선작의 장기인 것이다.<sup>162)</sup>

황석영은 조선작이 4·19를 전면화하지 않고 승객에 밀려 팔을 잃는 것으로 이야기를 변용한 것을 ‘자제’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민중·민족 문학을 지향했던 황석영의 시선에서는 ‘자제’일 수 있지만 서울을 생존의 장소로 파악했던 조선작에게는 한 생명이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신체를 잃는다는 것 또한 문

---

161) 1961년부터 기아는 삼륜차를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이때는 많은 양이 판매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7년 1월 기아마스터 T-2000은 출시되자마자 수요가 폭발하여 1967년 1,200대, 1968년에 2,602대, 1969년 4,138대가 팔려나가 1973년까지 모두 1만 5,922대가 판매된다. 손정목, 「자동차 사회가 되기까지」,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1』, 한울, 2005, 322면.

162) 황석영, 「청계천 다리 밑에 개떡 같은 집을 짓고」,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선 101-5』, 문학동네, 2015, 189-190면.



제적이었다. 조선작은 전쟁도 없고 시위도 없는 1970년대 초반 일상적 장소에서의 신체적 폭력이 가능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한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그려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울의 삶이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포착이다. 그 장소들은 도시의 화려한 외관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혹은 외면되는 장소이다. 조선작은 ‘창녀작가’라는 오명처럼 단지 창녀의 삶을 흥미롭게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서울은 외부에서 본다면 도시 개발로 인해 점점 발전해나가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서울의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내부의 속살은 분노의 냄새와 썩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조선작은 서울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며 중심/주변으로 위계화된 서울을 그려낸다.

도심의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분노의 냄새로 충만하여, 흘러가는 건지 고여 있는 건지 그들먹하게 차 있는 썩은 물 양쪽의 독방에는 판자집들이 마치 바위등의 굴껍데기들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같은 판자집들의 동네였지만, 건너편 독방촌은 묘한 곳이었다. 탕보는 건너편 독방동네를 선창가라고 불렀다. 어른들은 뭐 사창가라고 하더라만, 그 말보다는 선창가가 부르기도 좋고 알기도 쉽다. 어차피 배를 타러 가는 곳이니까. 탕보는 이렇게 말했었다. 밤이 이슬해져서 탕보는 특하면 담배를 꼬나물고 선창가로 진출했다.<sup>163)</sup>

「성벽」에서 ‘나’와 아버지, 누나는 독방동네의 판자집에서 아버지가 개를 훔치는 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이어간다. ‘나’는 절름발이로 국민학교를 5학년에 중퇴하고, 누나는 화장지 공장에 포장공으로 일하면서 화장지 공장의 여사무원이 되길 바라지만, 개도독질을 그만하고 잘살아보자는 호소에도 변함이 없자 가출해버린다. 아버지는 이후 중풍으로 쓰러지고 누나를 사창가에서 봤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가 누나를 찾아다니는 사이 아버지가 모래밭에서 시체로 발견되는데, 하필 그때 독방 동네에 갑작스런 공사가 시작된다. 청량리

---

163) 조선작, 「성벽」,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84면.

제천간의 전기철도가 완성되어 개통식에 “높은 어른”이 와서 그 눈에 띄지 않게 가리기 위해 양편의 독방에 ‘성벽’같은 담장을 친다는 것이었다.<sup>164)</sup>

1966년 이후 도심의 재개발 정책으로 판자촌은 1961년 당시 8만 4천동이었는데 1966년에 이를 13만 6천호에 이르는데, 이는 서울 전체 주택수인 36만 1천여 호의 34%를 넘는 수치였다고 한다.<sup>165)</sup> 이러한 빈민가의 풍경은 서울시민 대부분이 사실상 빈민에 가까웠던 1960년대 중반까지는 특별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지 않았다.<sup>166)</sup> 그런데 서울시가 60년대부터 실시되었던 불량주거지 해소정책은 도시미관의 증진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의거하여 철거되었다.<sup>167)</sup> 하지만 불과 십년도 안되어 판자촌은 가려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168)</sup>

이러한 서울의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는 조선작 소설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영자의 전성시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설 초반에 ‘나’는 청량리의 사창굴의 입구 앞 백화점 카바레에서 나오는 여자들에게 위화감을 느끼는 장면이 스치듯 나온다. 이 백화점은 1969년 준공허가를 받은 대왕코너로 짐작되는데,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 지어진 이 건물은 7층짜리 건물로 지하1층은 식품가, 지상 1, 2층은 백화점, 3층 음식점 다방 경마장, 극장 4층에 관리사무실 볼링장 타자학원 5층은 아파트와 입시학원 6층은 고고클럽과 호텔 당구장 7층에 카바레와 학원이 있었다.<sup>169)</sup>

---

164)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량리에서 제천간 중앙선 전철이 개통되어, 박대통령을 비롯하여 교통부장관, 오용운 철도청장, 내외귀빈과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통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청량리←→제천간 중앙선전철 개통」, 『매일경제』, 1973.6.20. 이를 통해 조선작의 서울의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의 서사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의 서사화라는 것의 방증이 된다.

165)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6권, 서울특별시, 1996, 2008면.

166) 송은영, 앞의 글, 47면.

167) 손세관,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269면.

168) 송은영은 김승옥의 「역사」에서 문학 텍스트가 빈민가를 건강성과 활력의 상징으로 재생해냈음을 보여준다고 평한다(송은영, 앞의 글, 47면). 이 또한 1960년대 서울과 1970년대의 서울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차이로 할 수 있다.

169) 손정목, 「서울의 3대 화재와 소방체제 정비」, 앞의 책, 77면.

이 백화점이 소설의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경찰들이 사창굴을 소탕시킨다며 일명 ‘불도저 작전’을 밀어붙이자 영자는 그곳을 탈출한다. 보름 뒤 그곳에서 불이 나는데, 영자가 맡겨둔 돈을 찾으러 갔다는 소리에 ‘나’는 영자를 찾으러 화재현장으로 간다.

나는 허둥지둥 화재현장으로 달려갔다. 판자집들에서 터져 나온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나는 구경군들을 헤치며 불길 앞으로 달려갔다. 소방차들의 소화작업도 길 건너편의 건물들에게 불길이 번지는 일을 막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었다. 물줄기는 불길쪽보다도 엉뚱하게 백화점이나 호텔의 벽을 후려때리며 식히고 있었다.<sup>170)</sup>

화재는 사창가가 있는 판자촌에 발생했는데 ‘나’는 소방차가 판자촌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이 나지도 않은 백화점과 호텔에 물줄기를 뿌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결국 영자는 다음날 불에 탄 시체로 발견이 되는데, ‘오팔팔 공화국’은 창녀들만의 공화국이었지, 국가는 이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조선작은 강북을 중심으로 주거와 직장 생활을 하는 인물군들의 배경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중심과 주변부의 위계질서가 공고해짐을 서울의 여러 장소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에서 종로, 청량리, 동대문, 중곡동 등의 하나의 장소에 주목함으로써 소설의 주제를 드러냈다면, 『미스양의 모험』은 전농동, 돈암동, 미아리, 영등포, 청진동, 소공동, 신촌, 원효로, 청량리, 제기동, 압구정동 등의 장소를 경험하는 상경 소녀를 통해 도심과 변두리 삶의 위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조선작의 초기단편소설이 문단에 주목을 받은 반면에 조선작의 첫 장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양의 모험』은 동시대 문단에서뿐만 아니라 후대 연구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단에서 요구한 민중성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볼 수

---

170)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앞의 책, 78면.

있다. 『미스양의 모험』은 1975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신문연재물이라는 것과 1978년 고교생물로 이름을 알린 김응천 감독에 의해 동명의 이름으로 영화 <미스양의 모험>이 “무작정 상경한 시골처녀가 겪는 수난의 서울 생활을 그린 멜러물”로 소개<sup>171)</sup>된 정황은 당대 문단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을 1989년에 재출간하는 자리에서 유신시대에 “70년대의 변동 사회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커다란 공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메웠다는 긍지를 갖고 있다는 말에서 드러나고 있듯이<sup>172)</sup>, 1970년대의 국가주도의 개발로 인한 도시화의 풍경과 도시 상경 청년의 모습을 재현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자본주의화된 대도시 서울에 올라온 상경민들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낯선 서울 풍경과 소비문화에 낯설어하지만, 이내 적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이 이들의 서울에서의 삶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 없는 이들은 최하층의 삶을 살거나 타락한다.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데 지방 사람들의 서울로의 상경이 여기에 큰 역할을 한다. 좀 더 나은 삶을 희구하는 사람들은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문학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73)</sup> 197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미스양의 모험』은 시골의 상경소녀가 가

171) 「미스양의 모험 영화화」, 『경향신문』, 1978.1.9, 6면.

172) 조선작은 이 소설에 대해 197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인간상실의 드라마를 의도했음을 말한 바 있다. 작가 스스로 “70년대의 변동 사회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커다란 공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 작품이 메워 놓았다”는 데 긍지를 느끼며, “더구나 긴급조치가 9호까지 발령된 유신시대의 소산으로 알게 모르게 제약도 많았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량 확대 일변도의 변동 사회와 그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인간 상실의 드라마를 포착하는 데 안간힘을 다했으며, 지금 돌이켜 보아도 큰 후회는 없다.”고 하여 작품에 대한 애정을 밝힌 바 있다. 조선작, 「작가의 말」, 『미스양의 모험』, 고려원, 1989.

173) 김문정, 앞의 글, 467-468면.

김문정의 논문에서는 1960년대에 연재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와 손창섭의 『길』을 『미스양의 모험』과 함께 다루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연재된 두 소설이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던 때의 한국사회의 변화상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었을 때 쓰여진 『미스양의 모험』은 인물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출하여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sup>174)</sup> 『미스양의 모험』은 시골소년소녀들의 대도시인 서울에 대한 환상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의 비극을 은자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도시로 향하게 되는 것은 “막연한 기대, 막연한 호기심, 막연한 희망, 막연한 가능성”<sup>175)</sup>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막연함을 가지고 부모 세대를 설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이리덱을 설득했다. 지금 세상은 옛날과 다르다. 이곳 저곳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회사가 수도 없이 늘어났다. 사람이 모자라서 야단이라더라. 조국 근대화가 뭔지 아느냐. 이런 것이 바로 근대화라는 것이다. 이런 때 훌륭한 노동력을 가지고 가만히 썩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최악이다. 서울에는 천지가 직업소개소라더라. 하다못해 식모나 스웨터 공장의 공녀 자리를 알선해주는 곳에서부터, 관광 안내원 경리 사원 타이피스트 등으로 가르쳐서 취직을 시켜주는 학원에다가, 기술만 좋으면 외국에 까지 취직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더라. 저만 똑똑히 굴면 취직은 물론이려니와 한 밀천 잡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 요즈음 젊은 아이들이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사람은 그저 너른 바닥에 가야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176)</sup>

은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부모를 설득하고자 하지만, 은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함은 ‘사실’이 아닌 ‘풍문’이다. 서울은 ‘~라더라’라고 하는 ‘풍문’은 서울이 기회와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곳이며 서울에만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근대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

---

차이가 좀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74) 『미스양의 모험』은 동아일보에 1975년 1월 1일부터 11월 29까지 연재(총 271회)되었다. 연재가 끝나자마자 예문관에서 출간되었다. 1978년 영화 <미스양의 모험>이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는 신성일과 정희와 출연하였고, 15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미스 양의 모험』 영화화, 『경향신문』, 1978.1.9.; 「외화 판치는 극장가에 이변」, 『경향신문』, 1978.7.18

175)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상』, 예문관, 1975, 67면.

176) 위의 책, 64면.

은 시골 소년소녀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였고, 서울로의 상경은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은자는 결국 ‘막연함’을 갖고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은자가 의지하는 것은 삼만 원이라는 거금과 펜팔하였던 남자들의 주소와 신문광고뿐이다. 펜팔로 만난 문대선이 만나자마자 은자가 혹시나 무작정 상경소녀가 아닐지 우려하며, 서울이 살벌한 곳이라고 경고한 것을 본다면 은자가 서울로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자의 가출이 역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풍문’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그녀 나름대로의 만반한 준비를 하고 도착한 서울에서 은자는 “어리둥절한 느낌”을 받고 “미아”가 될 고비를 넘긴다.<sup>177)</sup> 은자는 ‘풍문’으로 들은 도시의 소통방법인 공중전화를 연습을 했음에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애를 먹게 된다.<sup>178)</sup> 겨우 전화 연결이 되어 만난 펜팔상대였던 서울 사람인 문대선은 서울이 “생존경쟁이 살벌한”<sup>179)</sup> 곳이며, “취직은 고사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기도 어려운 곳이 서울”<sup>180)</sup>이라고 ‘무작정 상경소녀’의 서울 생존이 쉽지 않음을 경고한다.<sup>181)</sup> ‘풍문’으로만 듣던 서울의 외부자인 은자는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은자의 모험은 모험이 아닌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

전농동에는 젓돈을 가지고 도망간 언니의 빈집만 있을 뿐이며, 오히려 돈을 잃고, 펜팔을 통해 만난 문대선은 가짜 신학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은자를

177) 위의 책, 104면.

178) “그러나 그의 통화 순서도 유별난 점은 없었다. 오원짜리 동전을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리는 등 일련의 동작은 은자가 방금 전에 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방 통화를 성공시켰다. 기계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은자는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다. 이 말 못하는 기계가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을 그렇게 쉽게 알아보는가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위의 책, 107면.

179) 위의 책, 122면.

180) 위의 책, 123면.

181) “혹시 미스양도 무작정 상경한 시골 소녀가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살벌하고 악착스런 도시는 그런 시골 소녀들의 꿈이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만한 곳이 애당초 아니거든요. 미스양은 확실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보십시오. 이 식당의 종업원 소녀들도 대개는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 올라온 여자들일 겁니다.” 위의 책, 122면.

겁탈 하려고 한다. 은자가 가짜인 것처럼, 남성들도 편지에서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는 펜팔 상대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들고 상경하였다. 편지대로라면 그들은 시장조합 경리사원, 중장비 운전사, 태권도 사범으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기에, 은자는 이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홀로 상경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sup>182)</sup>

하지만 은자의 이런 기대는 펜팔 중 가장 정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정교사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 문대선을 만나면서부터 무너진다. 신학대학생이라고 했던 문대선은 신학대학생이 아니라 재수생임이 드러나며, 은자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한다. 실로 남성들에게 은자는 성적 대상에 불과했으며, 소녀에게 있어서 연고 없는 도시 서울로의 상경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은자는 직업소개소에서 낸 신문광고를 수집하면서 서울에 상경만 하면 타자학원이나 경리학원을 다니거나 월수 이십만원을 보장한다는 직장에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하지만 월수 이십만원을 보장한다는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은자는 다른 상경소녀들이 그렇듯이 여급에서 윤락여성의 길을 가게 된다.<sup>183)</sup>

이렇듯 은자의 서울에서의 생존은 펜팔로 만난 남성과 신문광고에 의해 연명된다. 시골 소녀 은자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란 펜팔로 맺어진 남성들과의 인연과 서울에서의 생활을 위한 신문광고였다. 이것은 결국 대중 사회에서 근대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였던 것이다.<sup>184)</sup> 시골에서 막연히 꿈꿨던 서울에서의 삶은 실제 서울의 장소들

---

182) “아뭇튼 이들 모두가 양은자 양에게 사랑을 구걸해 왔던 펜팔 상대자였으며, 그래서 그녀가 수첩을 펼쳐 들었을 때는 마치 무적함대처럼 모든 것에 자신 만만한 느낌이었다.” 위의 책, 103면.

183) 신문의 구인광고 또한 1970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데, 이러한 광고는 가출 청소년들을 악의 소굴로 빠뜨리는 등 피해를 양산하였다고 한다. 오창은, 「1970년대 서울 공간 경험과 근대적 주체의 구성-조선작의 미스양의 모험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3, 중앙어문학회, 2013, 406-407면.

을 경험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서울에서 문대선, 길병수 등의 남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환상이 말그대로 환상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꿈꾸던 타이피스트나 여비서가 아닌 여급, 다방레지, 식모, 호스티스, 윤락 여성의 삶을 살게 된다.

은자보다 앞서 상경한 경혜가 양말공장을 다니다가 비어홀로 빠진 것이 “무작정 상경 소녀가 걷는 직통 코오스”<sup>185)</sup>라고 명명되고, 양말 공장에 다니는 속회는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선망하고 있다. 은자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은자는 ‘신문광고’를 보고 골프장 캐디학원, 타이피스학원에 전화를 해보지만, 사실은 “수상한 곳”을 은연중에 욕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곳을 욕망하면서도 “그런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굳혔던 것이다.”<sup>186)</sup>라고 은자가 다짐했듯이, 이미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념’까지 가져야 하는 곳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결국 은자의 역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은자는 도시의 거대한 욕망에 삼켜지고 만다.

『미스양의 모험』의 전반부가 은자가 상경한 후, 풍문으로서의 서울과 다른 도시를 보여주고, 도시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면, 후반부는 은자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보여준다. 각 장의 제목인 ‘후조(철새)’, ‘미로’, ‘표류’, ‘난파’는 이러한 은자의 삶을 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은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난파’한 ‘안락한 곳’은 결국 사창가이다. 멋모르고 미스천을 따라온 은자는 처음에는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곳의 여자들에게 “묘한 안도감”<sup>187)</sup>을 느끼고 자의반 타의반 그곳의 빈방에

---

184) 위의 글, 408면. 오창은은 이 소설에서 ‘펜팔’과 ‘신문광고’가 대중문화에 대한 중요한 메타포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는 펜팔과 신문광고의 ‘기만적 속성’과 ‘환상적 이미지의 대량 생산’이 대중문화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신분상승이나 풍요로운 소비를 자신의 과제로 설정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185) 조선작, 앞의 책, 166면.

186) 위의 책, 173면.

187)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하』, 예문관, 1975, 245면.



‘수용’된다.

곧 밤이 되었고, 은자는 아래층의 빈 방 하나에 수용되었다. 그렇다. 그것은 수용되었다는 말밖에 달리 들러댈 표현은 없다. 전란(戰亂)이나 화재(火災) 또는 홍수(洪水) 따위로 재산을 잃고 몸을 상처 당했으며, 거처(居處)를 빼앗긴 사람들을 흔히 난민(難民)이라고 부른다. 난민은 수용되기 마련이다. 적십자의 활동이나 박애주의자들, 또는 그런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유개 천막이나 학교의 교사, 병동 따위가 일시에 수용소로 변하고 그들은 그곳에 수용되는 것이다.

양은자 양이 수용된 것도 사실은 이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다만 양은자 양의 경우는 전란이나 화재 또는 홍수 따위의 유형(有形)의 직접적인 원인만 배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무릇 모든 수용된 난민에게는 그들이 당한 재난이 있게 마련이며, 양은자 양을 한 명의 난민으로 이해하려는 이상 그녀의 재난이 무엇인가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88)</sup>

서울에 올라온 지 2년만에 은자는 사창가에 ‘수용’된다. 전란이나 화재, 홍수 등 유형의 재난에 의해 거처가 없어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수용소’라면, 양은자의 경우 보이지 않는 재난에 의해 ‘사창가’에 수용된다. 그것을 조선작은 ‘근대화라는 돌풍’이라고 진단한다.

그것은 이른바 근대화라고 이름 부르는 돌풍이 아닐까? 여기저기 공장들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뒤바뀌며, 하루에서 수백 대씩의 번쩍번쩍한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전철과 지하철이 개통되었는가 하면 어느새 또 하늘로 길이 높이고 삼십 몇 층짜리 고층건물이 세워졌는가 하면 고궁이 길이 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논에 맥주 공장이 들어서고, 야산이 목초지로 뒤바뀌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몰고 온 돌풍이다. 확실히 깨닫기도 전에 사람들은 입을 헤벌리고 이런 돌풍에 몸을 맡긴다. 양은자 양은 바로 그렇게 해서 조난당한 한 명의 난민이 아닐까. 돌풍의 와중에서 마침내는 형체도 없이 난파해 버린 하나의 작은 목선처럼.

---

188) 위의 책, 246면.

대도회는 하루하루가 달라진다. 어제 길이었던 곳이 오늘은 길이 아니며, 어제는 별판이었던 곳이 오늘은 단지로 뒤바뀌고, 어제는 음식점이었던 곳이 오늘은 백화점이고, 어제 버스를 내리고 탔던 정류장이 오늘은 팻말이 없어져 버렸으며, 어제는 무슨무슨 회사라고 간판이 붙어 있던 사무실에서 오늘은 느닷없이 고고 리듬이 흘러 나온다. 도무지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다. 이런 대도회의 음습한 곳에는 오늘 차렸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날아 버리는 금융 회사도 생기고 전화 한 대만 가지고 장사하는 유령 직업소개소도 무수히 생겨나며, 돌풍에 몸을 맡기고 떠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며 이리 달고 저리 뒀다.<sup>189)</sup>

은자가 서울에 대한 ‘풍문’을 듣고 이리ذاك 설득할 때 서울은 ‘조국 근대화’로 인하여 배움을 통해 취직이 가능한 출세가 보장된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연고가 없거나 혹은 불확실한 “가출한 청소년”<sup>190)</sup>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았던 ‘조국 근대화’는 ‘돌풍’이었음을 은자로 대변되는 수많은 ‘미스 양’이 여실히 보여준다.

근대화로 인하여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생기고 빌딩이 세워지고, 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변화 속에서 도시인들은 돌풍에 몸을 맡긴 채 생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돌풍 속에서 가진 것이 자신의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상경 청소년이 난파하는 순간, 그는 바로 “난민”으로 전락한다. 전란 이후의 ‘피난민’들은 전쟁이 아닌 근대화로 인하여 “난민”이 되는 것이다. 국가주도의 개발이데올로기로 급속하게 근대화된 도시에서 그들은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로서 존재한다.<sup>191)</sup> 그리고 ‘미스양’들이 “난민”이 되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이 도시에서도 배설구에 다른 아닌 곳이기 때문이다.

이 대도회의 행정을 통할하는 관청의 석조 건물이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한 거리에 있고, 뽕 둘러 최신식 철골조 또는 콘크리트 레미콘의 고층 건물들

189) 위의 책, 246-247면.

190) 위의 책, 247면.

191)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3, 45면. 오창은은 『미스양의 모험』 분석에 아감벤을 활용하여 도시 자체가 수용소가 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으며, 김문정의 경우 매춘 지구 자체를 ‘수용소’로 파악하고 있다. (오창은, 앞의 글, 416면; 김문정, 앞의 글, 490-491면.)

이 혹은 상사(商事) 사무실로 혹은 관광호텔의 방들로 혹은 아케이드의 점포들로 뻗뻗이 채워져 있으며, 도시 근대화의 상징인 지하철의 입구가 인도에서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고, 또 우연찮게도 그곳에는 고궁의 숲도 고성(古城)의 대문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일테면 이런 대도회의 심장부 뒷그늘에 마치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듯 그런 음습한 고장이 끼어 있는 것이다. 점심 시각이면 주변의 고층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샐러리맨들이 마치 우동 한 그릇으로 허겁지겁 점심을 때우듯 이 음습한 고장에 들러 잠깐만에 용무를 때우는 사람도 많다는 소문이고 보면, 이곳은 어쩌면 도시의 편리한 배설기관일는지도 모른다.<sup>192)</sup>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대도시 서울의 심장부로 지칭되는 종로는 고층건물과 지하철과 고궁이 어우러진 대도시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한 발자국 내딛으면 있는 뒷골목에는 ‘종삼’이라는 “배설기관”이 있는 곳이다.<sup>193)</sup> 그리고 상경소녀들은 ‘풍문’으로 들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 ‘모험’을 감행하지만 그것은 ‘모험’이 아닌 상경소녀들이 도시에서 전략하는 ‘코스’에 불과했음이 소설 말미에서 밝혀진다.

소설은 양은자를 중심으로 주로 여성 상경민들의 창녀로의 몰락서사를 보여 주지만, 도시의 남성들을 통해 부박한 도시적 삶의 모습 또한 고발하고 있다. 양은자가 펜팔로 알게 된 남성들은 은자가 서울에서 가족과 친구 외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펜팔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은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려져 은자를 매혹시킨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실상은 환상 속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불일치한다. 은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만난 문대선은 신학생이라고 했지만 재수생이었으며, 가수를 꿈꾸는 길병수는 걸멋만 들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인물이다. 동부시장 경리사무원이며 신혼의 보금자리로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이철우는 의젓한 직업과

---

192) 위의 책, 208면.

193) ‘종삼’은 유곽, 기지촌이 아닌 서울의 중심에 생겨난 “희한한 존재”로 규모도 크고 번창하였다. 직장이 종로, 중구 등에 있었고, 술집도 무교동, 명동, 낙원동 등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술집과의 거리 상,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는 곳이 종삼이었다고 한다.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앞의 책, 189-191면.

멀쩡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이미 약혼녀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은자에게 구애를 펼친다. 결국 이철우는 약혼녀와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약혼녀를 살해하고 은자에게 돌아온다. 은자는 이철우에게 자수를 권하지만 실패하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의 방을 버리고 떠나오고, 이철우 또한 자살한다. 서울의 삶은 평안함이나 성공이 불가능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향에서 은자에 마음이 있었던 나기수와 은자는 5년 후 택시에서 조우하지만 서울에 온 그들은 “비참하게 나이가 들어”<sup>194)</sup>버린 후였다. 택시 운전사가 된 나기수는 천오백원의 납입금을 내고도 적자에 일동도 없는 “참혹한 상태”로 “하급 도시 노동자의 맥빠진 얼굴”<sup>195)</sup>로 서울에서 살아간다. 냉혹하고 무감한 도시의 삶 속에서 이들의 사랑은 애초에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남자들도 그렇다. 그들이 은자에게 띄웠던 편지들의 아련하고 달콤했던 속삭임들 역시 한결같이 간교한 허구에 불과했다. 문대선의 편지들 속에 점철되어 있던 저 엄숙하며 건실했던 종교적인 분위기는 그의 대단히 기형적으로 짧았던 키의 호도(糊塗)에 불과했고, 길병수의 「지금은 비록 한 서어비스 공장의 세차요원에 불과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일류 가수로 출세를 할 것이다. 일찌감치 나 같은 유망 청년에게 프로포우즈를 해 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라고 기고만장했던 편지는 그의 동물적인 욕망이 던진 미끼에 지나지 않았다.

신혼의 보금자리로 이미 이십 몇 평 형의 아파트 하나를 사 놓았으며,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든 서울 여자들에게는 진력이 나서 펜팔 난을 보고 즉시 미스 양에게 편지를 띄웠노라는 이철우는 그동안에 벌써 약혼녀를 한 명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당초 미스 양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바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다. 낙도에서 홀연히 은자의 집까지 찾아왔던 방태우 선생도 낙도의 그 쓸쓸함만 아니었더라면 그런 우매하고 귀찮은 일에 매달리지는 않았으리라. 그러고 보면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가 자기 사정의 어떤 다른 표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sup>196)</sup>

---

194)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하』, 앞의 책, 275면.

195) 위의 책, 286면.

소설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이 미스양의 세상살이가 과연 흥미진진하고 뻔적지근한 모험(冒険)이 될는지”<sup>197)</sup>라며 시작하고 있는데, 은자의 가출은 ‘모험’이지만 결국은 그 당시 상경소녀들이 겪는 상투적인 길을 걷는다. 시골에서 상경한 ‘양은자양’은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 끝에 개별성을 상실하고 ‘미스양’이라는 익명적 존재가 된다. 이처럼 사회가 경제발전의 이념에 지배당하던 1970년대에 양은자의 서사는 그간 대중소설이라는 장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통속적인 요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sup>198)</sup> 이 소설에서 조선작은 ‘재미’를 통해 흥미를 끄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그려냄으로써 근대화되고 도시화된 서울에서 상경민의 몰락을 여실히 폭로 한다.

이처럼 ‘무작정 상경’한 이들은 풍문으로 듣던 ‘서울’과 실제 경험한 삶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생존을 지속한다. 서울에서의 생존과 안정적인 삶이 정당한 방법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말괄량이 도시』와 『장대높이뛰기선수의 고독』에서처럼 결혼상담소를 매개로 자신보다 부유한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여 계층이동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결혼상담소는 이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에 불과하였으며, 중매혼을 통한 안정적인 서울에서의 삶 또한 환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서울의 중심과 주변부의 위계화를 서울(강북)의 장소성을 통해 드러내어 생존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삶의 양상은 완전한 사랑에 이르러 서울의 위성도시에 대한 인식까지 확대된다. 『완전한 사랑』의 경우, 광고대행사의 부장이며 노총각인 ‘나’는 조사부요원인 문성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 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중산층의 문화적 소비를 일상적으로 하는 ‘나’는 문성애가 자신의 아파트 소재지이기도 한 휘경동에 살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일 거라 짐작하지만, 그녀의 집이 바라크 형태의 집임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문성애는 그곳에서도 밀려나 서울 밖인 경기도의 교문리에 거

---

196) 위의 책, 130면.

197)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상』, 앞의 책, 17면.

198) 김성환,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앞의 글, 76면.

주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나’는 문성애와의 장래가 비관적일 거라 단정한다. 즉 도시계획에 따른 구획정리를 통해 도시의 위계가 잡힌 1970년대 후반이 지나, 인물이 살고 있는 거주의 장소를 통해 그 인물의 계층과 생활수준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고 있다. 그는 문성애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하지만, 자신과 계층이 다른 문성애와의 결혼으로 자신의 계층적 지위와 삶의 질을 하락할 것을 무의식중에 경계한다. 서울의 외부자에게 있어 어렵사리 획득한 서울에서의 삶은 진정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성애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운전수와의 결혼으로 서울에서의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의 중심과 주변의 위계뿐만 아니라, 서울과 교외지역의 위계 또한 공고화되어 감을 조선작의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2. 주변인의 자조와 정서적 공동체

조선작은 서울 주변부의 하층민과 창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는 ‘호스티스 문학’이라는 비난의 시선 속에서도 ‘창녀’들의 삶을 소설화한다. 등단작인 「지사총」, 「영자의 전성시대」, 「성벽」, 「모범작문」은 빈민가와 창녀들을 그려냄으로써 변두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들은 민중이나 민족이라는 담론의 차원에서 포획되지 않는데 이것은 농민이나 노동자를 이상화하거나 계몽의 대상으로 본 당대의 소설들과 차이를 지닌다.

감성의 사회학을 주장한 마페졸리는 도시가 도시계획, 도시공학 등 정량적인 통계수치로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획일적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보통의 삶을 영위하는 평범한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페졸리는 일상과 세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낳게 되며 함께 모여 살고자 하는 사회성인 ‘릴라이언스(reliance)’ 즉 감성적 연대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것은 이념지향적 연대감과 다른 “타인에게 다가섬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는 태도”이다.<sup>199)</sup>

조선작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웅화된 민중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등장하며, 때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한심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인으로 제시되거나 계몽이나 계도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sup>200)</sup> 조선작은 창녀나 다방 레지, 때밀이,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을 계몽하고나 계도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생존의 장소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자신의 상황이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 자조를 하는 한편,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인다.

70년대 지식인들은 자본에서 소외되었지만 현실순응을 거부하고 인간된 삶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민중을 구상하며 순결하며 도덕적인 노동자 계층으로 민중을 상상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의 주체로 호명한 국민의 반대편으로서의 민중은 지식인들에 의해 단일화되고 오히려 내적 발화를 봉쇄당하게 된다.<sup>201)</sup> 조선작의 소설에 주목했던 당대 지식인들은 그의 소설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형상화를 고평하거나 그의 소설에서 민중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선작은 이렇게 상상되거나 이상화된 민중을 그려내는 대신 서울의 주변부의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다.<sup>202)</sup>

---

199) 김동윤, 「포스트모던 시대의 일상성과 사회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미셸 마페졸리의 이론을 중심으로」, 『에피스테메』,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2007, 75면.

200) “르페브르는 소외를 극복하는 역사적 주체로 민중을 본 반면, 마페졸리는 모든 인간에는 근본적 모호성이 존재하므로 사람들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마페졸리가 보기에 민중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해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될 소외 속에서 ‘틈새의’(interstitielle) 자유를 즐길 줄 안다. 그가 보는 대중은 계몽과 해방의 대상이 아니라 술책, 처세, 수완을 가지고 생의 주기를 거치면서 체화된 지혜를 획득한다.” 신지은, 「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44(2), 2010, 6-7면.

201) 김경연, 「70년대를 응시하는 불경한 텍스트를 재독하다-조선작 소설 다시 읽기」, 앞의 글, 283면.

202) 김경연은 이를 미결정적이고 가변적인 ‘대중’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조선작이 발견한 그들은 김병익의 지적처럼 회의하고 방황하는 지식인들도 아니며 민족이나 민중을 위해 증언하고 행동하는 저항자들도 아니다. 순응과 저항 사이, 국민과 민중 사이, 국민교육현장과 구호 사이, 그 틈새에서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는 자들, 미결정적이고 가변적인 존재들 바로 ‘대중들’이다.” 위의 글, 281면. 조선작의 인물들에게서 지식인이나 민족, 민중이 아닌 잉여로서의 존재를 제시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중’이라는 말로 명명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인

조선작이 주로 그려내고 있는 인물들은 서울 주변부의 삶이다. 등단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당시의 참여/순수 문학이라는 이분법으로 포획되지 않는 서울의 하층민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지사총」에서 ‘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로 고아원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와 청계천에서 구걸을 하다가 현재는 철공소에서 용접공을 하고 있다. 부모가 없는 ‘나’는 추석명절에 창녀 창숙을 만날 생각을 하는데, 뜻밖에 창숙으로부터 ‘지사총’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는다.

서울에서 최하층의 인생을 살아가는 창숙과 ‘나’의 부모들은 ‘지사총제’는 국가주도의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 의해 희생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서울의 저변층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그려내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영버스를 여러 대를 운영하여 대전까지 내려갈 정도로 규모가 크고 국무총리와 서울특별시장까지 와서 연설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민족의 대명절의 하나인 추서에 개최된 이 행사에서 국무총리와 서울특별시장은 자신들의 일이 끝나자마자 올라갈 뿐이고, 지사총의 유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더 실감있게 다가온다.

용접공이나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이 두 남녀의 도시의 세속적 삶과 지사의 자식이라는 성(聖)의 세계의 뒤섞임은 “영식과 창숙이 국민의 바람직한 표상으로 추대되는 지사의 아들, 딸이라는 아이러니는 산 자를 유명화하고, 죽은 자를 삶 속에 배치하는 권력의 모순을 냉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3)</sup> 하지만 이 소설은 허례허식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전면화하기보다는 창숙과 영식의 서울에서의 삶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들의 부모가 전쟁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과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이 ‘셋방’을 마련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사총」의 속편격인 「영자의 전성시대」에서도 창녀를 통해 도시 한 가운데

---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03) 배경열, 「조선작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창녀서사와 서사전략 고찰」, 『인문학연구』 4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251면.



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 병든 현실의 제도적인 형상”<sup>204)</sup>이 드러나고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나’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까지 받았지만 국가는 그에게 취직자리를 보장해주지는 않고 ‘때밀이’로 겨우 일한다. 그 사이 한때 ‘나’가 마음에 두었던 철공소집 식모 영자는 우여곡절 끝에 청량리 집창촌에서 만난다. 서울에서 식모, 식당, 버스 차장까지 전전하다가 팔 한쪽을 잃고 창녀가 된 영자는 ‘나’와 살림을 차릴 꿈을 꾸지만 그 꿈 또한 무너진다.

조선작은 도시의 주변부에서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은 서울의 하층민들을 그려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족의 영웅이나 이상화한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모자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이면에는 자조와 동질감이 드리워져 있다.<sup>205)</sup>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작가는 비판의 시선이나 계몽의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러한 주변인들의 자조와 동질감이 부각된다.

일단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모자란 인물로 형상화된다. 「성벽」의 어린 화자는 병을 앓아 다리를 절며, 그 다리로 사층의 교실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지겨워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지만 속내는 담임의 회비 재촉 때문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성숙하거나 모범적인 아이로 그려지기는커녕 아버지의 돈을 훔치거나 어른들을 속이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한다.

그럴 때면 나는, 나두 빨리 뽕땅을 뜯어 부시기를 피워 물고 선창가로 진출하여 그곳을 졸업하고, 그 어마어마한 부둣가로 진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솟아났다. 탕보는 항상 저처럼 여드름이 풍년이 들지 않고는 그런 데는 얼씬도 할 수가 없다고 억눌렀는데 니기미, 그게 전염병이라면 어디 가 돈주고서라도 율아오고 싶을 정도였다. 이런 생각들에 빠져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면 나는 아버지 생각 같은 것은 그만 까맣게 잊어먹기 일쑤였다.<sup>206)</sup>

---

204) 위의 글, 249면.

205) 박수현은 조선작 소설에 나타난 자조와 자학을 논구하면서, 이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 박수현, 「자학과 죄책감」,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모범작문」의 화자 또한 어리숙하게 그려지고 있다. 색주가에 사는 나에게는 몸이 성치 않고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와 술과 노래를 좋아하는 포주인 엄마가 있다. 이들 또한 타락한 세계에서 도덕에 무감한 인물들이다. 「지사총」의 용접공인 영식, 「영자의 전성시대」의 때밀이인 창식은 창녀촌을 들락거리거나 극장에서 새치기를 일삼는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후 「저질들의 세상」, 「여자줍기」 등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자줍기」나 「저질들의 세상」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이상적이거나 건전한 청년들과 거리가 멀다. 「저질들의 세상」에서 재수, 삼수생인 이들은 고스톱이나 치면서 스스로를 ‘저질’이며 ‘한심한 청년들’이라고 자학한다.

우리들은 그저 똑같이 만 스무 살씩 먹은 열등생이며 징집 대기자들에 불과했다. 신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작정 하숙자들이며, 주민등록증에도 오르지 않은 서울특별시민이며 이 서울 바닥에서 팬스레 한달에도 기만원씩 까부수며 빌빌거리고 있는 불량청년들이었다.<sup>207)</sup>

대학이라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하숙생인 이들이 자본주의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형편에 관한한 대단한 악순환”(276면)을 겪는다.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이 하는 생각이라고는 “악질적이고 범법적이며 반사회적인”(282면) 돈벌이들이며 결국에는 재일교포 행세를 하여 여자를 꼬시는 주간지에서 나올 법한 일을 꾸미지만 실패한다. 하류 인생들의 이러한 비열하고 속물적인 모습들은 타락한 세계의 타락한 인물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순간 내면적인 도덕성을 발휘를 한다. 즉 그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자조함과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물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로해준다. 이러한 태도는 마페졸리가 주장

---

206) 조선작, 「성벽」, 앞의 책, 106면.

207) 조선작, 「저질들의 세상」, 『고독한 청년』, 열화당, 1977, 275면.

한 정서적 공동체<sup>208)</sup>로서의 특징을 보이며, 감성적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 주변부에서 겨우 매달려 사는 이 인물들은 건달이거나 타락한 인물로 보일 수 있는데, 조선작은 이들을 견고한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타락한 도시에서 최소한의 윤리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들이 절도를 하거나 성을 파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에 기반한다기보다는 도시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작은 후에 이러한 자신의 창작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뤼시앙 골드만의 표현을 빌면 소설이란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 말 중에서도 나는 특히 <타락한 방법>이라는 표현에 매력을 느낀다. 어쩌면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소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 될 것이다. 흔히 완고한 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 기휘되는 이 <타락한 방법> 이야말로 소설의 이념이나 종교, 가치 지향적인 다른 모든 문화 현상과 구별하며, 도리어 그것들의 굳은 살에 바늘을 꽂아가면서 보다 유연하게 <진정한 가치>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글썄,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고독』이 과연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것의 구실을 훌륭히 수행했는가는 매우 의심스런 노릇이다. 읽는 분들의 질책을 바란다.<sup>209)</sup>

이 후기가 실린 『장대높이뛰기선수의 고독』에는 도시에서 취직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결혼상담소를 통해 돈 많은 재혼녀와 결혼하여 신분을 높이려던 청년이 등장한다. 이 청년은 결혼상담소에서 사기를 당하고, 결국에는 직업적인 맞선남이 된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을 파는 일로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맞는다. 이 인물은 처음 맞선을 가서 맞선녀가 자신이 바라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추장스런 도덕이라는 훈장이 그리 대수로울 것은 없는 것”<sup>210)</sup>이라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해버린다. 하지만 현

208) 미셸 마페졸리 외, 박재환 외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1994, 52면.

209) 조선작, 「후기」, 『장대높이뛰기선수의 고독』, 삼조사, 1980, 406면.

210) 위의 책, 84면.

수경을 다시 만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현수경의 삶에 개입하게 된다. 작가는 1977년의 『말괄량이 도시』를 개작하면서 인물들의 타락상과 낭만적 사랑의 추구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을 그려내면서도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지는 않는다.

『말괄량이 도시』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남자주인공은 도망을 가려다가 친구에게 면접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여 어렵게 돈을 빌리며 현수경에게 사랑의 감정까지 느끼는 것으로 그려진다. 『말괄량이 도시』에서 광명호는 돈 많은 재혼녀와의 결혼을 꿈꾸면서도 결혼상담소에 간다는 것 자체 또한 멋쩍게 생각한다. 그는 식비에 대해 계산적으로 반응하고, 현수경이 자신이 꿈꾸던 맞선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비용을 계산한다. 자신과 같은 ‘한심한’ 처지의 현수경을 동정하면서도 그녀와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에는 그녀를 사랑해버리는 순애보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현수경과 광명호는 자신들을 각각 “한심한 여자”, “한심한 남자”라고 명명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연민의 끈을 놓지 못한다.

막말로 하자면 그녀는 어쩌면 그의 팔자를 구자로 뒤바꿔 줄 수도 있는 돈 많은 미망인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와 비슷한 처지의 무작정 여관투숙자요, 어떻게 돈많은 홀아비라도 한 명 만나 팔자를 고쳐볼까도 생각하고 있는 한심한 여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211)</sup>

여기에 한술 더 떠 현수경은 여관생활을 하며 포주나 다름없던 전남편에게 쫓기는 처지에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속인 진여사를 연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명호는 자신과 같이 맞선녀를 찾아온 세탁공에게 ‘한심한 놈팡이’로서의 동질감과 자조감을 보이고 있다.

오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상담소로 장가들어 볼까하여 찾아온 한심한 놈팡이들 아닙니까. 자 가십시오. 우리 둘이서 한 대포씩 품시다.<sup>212)</sup>

---

211) 조선작, 『말괄량이 도시』, 서음출판사, 1977, 114면.

하숙생인 자신보다 더 밑바닥의 삶을 사는 현수경과의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은 결국 현수경의 전남편 살인으로 인한 도망자의 신세로 귀착한다. 광명호는 공사판의 막노동꾼이 되어 현수경에 대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경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냐? 서울이라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구든 처음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 그렇잖아? 서울의 모든 것을, 노선버스들의 행선지나 종점을, 구석구석의 골목길을, 늘어서 있는 건물들의 내부를, 회사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정부 또는 재벌들의 존재방식, 시장의 구조나 심지어는 하수도의 열개까지도 알고 싶단 말야.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겨우 허울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야. 그래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공연히 지치고 피곤해지기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 왜 우리가 최사장을 죽였는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도 우리는 왜 잡히지도 않는지, 그것조차도 난 모르는 거 아냐? 그리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고향의 산 밑에 과수원이나 일구고 살겠다는 뱃심이거든. 또 말야, 엽전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난 도무지 그 정체를 모르겠어. 이게 왜 내 손에 들어와 나를 일약 졸부로 만드는가 하는 점 말야. 서울은 정말 모를 것 투성이야. 그래서 오히려 지긋지긋한 것이지.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강적이야. 아니 이유 없이 뛰는 망아지야. 말괄량이 처녀애라구.<sup>213)</sup>

광명호는 근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된 도시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도시에서의 피로감에 대해서 호소한다. 돈 많은 재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현수경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결국은 동질감으로 시작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수경에게 느꼈음을 시인한다. 그는 더 이상 서울 중심부로 진입하여 성공하는 삶을 욕구하기보다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자인 수경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작 소설에서 그려지는 생존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삶은 도시의 부정적인 속성과 인물들의 부도덕성과 타락으로만 수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212) 위의 책, 136면.

213) 위의 책, 264면.

고 삶을 지속하는 공간으로서 그려진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하여 자조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내면적인 도덕성을 발휘함으로써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4. 계몽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중산층의 윤리의식의 세계: 조해일의 경우

### 4.1. 아파트와 문화적 소비생활의 양상

조해일은 1970년 등단하여 주로 단편소설을 창작하다가 1975년 『겨울여자』 연재 이후 신문연재소설을 주로 창작한다. 단편소설에서 예리한 사회비판의식을 보여주었던 조해일은 장편소설에서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생활세계와 하층민의 거주 장소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두 계층의 만남을 소설에서 주선한다. 즉 전자가 후자의 삶을 목도함으로써 서울의 변두리의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렐프는 감정이입적 내부성이 장소의 의미에 마음을 열고, 느끼고 장소의 상징을 알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요구한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장소에 대한 관심이 외관의 특성에서 감성적이고 감정이입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곳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이다.<sup>214)</sup>

조해일은 어렸을 적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변화를 목격한 서울의 내부자로서 서울의 옛 과거를 추억의 장소로 삼는 한편, 현재의 도시개발과 자본주의화로 잊혀져가는 서울의 변두리를 신문연재소설에서 소환한다. 조해일의 신문연재소설에서는 중산층의 장소경험과 하층민의 장소에 대한 경험이 드러나는데, 초반에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문화적 소비생활이 제시되고, 이후에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의 목도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해일은 서울의 내부자로서 서울의 변화에 감정이입하는 한편, 소설에서 중산층 인물들이 노동자나 빈민의 장소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소설로 그려내고 있다.

조해일은 김현 등 당대 비평가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설집 『아

---

21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26면.

메리카』를 내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인기작가’가 된다.<sup>215)</sup> 이 소설집에 주로 실린 초기 단편들은 사회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는 한편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짙다.<sup>216)</sup> 신문연재소설인 『겨울여자』의 대중적인 성공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대중성과 초기소설의 문학성으로 대별되고는 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조해일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단편소설에 대한 논의<sup>217)</sup>와 『겨울여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왔다. 특히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중소설적 측면에서 분석하거나<sup>218)</sup> 연애나 여성 표상에 대한 연구<sup>219)</sup>, 매체 간의 연구<sup>220)</sup>라는 한정된 주제와 방향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이화진은 『겨울여자』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지붕위의 남자』(1977), 『갈 수 없는 나라』(1978)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에서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는

215) 조해일, 「<아메리카>를 내던 무렵」, 앞의 글, 1978.

216) 박수현, 「조해일의 소설과 도덕주의」, 앞의 글.

217) 김원규, 「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 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오태호,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박수현, 「조해일 소설의 단편소설 연구: 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포함하여」, 『한국현대소설연구』 5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박수현, 「조해일 소설과 도덕주의」, 『어문학』 121, 한국어문학회, 2013.

고인환 · 오태호, 「조해일의 「아메리카」에 나타난 ‘미국’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6, 우리문학회, 2015.

이화진, 「조해일 소설의 이방인 의식과 공간탐색: 197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7, 반교어문학회, 2017.

김지윤, 「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218) 조명기, 「1970년대 대중소설의 한 양상 : 조해일의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0, 대중서사학회, 2003.

김현주, 앞의 글.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앞의 글.

219) 김영옥, 앞의 글.

이정옥, 앞의 글.

곽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고경선, 「『겨울여자』의 영화적 스토리텔링과 한계성」, 『스토리앤이미지텔링』 6,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전지은, 「서사텍스트와 매체의 은유적 역학 관계연구 : 1970년대 소설과 영화의 매체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사회문제를 의미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초기 단편소설과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조해일이 전략적 글쓰기와 계몽의 담론을 통해 대중소설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한 것에서 의미를 가진다.<sup>221)</sup> 그동안 단편소설과 대중소설이 분리되어 연구되어 왔던 기존의 경향을 극복하면서 조해일의 작가의식의 연속성을 밝히고 대중소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설 텍스트 자체의 특질을 연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조해일의 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조해일 소설의 청년들이 사회나 현실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의 자화상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sup>222)</sup>

『겨울여자』 이후 창작한 장편소설을 일별해본다면 그가 신문연재소설 혹은 대중소설을 통해 “널리 읽히는 좋은 소설”<sup>223)</sup>을 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장편소설에서 서울의 중산층과 그들의 문화생활을 그리는 한편, 계몽주의적인 시각으로 부도덕하거나 무비판적인 인물들이 개과천선을 하거나 자신과 다른 계급의 실상을 목도하여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현실에 대한 반성을 하는 서사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기소설의 사회비판의식과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이 불연속적이라 보고 작가의식이 변모했다고 볼 수 있으나<sup>224)</sup> “좋은 소설”을 쓰고자 했던 조해일의 계몽주의적인 창작관은 “널리 읽히는” 신문연재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해일은 어렸을 적 판자촌의 생활에서부터 서울의 도시개발과 ‘아파트공화국’으로 변하는 서울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서울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계몽주의적인 태도로 화해시키고자 한다. 자본주의화되어가는 서울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상상적 도덕주의로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sup>225)</sup> 이를

221) 이화진,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50, 반교어문학회, 2018.

222) 위의 글, 253면.

223) 조해일, 「<아메리카>를 내던 무렵」, 앞의 글, 222면.

224) 박수현, 「조해일의 단편소설 연구」, 앞의 글, 2013.

225) 박수현은 단편소설에서 조해일 소설의 이상적 인물이 비현실성을 드러내며, 작가의 도덕

위하여 조해일은 소설 속 공간에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두 장소의 인물들의 만남을 주선한다.

본고는 조해일의 『겨울여자』 이후의 소설이 표면적으로는 청춘남녀의 대중 연애소설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세계와 다른 이질적인 서울의 장소를 통해 사회현실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됨을 그려내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성이 서로 이질적인 장소인 아파트와 창녀촌이나 판잣집, 공장이라는 장소의 극명한 대비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조해일의 서사전략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한다.

즉 2장에서 언급했듯이 “넌리 읽히는 좋은 소설”을 쓰고자 했던 조해일은 신문연재의 공간에서 당대 독자의 공감과 흥미를 얻을 수 있는 인물군을 제시하는 한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현실적 욕망만 좇지 않고 자신과 다른 계층의 세계를 직시하길 바라는 바람을 소설로서 형상화한다. 이처럼 다른 두 장소의 형상화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살면서 점점 판자촌이 철거되고 전차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던 서울의 변화를 직접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해일은 부산 피난 시절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왕산 일대, 청진동, 정동, 관훈동, 마장동, 왕십리 등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의 조해일에게 판자촌은 일상이었으며 서울에서 성장함에 따라 서울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변화를 가감없이 목도했다. 비록 조해일은 서울태생은 아니지만 1950년대에서 1970년대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몸소 살아왔다는 데에서 서울의 내부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해일은 2장에서 보았듯이 인왕산 기슭에서의 유년시절과 이십대까지의 종로 일대와 왕십리 주변의 거주 경험을 추억으로 소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서울사람으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며<sup>226)</sup> 점점 낯설어지는 서울에 적응하면서도 도시개발에 의하여 감추어지

---

주의가 비현실적인 이상향 또는 현실에 대한 염증의 반대급부로서의 상상물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상적 도덕주의라 일컫고 있다. 박수현, 「조해일의 소설과 도덕주의」, 앞의 글, 315면.

고 철거되거나 이주되는 판자촌을 소설 속에 소환시키고 있다.

서울로 상경한 조선작과 그 인물들이 서울에서 셋방이든 소유하든 자신의 집을 갖는 것 자체를 갖는 것이 바람이었다면, 조해일의 장편소설에서 서울의 중산층 부모를 두고 있는 이십대의 청년들에게 아파트와 문화적 소비생활은 태생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겨울여자』 이후 소설에서 아파트가 현대적 거주공간으로 제시되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제시되는 것 자체는 당대 아파트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가므로 새로울 것은 없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와 문화적 소비생활에 대한 묘사가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당대의 아파트에 대한 당시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여 독자대중의 흥미를 이끄는 한편, 작품 후반부에 그들이 볼 수 없거나 보려 하지 않은 판잣집, 공장, 창녀촌이라는 장소를 제시한 것이 ‘좋은 소설’을 쓰겠다는 조해일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조해일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을 그려내는데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한다.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은 처음에는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자리하였다가 점차 중산층의 삶을 표상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 큼<sup>227)</sup>, 아파트는 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초창기 아파트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어졌으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서민층을 위한 소형아파트들로 인식되었고 그나마 별 호응을

---

226) 90년대에 겨울여자를 회고하는 다음 기사 말미에 작가의 당시 신변에 대한 정보 또한 드러나 있다. “어쨌든 작가로서는 어설픈 정치적 우화소설의 변종쯤으로 여겨지는 이 소설이 나름대로 지닌 미덕 또는 매력이 있었는지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자 대뜸 베스트셀러가 되어, 나를 연탄 때는 15평짜리 서민 아파트에서 곧 중앙공급식 난방의 27평짜리 중산층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다.” 조해일, 「나의 책 이야기 - 조해일 『겨울여자』, 『동아일보』, 1990, 9. 13.

227)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얻지 못한 실정이었다. 1958년 종암아파트에서부터 1965년 마포아파트들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의 아파트들은, 연탄 난방에 승강기도 없는 16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였다. 이로 인해 당시의 아파트에 대한 시선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작은 평수의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게다가 1970년 4월, 준공된 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가 붕괴된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경악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sup>228)</sup>

하지만 1971년 완공된 강북의 동부이촌동단지를 시작으로 일어난 변화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총 3,260세대에 이르는 이 아파트 단지는 서민형 소형아파트(784세대), 외국인을 위한 외인아파트(500세대), 중대형 아파트인 한강맨션(700세대)으로 이루어졌다. 아파트의 평수가 20~80평에 이르는 선택의 폭을 제공할 정도로 넓어졌으며 전세대가 기름보일러식 중앙난방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가진다. 이후 강남개발의 신호탄이 된 1974년 완공된 반포단지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지어졌고 대성공에 이르렀다.<sup>229)</sup> 그리하여 197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아파트에 대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보다는 서구적이며 편리한 생활공간이라는 이미지로 대체되어 갔으며, 특히 이는 젊은층들의 취향과 부합하면서 호응을 받았다.

1960년대 서울의 인구의 폭발적 팽창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1966)에는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타난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부족해진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등장하지만 이 소설에 드러나고 있듯이 1960년대에는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양식은 아니었다. 이 소설에서 길녀를 비롯한 인물들이 경험하는

---

228) 조해일의 「아메리카」와 조선작의 『말괄량이 도시』에서 인물들의 가족들이 이 붕괴사건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서 죽거나 중상을 입은 모티프가 나온다. 이 사건이 꽤나 충격적인 이슈가 되었던 만큼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당시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229)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27-37면.

공간들이 구체적인 반면에, 아파트는 풍경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sup>230)</sup> 또한 조정래의 『비탈진 음지』(1973)에서 소설의 주인공에게 아파트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아닌 것으로 비춰진다.<sup>231)</sup> 이것은 아파트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32)</sup> 그런데 조해일의 소설에서는 아파트가 이전의 외부자의 관점에서 내부자의 일상적인 장소로 제시되면서, 서울 내부자인 중산층의 삶의 표상이자 거주 장소로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서울의 변화상과 아파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조해일의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단편소설에서 아파트가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거나 서민아파트로 제시되다가 장편소설에서는 대학강사나 의사 등 중산층의 생활공간으로 그려진다. 즉 조해일 소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당시 서울사람들의 서울에 대한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서울의 내부자로서 서울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계층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sup>233)</sup>

「아메리카」(1972)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나’란 인물의 불행의 원인을 제시하는 공간 정도로 등장하지만 그 이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을 휴학한 ‘나’는 제대하기 두 달을 앞두고 자신을 제외한 가족이 폐죽음을 당해 고아가 된다. 이것은 1970년 와우아파트의 붕괴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

230) “마포 아파트가 서있는 도화동이 저렇게 내려다 보이고 그 너머로 한강이 흘러가고 오른편으로 공덕동이 마주 있고, 철길 건너로는 신공덕동, 만리동이 이어지고 벼랑 밑으로 들고나오는 당인리 발전소로 가는 낡은 기관차 소리도 어딘가 서울 같지 않은 인정을 풍겨주었다.”(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207면.)

231) “머리 위에서 불을 때고 그 머리 위에서 또 불을 때고, 오줌 똥을 싸고, 그 아래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을 낳고, 사람이 사람 위에 포개지고 그 위에 또 얹혀서 살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32) 손종업, 「우리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계보학」,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2011, 247-248면.

233) 서울에서 전체 주택 중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대에는 88.4%, 1975년에는 83%였다고 한다. 1970년대 보편적인 주거 양식은 단독주택이었으며 1970년대에 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과 서구식 문화에 대한 선망으로 ‘아파트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 손세관, 앞의 글, 272-275면 참고.

어준 사건이었다.<sup>234)</sup> 와우아파트는 1968년 시민주택에 대한 장려와 김현옥 시장이 주도한 도심 빈민가 재개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어 입주자 중 33명의 사망자와 38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사건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꽤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다.<sup>235)</sup> 조해일의 이 소설은 동두천의 기지촌을 바탕으로 근대화된 한국사회의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부실 공사로 무너진 아파트의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

제대를 두 달 앞두고 가족의 폐죽음을 당한 내게 당숙은 그렇게 말했었다. 나의 가족은 날림공사로 지어진 아파트에 살다가 잠든 채로 그 일을 당하였다.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나갔을 때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두 누이동생의 시체가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에서 끌어내어져 가마니에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당숙이 당숙모와 함께 거기 와 있었다. 방송을 듣고 달려왔다는 것이었고, 내게 연락을 취하게 한 것도 당숙이라고 하였다. 참혹하게 죽은 사람들 앞이었고, 엄청난 불행의 무게에 눌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의 앞이었으나 당숙은 살아가는 일에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자상하고 굳센,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sup>2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공간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금자리로 꿈꾸는 공간이기도 했다. 「무쇠탈」(1973)의 도입부에서는 부모형제가 없이 어렵게 생활을 꾸려내고 있는 윤충모와 차희숙이 자신들의 신혼 보금자리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들은 각각의 직장에서 빈혈을 일으킬 정도로 식비를 아끼면서 저축을 하여, 비록 할부금이 있을망정 신혼생활을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이들 부부의 행복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

234)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은 앞선 『말팔랑이 도시』에서도 소재로 등장한다. 결혼상담소의 진여사는 아파트 붕괴로 자식을 잃고, 남편은 중상을 당해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 진여사는 이 아파트 사고로 인해 생활전선에 나온 것이다. 현수경이 진여사에게 소개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여사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고로 인해 불행해졌다는 데 있다.

235)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34면.

236) 조해일, 「아메리카」, 앞의 책, 10면.

두 사람 모두 생존한 부모도 형제도 없었던 그들은, 스스로 돕는 도리밖에는 없었으므로 연애 기간인 동시에 결혼 준비 기간이기도 했던 3년 동안에, 각각의 직장에서 받는 보수 중의 많은 부분을 떼어 착실히 저축하였던 덕분에 신혼 살림을 자그마한 아파아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비록 할부금을 앞으로 십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물어야 완전한 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작고 웅색한 아파아트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그들 자신의 노력만으로 마련된 삶의 보금자리였으므로 그들은 그 어떤 훌륭한 저택에 살게 된 경우 못지 않게 즐겁고 흡족한 기분으로 그 신혼 생활을 출발하였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으며, 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의 소산인 적극적 내핍 생활, 즉 그 장차 남편 쪽의 술·담배·커피 등 기호품 소비의 절대적 억제, 이따금 빈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단으로 낮게 책정한 식비, 마찬가지로 수준의 주거비,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잡비 일체의 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의 금욕적(禁慾的) 노력과, 그 장차 아내 쪽의 그와 맛먹는 노력의 대가였다. 차희숙은 3년 동안에 미장원엘 꼭 한 번 갔을 뿐이며 평소 즐기던 영화 구경도 꼭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 양장점 근처엔 발그림자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결국 삼개월밖엔 지탱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신혼 생활은 그 출발의 어려움만 큼은 행복하였다.<sup>237)</sup>

이처럼 신혼 부부가 빚을 내서 마련한 웅색한 집일망정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없이 오로지 자신의 직장생활을 통한 수입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한 내핍을 통해 이들의 신혼 ‘생활’은 가능해지게 된다. 비루한 이들의 생활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해서 행복하고 안온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공간은 강도들의 침입으로 한순간 ‘재앙’의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변화를 맞는다.

그들은 우선 윗목에 높여 있는 윤충모들의 캐비닛부터 열었다. 가난하고 남루한 내용물들이 드러났다. 윤충모가 지금 입고 있는 새 양복을 맞추기 전에 입던, 제

---

237) 조해일, 「무쇠탈」, 앞의 책, 293면.

색을 잃은 지 오랜 단추 세 개짜리의 구식 양복이 한 벌, 변색해서 누른 기가 도는 컬러 좁은 흰 와이셔츠가 두 개, 여름용 나일론 잠바 하나, 남방셔츠 하나, 그리고 차희숙의 새로 맞춘 쥐색 투피스 한 벌, 구식 주름 치마 하나, 얼룩덜룩한 원피스 하나, 다 낡은 겨울용 바둑 무늬 코트 하나, 시장에서 사 입을 수 있는 싸구려 블라우스 두 개 등등이 옷걸이에서 주렁주렁 매달려서 제 주인들의 신산한 모습을 기웃기웃 내다보고 있었다. 물방울무늬의 넥타이가 참상을 목격한 것같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이걸 솥재 이재민 보따리로군!”

그러나 무테안경은 잠자코 캐비닛 아래쪽의 서랍을 잡아뽑았다. 무릎을 기운 윤충모의 겨울내의, 군에서 제대할 때 입고 나온 육군 마크가 찍힌 팬티, 러닝셔츠 나부랭이, 차희숙의 꾸깃꾸깃한 슈미즈, 궁쳐진 브래지어, 색이 바랜 팬티 나부랭이, 옷이 나간 스타킹 등등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 이상 참상을 보고 견딜 순 없다는 듯 물방울 무늬의 넥타이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무테안경은 잠자코 그 속옷 나부랭이들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sup>238)</sup>

이 부부는 아파트를 겨우 마련하였지만, 실은 ‘가난뱅이’와 다름없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웅색한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은 강도들에게조차 “가엾은 두 분”이라는 말을 듣게 만든다. 이렇게 조해일의 초기 단편소설에 등장한 아파트는 가난한 서민들의 최소한의 보금자리이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앙을 막아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1974년에 발표된 「왕십리」는 서울의 공간 변화를 영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sup>239)</sup> 14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민준태가 서울역 앞에서 처음 목도하는 것은 전차가 사라지고 지하철 공사가 한창중인 모습이다.<sup>240)</sup> 옛 애인 정희를 찾아 서울을 헤매는 여정에서 준태는 곳곳에 개발이

238) 위의 책, 302면.

239) 이에 대해 송은영은 “대중소설 <왕십리>가 서울의 문학적 재현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 과거를 아스라이 미화시킴으로써 경제적 공간감각의 대중화 현상과 어울릴 만한 세속적 재현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송은영, 『서울탄생기』, 앞의 책, 153면.

240) 준태에게 전차는 정희와의 추억을 매개해주는 것이자 옛 서울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환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전차’가 사라진 것은 준태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준다. 1968년 이전의 서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추억 중 하나가 서울 시내를 느릿느릿 달리던 전차였다고 한다. 김현옥 시장은 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진행중인 서울의 변화를 실감한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말쑥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驛舍)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군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다. 준태는 역쪽으로 좀더 걸어 내려갔다. 기동차길이 보이지 않는다. 동대문에서 청계천변을 끼고 달려나와 독점까지에 이르는, 시에서 운행하던 단선의 궤도차가 역 앞 광장의 한복판을 통과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기동차라고 불렀었다. 성동(城東)의 명물의 하나이던 그것, 통학생들과 광주리 장수 아주머니들에게 그지없이 사랑받던, 독점 방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유일하던 교통 기관. 준태가 정희와 같이 나고 비 오는, 또는 눈 내리는 들판을 내다보면서 몇 번이고 왕복하던 그 기동차도 없어져 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마장동이나 사근동의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름길을 제공해 주던 역의 적재장 입구도 완전히 막혀 있었다. 준태는 발길을 돌이켰다. 햇빛은 어느 새 오후의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천천히 되짚어 준태는 다시 <천지회관> 쪽으로 돌아왔다.<sup>241)</sup>

14년만에 서울로 돌아온 준태는 옛 애인 정희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정희가 살았던 판잣집 동네는 예전의 모습이 온데간데없고 고가도로가 생기고 자동차가 질주 하는 등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판잣집 대신 고층의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정희를 찾는 데 사흘을 허송하고 나서 준태는 다소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우선 영미교 근처로 가 보았으나 그곳은 숯제 개천 전체가 콘크리트로 복개가 되어 있었고 그 위로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었으며, 다시 그 위에는 고가도로가 놓여 있었고 좌우로는 고층의 상가 아파트가 늘어 서 있었다. 판잣집 동네가 그 부근에 밀집해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곳은 변해 있었다. 준태는 이 근처만 오면 어떻게든 그녀를 찾을 작은 실마리나 얻을

---

도모한다면서 도시공간의 배치와 이용방식을 재편했는데 교통수단의 개편도 그 중 하나였다. “구시대의 유물이자 이동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해물”인 전차는 1968년 이후 폐지되고 버스 중심의 빠른 도시가 만들어진다. 지하철 건설은 후임인 양택식 시장 때 이루어지는데 1970년 6월 9일 지하철 건설본부가 만들어지고 1971년 1호선이 착공되고 3년 후에 완공되어 1975년 8월 15일 개통되었다. 송은영, 『서울탄생기』, 앞의 책, 188-194면.)

241) 조해일, 「왕십리」, 앞의 책, 83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기가 터무니없는 오산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곧 생각을 고쳐 먹고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 동네란 판잣집 동네는 모조리 헤매어 보기로 작정했다.<sup>242)</sup>

「왕십리」에서 준태가 목도한 서울의 변화는 14년 간 국외에 있다가 돌아온 외부인의 시선이다. 서울의 급격한 변화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갔으며, 아파트라는 공간도 처음 등장했을 때의 새로움 내지 충격과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일상적인 공간으로 자리잡는다.

<대한 여행사 관광 버스 영업소>와 <신진 자동차 용산 서어비스 센터> 앞을 지났다. 거기까지도 사람들의 등으로 옆이 막힌 좁다란 낭하는 계속 되었다. <한강대교>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순간 사나이의 걸음이 멈칫 하는 듯 했다. 가순호는 사나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뒤로 돌렸다. 알루미늄 빛으로 번쩍거리는 한 떼의 건물군(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일고여덟 해 전만 해도 모래 먼지와 잡초가 무성하던, 그러나 지금은 기하학과 역학에 힘입은 바의 번듯하게 드높여진 한강변 위에 새로이 형성된 또 하나의 도시, 맨션 아파트 마을이었다. 군제와 외관을 자랑하는 그 건물들을 사나이는 어쩌면 처음 보지도 몰랐다.<sup>243)</sup>

197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아파트는 서울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잡고, 서민층의 주거공간에서 위에 인용한 「뽕」의 한강변의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위용이 묘사되어 있듯이, 중산층의 주거공간 및 부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1970년대 중후반 이후 조해일의 소설에서 그려지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학력이 있거나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해일의 소설에서 아파트는 독신남녀의 생활공간으로 자주 나온다. 『겨울여자』에서 아파트에 사는 인물은 대학 강사인 허민으로 그는 이화가 다니는 대학의 강사이며<sup>244)</sup>, 이혼한 지 7년이 되어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다.<sup>245)</sup> 잠시

242) 위의 책, 110~111면.

243) 조해일, 「뽕」, 앞의 책, 204면.

244) 허민이 등장하는 맨 처음 장면에서 허민의 대학 동기들은 대학의 강사, 일간신문의 논설

등장하는 허민과 윤희의 결혼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sup>246)</sup>

윤희는 그가 바라는 만큼의 학력과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건강했으며 학력에 어울리는 만큼의 교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윤희가 바라는 만큼의 학력 건강 교양 그리고 직업과 재산을 갖고 있었다. 서로 그만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하였다. 양쪽 집안과 친지들의 축복과 선망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그리고 스스로도 자랑으로 여기면서.<sup>247)</sup>

결혼한 후 몇 달 동안은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윤희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그 자신도 흡족한 기분이었다. 외국의 저명한 연주가가 왔을 때는 빼놓지 않고 음악회에도 참석하였고 나란히 전람회 구경도 다녔으며 주말이면 여행도 떠났다.<sup>248)</sup>

허민과 윤희는 각각 배우자에게 부합하는 자질, 학력, 건강, 교양, 직업, 재산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어 이러한 둘의 결합은 이상적인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음악회나 전람회를 참석하며 주말이면 여행도 다니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결혼생활은 중산층의 문화적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는 중산층의 서울청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공간이었다. 조해일의 소설에서 신혼부부이거나 독신남녀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

---

위원 등으로 제시된다. 즉 어느 정도의 학력 자본과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겨울여자 상』, 앞의 책, 259면.

245) 허민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허민은 침대에서 눈을 뜨며, 침실 문을 열고 나오면 응접실과 소파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246) 영화 <겨울여자>에서 등장하는 허민의 아파트는 한강변의 고급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1974년 입주한 이촌동의 18층 고층 아파트로, 아파트 내부 또한 고급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영화에서는 아파트 정면 맞은편에는 1971년 준공된 동부이촌동 아파트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문근중, 「한국영화에 드러난 아파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4면. 즉, 허민의 경우 독신자로서 독신자아파트라는 공간보다는 중산층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247) 조해일, 『겨울여자 상』, 앞의 책, 272면.

248) 위의 책, 272-273면.

한다. 조해일의 소설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한 감격이나 부정정보다 도시 청년들의 욕망을 드러내주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공간은 중산층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조선작의 소설에 나오는 도시 하층민이 주택이나 하숙집, 여관을 전전하는 것과는 상이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같은 도시의 다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지붕위의 남자』의 주인공과 주인공이 처한 상황의 설정은 다분히 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주인공 앞에 누구라도 꿈꾸었을 상황이 주어지는데, 남성주인공 또한 그것을 “행운”이라고 표현한다.<sup>249)</sup> 즉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22평짜리 아파트와 1년의 생활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로써 동표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소비만을 하면서 편히 지내기로 마음먹는다. 돌보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환상에 불과하다. 재산을 보전하지 않고 소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자본주의적 환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청년이 하는 일이라고는 ‘연애를 거는 것’뿐이다.

동표는 지금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동표네 식구들, 정확히 말해서 동표네 식구 네 명, 즉 동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고1학년짜리 여동생과 국민학

249) 조해일은 작가 후기에서 우리가 보통 사는 삶과 달리 일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며 그래서 제목 또한 ‘지붕위의 남자’임을 말하고 있다.

“이 소설을 신문(서울신문)에 연재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작가의 말」을 썼었다.

<우리는 지붕 밑에서나 나날의 삶을 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아주 없진 않다. 이를테면 기와가 어긋나 천장으로 비가 새는 경우라든지 지붕 꼭대기에 설치한 텔레비전 안테나가 어떻게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 우리는 각각 그 방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 스스로 지붕 위로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약간의 위태로움을 동반한 일종의 신선감이다. 뭐라고 할까, 약간의 모험을 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지붕위의 남자」는 그러한 일상으로부터의 잠시 동안의 자유를 얻은 한 청년의 이야기다. 물론 완전히 보장된 자유는 아니고 약간의 위태로움을 동반한, 실족하면 굴러떨어져서 다치게 될지도 모르는 자유다. 일종의 모험을 동반한 자유다.

그러나 아마 독자들은 이 청년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땅바닥에 남아 있는 아이가 지붕 위에 올라간 아이를 부러워하듯이. 그러나 안심하시라. 그대신 안전한 것은 여러분 쪽이다. 여러분은 구경만 하면 되니깐.>”

교6학년짜리 막내녀석이 함께 캐나다로 가기 위한 비행기에 탄 것이다. 외과의사인 동표의 아버지가 그곳의 한 병원과 장기 고용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혼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동표 한 사람을 제외한 식구 모두를 데리고 그곳으로 떠난 것이다. 식구들이 살던 아파트와 동표가 혼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한 얼마간의 은행 예금을 남겨둔 채.

동표로서는 일시에 천애의 고아가 된 셈이지만 내심 환호작약할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바라지 못했던 행운이었기 때문이다. 거추장스런 식구들이 없는 혼자만의 아파트와 1년쯤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놀면서 까먹을 수 있는 액수의 은행 예금이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sup>250)</sup>

동표는 27세의 청년으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이다. 그의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된 동표에게 예금을 남겨줄 정도의 자본을 소유하였다. 앞서 「무쇠탈」의 부부가 자신들의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 청년은 부모가 중산층이기에 중산층의 생활을 이어받아 영위하고 있는 청년이다. 이 청년은 아파트와 돈이 생기자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연애걸기에 고심하는 인물로, 소설 전반부는 ‘연애’와 이 청년의 소비생활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어홀에서 일하는 정미의 경우, 그러한 청년의 소비 생활을 동경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젊은 청년들과 대중들이 선망하는 서구적 생활방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이 청년에게 아파트는 안식처로 그려지고 있다.

동표는 신문들을 집어 가지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신문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이렇게 비워 두었다가 돌아올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여간 기특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마음대로 비워 둘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sup>251)</sup>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이 망막에 밟혔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 층계를 밟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는 오열과 싸우면서 그는 한단 한단

---

250) 조해일, 『지붕위의 남자 상』, 열화당, 1977, 11-12면.

251) 위의 책, 172면.

천천히 층계를 밟아 올라갔다. 유난히 층계가 길고 아득하게 뻗어올라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한없이 높은 탑 속을 기어올라가듯 그는 쉬지 않고 층계를 밟아 올라갔다.

마침내 낮익은 숫자표지가 나타났다. 그는 열쇠를 꽂아 도어를 열었다. 하루 동안 비워 둔 그의 아파트는 캄캄한 채 그를 맞아 주었다. 그는 조용히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켜고 고아처럼 기어들었다.<sup>252)</sup>

아파트는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과 젊은 세대의 선호가 맞부딪히는 곳으로 젊은 세대의 서구식 생활 선호가 아파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253)</sup>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무죄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민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파트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에게 주어지는 곳이었다. 「지붕위의 남자」의 정미가 아파트에 사는 동표를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비어홀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미에게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일인 것이다. 그녀가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동표에게 기식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된다.

한편, 이 소설에서는 중산층 청년의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이 그려지고 있다. 백수가 된 이 청년이 맨 처음 하는 일은 ‘일제 아시히펜탁스’ 사진기를 사는 일이다. 그는 그 사진기를 들고 창경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경양식집에 가서 비프스테이크를 혼자 먹고 다방에 가서 애인 미호를 만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남은 시간에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창경원에서 만난 간호원 경림에게 수작을 부리거나 다방에서 애인인 미호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는 음악 감상실에 가서 바하, 모차르트 등의 클래식을 듣고 북악 스카이웨이에 택시를 타고 가서 서울 야경을 본다.

그리고 그들이 탄 택시가 자동차의 물결 속을 빠져나와 북악스카이웨이로 접어

---

252) 조해일, 『지붕위의 남자 하』, 열화당, 1977, 589면.

253) 송은영, 『서울탄생기』, 앞의 책, 425면.

들었을 때는 도로 좌우로 거뭇거뭇 어두운 숲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도로 전면에는 그들이 탄 택시가 비치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일직선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 줄 뿐이었다. 그곳부터는 인적은 물론 다른 차량의 통행조차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짓이 말했다.

서울에도 이렇게 조용한 자동차 길이 다 있었군요. 무슨 별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동표는 웃으며 대꾸했다.

하하, 별세계엔 별세계죠. 어쨌든 사람들이 늘 오는 곳은 아니니까요. 도심에서 별로 먼 편은 아니지만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잘 오게 되는 곳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걸어서 올라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곳이고

어마, 그럼 여기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인가요?

아직 모르셨군요. 여긴 말하자면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뭐라고 할까, 최소한 택시값이라도 있어야 올라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택시값도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선 우린 비교적 복받은 층에 속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택시라도 타고 올라와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sup>254)</sup>

북악 스카이웨이 코스는 자동차 전용도로였다.<sup>255)</sup> 그러므로 금전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여유 있는 중산층의 데이트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sup>256)</sup> 이것은 『겨울여자』의 허민과 이화가 여가시간을 누리는 모습에도 드러난다. 허민은 이화에게 수영장에 가자고 제안을 하고

---

254) 조해일, 『지붕위의 남자 하』, 앞의 책, 402면.

255)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 이후, 군사정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청와대 경호상 출입제한을 하였던 북악산과 평창동 일대의 개발을 추진한다. ‘북악 스카이웨이 건설’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는데, 1968년 2월 9일 자하문~북악산~정릉~미아리에 이르는 산간도로를 방어 및 관광·휴식 도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착공하였던 것이다.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 2005, 176-178면. 개통 당시부터 드라이브코스로 각광받던 북악스카이웨이는 이후 소설에서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자주 등장한다. 「내일 개통」, 『경향신문』, 1968.9.27., 「혼잡이론 스카이웨이」, 『경향신문』, 1968.10.28.

256) 조선작의 『말괄량이 도시』에서 광명호가 맞선과 데이트를 위해 돈을 빌리고, 그 돈의 지출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는 도시에서의 생활 혹은 남녀 간의 데이트에 ‘소비’가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내 수영장에 간다. 이화가 수영을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것에 비해, 허민에게 수영은 익숙한 스포츠로 그려진다.<sup>257)</sup> 당시 실내 수영은 ‘부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sup>258)</sup> 허민의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영화관을 가는 것은 이들에게 일상이고<sup>259)</sup>, 여가시간엔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한다. 대학생인 이화 또한 ‘에로이카’라는 음악감상실을 수시로 가는 것으로 나온다. 조해일의 소설에는 이렇듯 도시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중산층 도시인들의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이 세밀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밀한 형상화는 후반부에서 인물들이 영등포의 공장이나 성남의 판잣집 등의 장소를 경험하면서 이질적인 두 공간에 대한 주인공의 각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획득한다.

## 4.2. 변두리 탐색과 생활인의 도덕 감정

조해일은 『겨울여자』를 비롯한 신문연재소설에서 중산층의 대학생 남녀를 통해 사회문화적 기반이 갖춰진 서울에서의 문화적 생활을 일상적 삶으로 그려내는 한편 후반부에 가서 이들이 하층민의 삶의 장소를 목도할 뿐만 아니

257) “요즘 대학생 중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다 있었나? 그렇다면 더욱 배워야겠군. 내 가르쳐주지. 그리고 수영복은 빌리도록 하지.” 조해일, 『겨울여자 상』, 앞의 책, 280면.

258) “레저단체 중에는 아직도 부의 상징같아 보이는 것이 많다. 골프장, 헬스클럽 등이 그렇고 테니스코트, 실내 수영장도 몇몇 운영자들로 인해 그런 눈총을 받기 쉽게 돼버렸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 볼링장도 역시 그랬다.” 「다가온 레저시대(1) 레저와 국민생활」, 『매일경제』, 1978.10.19, 8면.

259) 허민과 이화가 영화관에서 나온 후 대학의 동료인 송을 만나는데 그는 일요일의 여가시간에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임을 말하고 있다. “자네, 나 영화광인 걸 모르는 모양이군. 그리고 요즘 일요일에 뭐 할 일 있나? 테니스나 골프를 할 형편도 못 되고. 느지막이 어슬렁 어슬렁 나와서 영화나 한 편 보고 대포집에 가서 소주나 한잔 걸치고 들어가는 게 요즘의 일요일을 보내는 내 요령이지. 조해일, 『겨울여자 상』, 앞의 책, 300면.



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 장소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양상을 그려낸다. 이화와 양희는 서울에 소재한 여자대학에 다니며 석기는 S대학에 재학한 학생들로 이들이 학교 밖에서 만나는 장소는 시가지의 음악감상실인 ‘에로리카’와 경양식집과 다방, 창경원이다.<sup>260)</sup> 여자대학교의 강사인 허민은 아파트 생활을 하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수영장, 야구장, 영화관 등의 여가장소가 익숙한 인물이다. 대학가와 시가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자신과 다른 계층의 장소를 목도하거나 경험할 기회는 별로 없다. 이들은 대학생이거나 지식인층이지만 미성숙한 인물들로 그려지다가 다른 장소의 경험을 통해 사회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조해일의 『겨울여자』와 『지붕위의 남자』는 각각 여성인물과 남성인물이 남성 혹은 여성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회현실에 눈을 뜨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sup>261)</sup> 조해일은 초반부에는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연애라는 소재를 통해 독자를 이끌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주인공들이 그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겪을 수 없었던 사건을 겪게 한다. 주인공이 개과천선하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서술전략은 사실 대중소설에 있어서 낯익은 장치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 많이 읽히면서 ‘좋은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소설로서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 당대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여자』는 당대에 ‘창녀’ 모티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티스 문학’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sup>262)</sup>, 대중소설을 연구하는 자리에

260) 에로리카는 신촌 기차역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고, 경양식집에서 에로리카를 거쳐 택시를 타고 창경원으로 이동하는 것과 이화가 여자대학생이며 석기가 S대학 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신촌에서 종로 일대가 배경임을 추측할 수 있다.

261) 이화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화의 역할은 남성들의 부도덕성과 소시민성을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마저 감싸주면서 남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나오기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화진,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 주체의 내면의식」, 앞의 글, 256-257면.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여성을 수동적이고 대상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지붕위의 남자』의 동표 또한 애인 미호, 동거녀 정미 그리고 안경림, 구양서, 김광빈 등의 인물을 만나면서 자의식을 환기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표는 스스로 자신의 방종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서 주로 논의되었다.<sup>263)</sup> 『겨울여자』는 여성 인물인 이화를 내세워 이화가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과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이화라는 여성인물을 대상화하였다는 한계와 성과 가족이데올로기의 전복과 사회비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sup>264)</sup> 이러한 평가는 이화라는 인물이 갖는 파격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남성주의적인 시각의 한계에서 오는 파행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화라는 여대생이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며 성적으로 자유분방해지고 사회현실에 눈을 뜨는 과정을 남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여성을 대상화했다는 비판은 작가가 ‘정치 우화’였다고 후에 술화하였다고 해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sup>265)</sup>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본고가 주목하는 지점은 중산층의 자녀인 이화가 결혼이 아닌 취직을 선택하면서 ‘다른 장소’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취직이 석기의 친구인 양희라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다. 이화의 성장이 남성인물들과 연인이 아닌 일종의 사제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지점만 부각되었던 것이다.<sup>266)</sup> 남성인물들이 이화를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것과 달리 양희는 졸업한 이화를 동료로서 대학 밖의 세계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이화는 자신이 일상에서 접하는 장소와 다른 장소들을 접하게 된다.

『겨울여자』의 이화는 아버지가 목사이며 서울에 안정적인 집이 있는 중산층

262)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현대문학의 연구』 3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260면.

263) 김현주, 앞의 글.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앞의 글.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최인호, 조해일, 조선작 작품을 중심으로」, 앞의 글.

264) 광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앞의 글.

이수현, 앞의 글.

이화진, 「조해일의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앞의 글.

265) 조해일, 『겨울여자』, 솔, 1992, 553면.

266) 광승숙, 앞의 글.

가정의 자녀로 그려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대생이 된 이화는 평일에는 학교 생활을 하고 여가 시간에는 음악감상실에 가며, 주말이면 교회를 간다. 이러한 일상을 사는 여대생에게 서울의 변두리를 탐색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을 거부한 이화는 먼저 대학을 졸업한 양희의 소개를 통해 잡지사 기자로 취직하는데, 이러한 취직은 이화에게 이화의 생활반경을 넘어선 타자의 낯선 세계를 접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다분히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겨울여자』의 경우 ‘취재’ ‘르포’라는 형식으로 이화는 자신이 그동안 겪지 못했던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위의 남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왔던 소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판잣집의 실상에 대해 목격하게 된다.

대학 졸업을 한 후 이화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양희의 소개로 여성잡지사에 취직한다. 양희와 함께 잡지사의 인쇄소에 간 이화는 그곳의 작업환경하고 충격에 휩싸이는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적잖이 넓은 장소에 철분이 골고루 스며든 듯한 납빛 공기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과 손 그리고 작업복에 역시 철분이 골고루 스며든 듯한 검은 기름을 묻힌 수십 명의 남자들이 각기 작업대 앞에 서서 눈과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의 동작에 따라 실내는 작은 금속성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얼굴과 손을 더럽혀 가며 더욱이 이렇게 어둡고 탁한 공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의 충격과 함께 이화는 곧 심한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여지껏 신문이나 잡지 또는 활자로 인쇄된 다른 많은 종류의 책들을 보아 오면서 그녀는 부끄럽게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모든 활자로 인쇄되는 출판물들이 이들의 손을 통해, 이들의 저 자신의 얼굴과 손을 더럽히는 노동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염두에 두어본 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령 책을 읽을 때 오직 그 저자와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옆에서 박양희가 가만히 말했다.

「잡지는 사실 저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의 존재는 보통 잊혀지기가 일쑤죠. 작업환경이나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sup>267)</sup>

이화는 책을 좋아하는 소녀로 나오는데, 이런 노동자의 모습을 그동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책을 보는 행위가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이화는 자신이 보는 책이 이들의 노동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의 눈과 손의 움직임에서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의 친밀감과 자신(自信)을 발견”<sup>268)</sup>하지만, 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임금 또한 부각되고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 원고 몇 장씩을 손에 들고 활자들이 빼곡이 들어찬 작업대 앞에서 분주히 눈과 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빈틈없고 빨랐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과 손은 거의 하나같이 활자의 낱빛을 닮고 있었다.

그러나 이화는 그들의 눈과 손의 움직임에서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의 친밀감과 자신(自信)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리고 아름답게까지 보였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쁜 공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좀처럼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았다.<sup>269)</sup>

이화는 인쇄소를 다녀온 이틀 후, 편집장으로부터 최초로 취재지시를 받는데 영등포 1공단 르포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취재를 처음 간 이화의 안내자 역할을 맡은 김기자는 이화에게 공단의 현실에 대해 미리 언질을 준다.

1공단의 각종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녀 공원의 수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거의 수만명에 이르리라는 것, 그들의 대부분이 시골 각처에서 모여든 연소자들이며 반수 이상이 서울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스무살 미만의 여공들이라는 것, 기숙사 시설을 갖춘 공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장에 다니는 공원들은 근처의 월 6, 7천원짜이나 하는 거의 바라크나

267) 조해일, 『겨울여자 하』, 앞의 책, 509면.

268) 위의 책, 510면.

269) 위의 책, 같은 면.

다름없는 사글세 방을 얻어서 여럿이 함께 합숙하며 자취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글세에 방을 세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 남녀 공원들이 함께 합숙하는 경우나 아주 동거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여공들 가운데서는 자기 집안을 돕기 위해 더 돈을 벌어 보려고 공장에 나가는 외에 밤에 술집 같은 데까지 나가는 일도 있다는 것 등등. 이화에게는 모두가 충격적인 얘기들이었다.<sup>270)</sup>

김기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원들이 시골에서 스무살 미만의 여공들이며, 바라크나 다름없는 사글세 방에서 합숙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고, 술집에 나가는 일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화는 이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공단에 가자 밝고 평화로운 현대식 공장건물과 잘 가꾸진 잔디들을 본다.

그러나 막상 1공단에 도착하여 잘 포장된 공단 내의 넓고 반듯한 도로들이나 미관을 살린 현대식 공장 건물들 그리고 언뜻언뜻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공장들 구내의 공원처럼 잘 가꾸진 잔디밭 따위를 보게 됐을 때 이화는 그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조금도 실감나지 않았다.

그의 얘기를 듣는 순간 받았던 어둡고 음산하던 인상과는 현저히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것이다. 적어도 외관으로는 그곳은 너무도 밝고 평화로와 보였으며 서울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말쑥하게 단장되어 있었다.<sup>271)</sup>

이화는 김기자의 공단에 대한 실상을 듣고 자신이 마주할 모습에 긴장을 하지만, 공단의 외부는 잘 가꾸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산업화, 공업화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했던 당대의 현실과 닮아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장 구내로 따라 들어가서 <생산부>라고 적힌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

270) 위의 책, 519면.

271) 위의 책, 같은 면.

그리고 거기서 수백명의 자기보다 어린 나이의 소녀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이화는 어떤 마음이 아픈 듯한 감명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목격했을 때의 마음아픔 같은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가지 일을 위해 질서 정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의 아름다움. 이를테면 메스 게임 같은 것의 아름다움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보다 한층 진한 아름다움이었다고 나 할까.

그리고 공단에 도착해서 받은 인상은 그곳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작업실 내의 밝은 조명, 소녀들이 입은 부드러운 색상의 작업복, 일하고 있는 소녀들의 열중한 표정, 반듯하고 드높은 천장과 깨끗한 바닥, 그 모든 것들이 주는 인상은 공단의 외관에서 받은 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sup>272)</sup>

공장 내부에서도 이화가 본 것은 여공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이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공의 이미지를 애국적이고 순종적이며 검소한 이미지로 채색하였다.<sup>273)</sup> 이는 당시 매스컴에서 포장한 산업화 역군을 키우기 위해 노동을 권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점심 식사 후, 이화는 휴식 중인 소녀를 만나면서 표면적인 관찰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된다. 소녀는 이화가 잡지사에서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재하러 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만 이화가 다른 기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이화는 취재라기보다는 친구가 되자고 하는데, 소녀는 여대생인 이화에게 계층적인 위화감을 느끼며 “그렇지만 언니는 우리 가튼 애들하군 다르잖아요. 언니는 잡지사 같은 데 다니는 분이구 우린 공순인 걸요”<sup>274)</sup>라고 말한다.<sup>275)</sup>

---

272) 위의 책, 520-521면.

273) 루스 배러클러프, 김원·노지승 역, 『여공문학』, 후마니타스, 2017, 152면.

274) 조해일, 『겨울여자 하』, 앞의 책, 523면.

275) 1970년대만 해도 대다수 가정이 빈곤하고 자녀수도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했으므로, 당시 여대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삶과 교육: 공부 경험과 자기 성취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4면.

이화는 ‘공순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소녀는 공장에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화는 그것은 좋은 호칭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길부터가 다른 걸요. 대뜸 아, 공순이로구나 하는 표정이 얼굴에 쓰여 있어요. 대하는 말씨두 다르구요. 우리가 생각해두 우린 어딘지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두 우리 같은 공순인 어디서나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 땀엔 옷을 세련되게 입은 애두 마찬가지로요.<sup>276)</sup>

이화는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생각이며, 직업에 따라 특징이 있고 그것이 다를 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소녀는 언니는 좋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한다면, 잡지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런 얘기를 써달라고 하며 이화에게 노동환경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주고, 이화에 의해 공단의 실상은 독자에게 요약적으로 전달된다.

작업환경이나 기숙사 시설 같은 외부의 눈에 띄는 조건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노동시간이나 임금 같은 면에선 이렇다하게 좋아진 점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상해보상이나 퇴직금 제도 같은 것도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노조가 있긴 하지만 노조 간부는 공무원들보다 경영주 측에 더 밀착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집이 가난해서 국민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으며 그것도 그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라는 것 등등.<sup>277)</sup>

이화는 공단 노동자들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며 우울함을 느낀다. 김기자가 세상엔 덜 불행한 사람과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니,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게 자라는 아니며 사람의 기본적인

---

276) 조해일, 『겨울여자 하』, 앞의 책, 524면.

277) 위의 책, 525면.

권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기삿거리’라는 김기자의 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이화가 앞서 다른 남성 인물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과 달리, 인쇄소와 공장의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화는 기사거리가 아니라 저들의 삶 자체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옥자의 개별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공단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로 확대하여 생각하게 된다.<sup>278)</sup> 이 경험은 이화에게 자신이 자기 주변의 일 외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

이화는 인쇄소와 영등포 공단을 취재하면서 자기 주변의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낀다. 사회에 대한 이런 이화의 의식화는 판자촌에서 도토리 이발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광준을 만나면서 절정에 이른다. 이화는 양희가 소개해준 광준을 만나러 口동에 간다. 이화는 다리 비슷한 것이 나왔는데, 한 쪽은 모양을 갖추고 한 쪽은 넓은 광장 비슷한 곳이 되어 있어 개천을 가리는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것은 판자촌 전체를 가리는 역할을 했음에 충격을 받는다.

나중이야 이화는 그것이 개천의 복개가 거기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생긴 기이한 형상이라는 걸 알았다. 말하자면 기왕에 다리가 있던 곳까지에서 복개가 끝나 있었던 것이다. 난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쪽에는 상품광고가 든 커다란 입간판이 담장처럼 높이 세워져 있었고 그 너머 그리고 그 아래는 개천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 커다란 입간판의 용도는 따라서 상품 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가리는 데에도 있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개천 바닥을 가리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할까.

그러나 그녀가 난간이 끝나는 곳에서 왼쪽으로 뚫린 골목 비슷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것이 개천 바닥만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개천 바닥만이 아니라 개천 좌우의 독 위에 들어선 동네 전체를 가리는 역할을 그것은 하고 있었던 것이다.

---

278) “생긴 모습도 각각 다르고 작업의 내용도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이화에게는 각각 다른 또 하나의 옥자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위의 책, 527면.



적잖이 넓은 바닥의 한가운데로만 불결한 회색의 물이 흐르고 있는 개천 좌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기다란 돌 전체가 개천 바닥을 흐르고 있는 물빛 비슷한 집들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독의 경사면, 그리고 거의 개천 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겅 지붕이나 종이 지붕 같은 것을 덮은 집들이었고 개중에는 집 전체의 높이가 그녀의 키보다 낮아보이는 집들도 있었다. (...)

이화는 그 독길로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고통에 가까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그 낯선 세계가 그녀에게 안겨준 참담한 영상과 준열한 문책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육체적인 고통까지 수반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듯한 호흡의 압박을 느꼈고 전신이 미열에 뜬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걷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sup>279)</sup>

이화가 입간판 뒤로 본 것은 판자촌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가린 곳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상품광고 입간판 너머에 있던 이화는 비로소 입간판을 넘어서면서 판자촌과 조우하는 것이다.

『겨울여자』에서 이화를 통해 인쇄소와 공단의 노동 문제, 판자촌을 그려냈던 조해일은 『지붕위의 남자』 후반부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던 성남을 끌어들인다. 이 소설에서 여성인물인 경림은 간호원이면서 ‘백의의 천사’라는 표현을 거부하고 자신을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욕망만 추구했던 동표는 경림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하면서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낀다.<sup>280)</sup>

그들은 계속해서 눈을 맞으며 걸었다. 그리고 을지로쪽으로 접어든 그들의 발걸음이 을지로 5가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말했다.

---

279) 위의 책, 532-533면.

280) “하지만 겨울은 좀 추워야 제격 아네요. 그래야 정신도 좀 번쩍나고.”

그녀는 맑은 눈으로 동표를 돌아보며 대꾸했다.

“그건 동표씨 생각이죠. 추위를 막을 방법이 막연한, 가난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겨울이 제일이에요.”

“아, 이거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사람이란 제 입장을 벗어나기 힘들다더니, 저 배부르면 남 배고픈 사정 모른다는 식이 되고 말았는데요. 부끄럽군요.” 조해일, 『지붕위의 남자 하』, 앞의 책, 497면.

「참, 동표씨 <성남> 가 보셨어요?」

「<성남>요?」

「네, 경기도 성남시…」

「아뇨, 못 가봤는데요. 정부에서 몇 해 전에 새로 만든 주택단지 말이죠?」

「주택단지가 아니라 이제 인구 30만의 어엿한 시(市)래요.」

(…)

「지금 가봐야 꼭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주소가 바뀌었을 지도 모르고 더구나 지금은 환한 대낮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애가 사는 동네 라도 한번 가봤음 좋겠어요. 동표씨만 싫지 않으시면요. 동네 이름이 아주 예뻐요. 본래는 <은행동(銀杏洞)>이지만 달나라 별나라라는 예쁜 별명으로 부르고 있 대요. 애초의 의도하고 다르지만 싫지만 않으심 한번 안 가 보실래요?」<sup>281)</sup>

동표와 함께 서울 중심가를 걷다가 경림은 성남시를 아냐고 물어본다. 서울 중심가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성남시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다. 주택단지 였다가 이제는 어엿한 시가 되었다는 것은 이곳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간호사인 경림은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소년에게 찾아가보겠단 약속을 했는데, 그곳을 찾아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달나라 별나라”라는 “예쁜 별명”을 가진 동네를 찾아가는 “눈오는 저녁의 버스여행”<sup>282)</sup>은 동표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청계천을 빠져나가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시외로 가는 길은 그동안의 감정에서 ‘신뢰의 감정’으로 변화된 두 남녀에겐 즐겁고 설레는 일로 그려진다. 성남행 버스의 시발점은 을지로 5가와 청계천 5가 사이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있기에 버스를 3대나 보내고 출발을 하지만,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낭만적인 것인마냥 그려진다. 하지만 성남에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진다.

그때 버스는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왼쪽으로 꺾였다. 성남으로 향하는 갈림길인 모양이었다. 이제껏 거느리고 오던 야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버스는 달렸다.

---

281) 위의 책, 499-500면.

282) 위의 책, 501면.

어떤 외딴 지역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지껏보다는 차량의 통행도 훨씬 적고 가로등도 없는 길을 버스는 달렸다.

그리고 버스는 한참만에야 성남 시가지의 불빛과 만났다.<sup>283)</sup>

처음 성남시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변화하고 잘 정돈된 시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영등포의 거리 비슷한 느낌을 주고 “인구 30만의 도시”<sup>284)</sup>라는 실감을 주기 때문에 외딴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즉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로의 변화한 상점들, TV와 냉장고를 파는 전자제품 대리점, 기성신사복점, 양품점, 운동구점, 여관 등이 있는 서울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 곳 같은데요. 서울 거리보다 별로 못할 것도 없고. 여긴 서울 어느 변두리 같은 느낌을 주는군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곧, 이제는 서울 어느 변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차창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삼 년 전의 서울 변두리, 그것도 마장동 천변이나 중랑천변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도로 오른쪽 하천 너머 산비탈 같은 곳에, 흔히 <판잣집>이라고 불리던 영세한 주택들이 조그만 불빛을 반짝이며 <흡사 한 줌의 별이라도 뿌려 놓은 듯>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차창을 통해 바라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sup>285)</sup>

하지만 버스가 시가지를 진입하고 한참을 지나 종점에 갈수록 버스에서 보이는 풍경은 바뀐다. 변화한 상점들이 사라지고 규격이 비슷한 주택가들이 나오면 점점 빛도 줄어들면서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서울 어느 변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판잣집이 나타난다. 소년이 말한 ‘달나라 별나라’라는 낭만적 별명의 동네가 실은 서울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판잣집 동네라는 것을 대면하는 순간 경험은 충격을 받는다.

여기서 조해일은 197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서울에서 판잣집이 없어졌으

---

283) 위의 책, 503면.

284) 위의 책, 같은 면.

285) 위의 책, 504-505면.

며, 성남 등 주변의 위성 도시로 이주되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여자』에서 이화가 본 판잣집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에 의하여 서울 밖으로 옮겨진 것이다. 조해일은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1973년 성남‘시’로 승격이 된 광주 중부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1968년 6월 10일 도심의 무허가 판잣집들을 철거하고, 경기도 광주 중부면에 도시빈민들의 새로운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전의 도시빈민들의 집단이주가 도심 변두리인 것과 달리 광주대단지는 서울 바깥으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주 후 후속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에서 소요가 일어난다.<sup>286)</sup> 이것은 박태순의 「무너지는 산」(1972)과 신상웅의 「만가일 뿐이외다」(1973)에서도 그려진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해일은 1976년 서울 신문에 연재한 『지붕위의 남자』에서 시로 승격한 ‘성남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남시’는 서울의 판잣집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동표와 경림은 충격을 받고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방종한 청년이었던 동표가 그동안 자신이 접하지 못한 판잣집의 실체를 보면서 “마음 속의 동요”가 일게 되고 “각성상태”에 이름으로써 그동안의 경험영역을 벗어나 ‘풍문’으로만 들었던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집들의 가난한 지붕은 모두 포근한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동네로 들어선 이래 거의 아무말도 나누지 않았다. 무언가 얘기를 주고 받는 것이 동네에 대한 큰 무례라는 느낌이 그들에겐 생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은 무언중에 서로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동네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죄를 짓는 느낌이었다. 허락없이 남의 집 안마당에 들어와 있는 느낌 같았다고 할까.

어쨌든 동표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마음 속의 동요를 느꼈다. 형언할 길 없는 일종의 선명한 각성상태(覺醒狀態) 비슷했다고 할까. 무언가 여지껏 호도되었던 또는 무지(無知)했던 자신의 치부(恥部)가 일거에 눈들을 뜨고 고개를

---

286) 송은영, 앞의 책, 307~311면.

쳐드는 듯한 느낌에 그는 사로잡혔던 것이다. 자신의 내부에 갑자기 수많은 눈들이 생겨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 결코 감으려고 하지 않는 눈들이.

그리고 그 눈들이 그의 외부의 눈(肉眼)과 긴밀히 협동하여 그를 계속 극명한 각성상태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경험영역 안에서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삶의 양식은 여지껏 막연한 풍문이상의 뜻은 갖지 못했던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 현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것이 눈 감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sup>287)</sup>

이 광경을 보고 경림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매질하려는 눈”이 되는 것과 달리 동표는 각성상태와 수치심을 느끼며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온 듯한, 도둑이 된 듯한 기분이 된다. 이는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데, 경림은 그 현실을 맞닥뜨리려고 한다. 경림은 애초에 소년을 꼭 만나야겠단 생각이 없었으나 이 광경을 본 후 경림은 영수가 다니는 천막 학교를 찾아나서고 기어코 영수를 만나러 간다.

<국민 중 · 고등학교 의무화 연구센터> <성남 근로청소년 학교> <○○대학교 도시문제 연구소> 등등의 글씨들이었다. 그리고 오른쪽 기둥 부분 하단에는 교훈(敎訓)이 쓰여져 있었는데 판자조각이 떨어져나가 본래 세 글자씩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글귀가 두 글자씩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달자, 치자, 우자>가 그것이였다. 조금 생각해 보자 본래는 <깨달자, 뭉치자, 배우자>였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

그들은 안쪽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이랄 것도 없는 약간의 공토가 보였고 그 안쪽 조금 언덕진 곳에 나란히 천막 세 개가 보였다. 그리고 그 천막들 왼편에 판자로 지은 건물 한 채가 보였고 공터 왼편으로는 블록을 쌓다가 지붕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돼 있는 교사(校舍) 건물 비슷한 것이 보였다. 블록을 쌓은 솜씨가 익숙한 사람의 그것 같지 않았다. 학생들이 쌓다가 중단한 것 같은 인상이었다.<sup>288)</sup>

---

287) 조해일, 『지붕위의 남자 하』, 앞의 책, 509-510면.

288) 위의 책, 512면.

경림을 만난 영수는 영등포 전자회사 공장을 다니다가 사고가 난 후, 성남 공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공부하는 중이라고 경림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학교의 현황에 대해 서른 명의 대학 선생님들이 무료로 가르쳐주며 학생 수는 오백 명이라고 말한다. 한편, 천막이 아닌 짓다 만 건물에 대해 묻자 교사를 짓다가 시유지인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시에서 철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1974년 6월 11일 대학생들이 세운 성남시의 제일실업중고교가 철거해야 할 위기에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사설야학교로 30여명의 대학생들이 ‘광주대단지 사건’ 직후인 1971년 11월에 세운 학교라는 것이다. 기사에는 이 학교의 부지가 독지가의 사유지인데 사업이 기울어 처분하게 되었다고 전한다.<sup>289)</sup> 기사에서는 한 개인의 사유지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시유지로 나와 있는 것이 다르다.

비록 소설에서 갈등을 전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사유지였던 것과 달리 이를 정부 차원의 철거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동표는 성남 방문 후, 이화가 사회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회활동가가 되는 것과 유사한 경로로 동표는 그동안의 일탈을 반성하고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조해일의 소설은 대중들이 선망하는 서울의 아파트라는 주거공간과 서울에서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중산층인 도시인들이 노동자나 빈민과 접촉함으로써 인물들의 ‘부끄러움’의 감정을 부각시키는 한편, 주변부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신문연재소설의 형식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

---

289) 「대학생들이 세운 제일 실업중고교 불우청소년에 무지 일깨우는 사설야학교 설 땅을 잃어」, 『동아일보』, 1974.6.11., 4면.

## 5. 실존적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타인에 대한 관심: 최인호의 경우

### 5.1. 도시개발과 장소성 변화에 대한 인식

최인호는 초기 소설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한 장소상실로서의 서울을 그리지만, 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구체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받아들이며 실존적 장소이자 삶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그려낸다. 최인호는 도시에서의 개인의 위치에 대한 탐색을 거쳐 타인과 함께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 서울을 꿈꾼다.

최인호는 초기 소설부터 인간의 근원적인 장소인 집의 상실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서울에서 실존적 장소의 탐색을 시도한다.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은 장소 개념의 토대가 되는 그 장소에의 소속인 동시에, 깊고 완전한 동일시이다. 실존적 내부성의 자세로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장소의 일부가 되며 장소 역시 그의 일부이다.<sup>290)</sup> 최인호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집의 상실과 아파트로 인한 소외 문제를 통해 장소상실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서울의 장소성의 변화에 천착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의 내부자로서 장소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실존적 장소를 탐색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통해 타인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최인호는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견습환자」가 당선되어 등단한 후, 1970년대에 많은 중단편, 장편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문단으로부터 ‘도시적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sup>291)</sup> 특히 『문학과지성』의 편집동

290)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27면.

291) 최인호는 1963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벽구멍으로」를 통해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입선하였다. 1967년에 등단한 이래 「2와 1/2」(1967, 『사상계』), 「순례자」(1969, 『현대문학』)등을 발표하였다. 「순례자」, 「술꾼」(1970), 「모범동화」(1970), 「예행연습」(1971), 「처세술 개론」(1971) 등의 단편은 1966년에 군입대하기 전에 썼다고 한다.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여백, 2015, 162면) 작가가 된 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술꾼」이 『문학과 사회』에 재수록 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듯 최인호는 1960년대 후반에 등단하였으며 이때 쓰여진 작품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비평에서 197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호명된다. 김주연, 「산업화의 안팎-1970년대 신진소설가의 세계」(1973), 김병익, 「19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

은 최인호가 소설에 그린 도시공간과 산업화의 재현에 주목하였다.<sup>292)</sup> 이처럼 최인호는 당대의 비평가로부터 도시적 감수성과 도시적 병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소설을 주로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보거나 그의 소설에 드러난 도시성이 연구되어 왔다.<sup>293)</sup>

당대의 평단은 『별들의 고향』이 상업적 성공과 영화의 흥행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소설에 대해 상업문학과 현실도피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내놓았다.<sup>294)</sup> 이러한 당대의 반응은 이후 최인호 소설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반복되고는 했으며, 최인호 문학의 양면성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sup>295)</sup>

---

주연, 「대중문학 논의의 제 문제」(1978), 『문학사상』은 1975년 ‘1970년대 작가 특집’을 마련하고 그 첫 자리에서 최인호의 글을 싣고 있다. 최인호, 「그 견습환자의 자기진단서」, 『문학사상』, 1975.1.

292) 김주연, 「상업문명 속의 소외와 복귀- 최인호론」, 『세대』, 1974.5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8.

김주연, 「산업화의 안팎-70년대 신진 소설가의 세계」(1973),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김치수, 「개성과 다양성」, 『제3세대 문학: 최인호』, 삼성출판사, 1989.

김치수, 「산업사회와 소설의 변화」, 『한국의 문학비평』, 민음사, 1995.

293) 성현자, 「도시적 삶의 양식과 소설의 구조-「닭은 방들」, 「홍소」,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7, 1990.

이재선, 앞의 글, 1991.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2, 중앙어문학회, 2004.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 - 최일남·이동하·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이현진, 「최인호 소설의 도시 공간과 주체의식 연구 :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강유진,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집과 도시의 공간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55, 우리문학회, 2017.

김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최인호의 「타인의 방」과 채 영주의 「도시의 향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한민족문화학회, 2019.

294) 김현, 「초월과 고문-한 소설가의 세계 인식에 대하여」, 『문학사상』, 1973.4.

이보영, 「환상적 리얼리즘의 허실-최인호론」, 『현대문학』, 1980.

이동하, 「도피와 긍정」(1983), 『타인의 방』, 민음사, 1996.

295) 최인호 소설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되어 왔다. 최인호 소설



본고는 역사소설을 제외하고는 최인호 장·단편 소설의 배경 대부분이 서울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한다. 서울은 작가의 고향이자 최인호 소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마지막 창작인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2011)의 배경은 200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40년 전인 1971년에 창작된 「타인의 방」과 짝패를 이루고 있다.<sup>296)</sup>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는 197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30년 이상 종교와 역사 소설을 주로 창작하던 작가가 자신의 본령이 현대소설이라 생각하고 최초로 자발적으로 쓴 소설<sup>297)</sup>이라는 점에서 최인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참조점이 된다. 특히 이 소설에서 도시 공간을 전유하여 자아의 기억 찾기와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최인호의 도시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도시적 감수성의 차원이 아닌 서울에서의 장소 경험과 그로 인한 집의 상실이라는 실존적인 측면을 보고자 하는 본고의 참조점이 된다.

최인호의 ‘도시적 감수성’에 대한 논의는 인간소외나 도시적 병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대에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다루어졌다. 최인호의 「순례자」(1969), 「2와 1/2」(1967), 「미개인」(1971), 「침묵의 소리」(1971) 등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루어졌으며, 특히 「타인의 방」(1971)을 중심으로 도시인의 감수성에 대해 다루어졌다.<sup>298)</sup> 김현은 「타

---

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동하, 「도피와 긍정」(1983), 앞의 글.

김지혜, 「조숙(早熟)과 만숙(晩熟)의 경계 - 1970년대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9, 중앙어문학회, 2014.

296) 두 소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숙, 「자아 발견으로서의 변신 양상 연구 -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과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강유진,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집과 도시의 공간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55, 우리 문학회 2017.

297) 최인호,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여백, 2011, 5면.

298) 당대 비평에서 ‘도시적 감수성’에 대해서 인상비평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도시적 감수성의 특질에 대해서 논의한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오창은, 「도시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앞의 글.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주체의 반응’으로 보고, 짐멜과 쉴러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인호의 대표작인 「타인의 방」을 분석하고 있다.

인의 방」의 ‘아파트 생활자’와 현대인의 물화현상을 논했으며, 이동하는 최인호의 소설이 “현대 도시인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성감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데 실로 비상한 재주”가 있다고 평했다.<sup>299)</sup> 이러한 도시적 감수성은 당시만 해도 낯설기도 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기도 했다.

최인호가 도시 공간을 통해 도시적 감수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저항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의 소설이 도시공간에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국면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도시공간을 탈주하기보다는 삶의 공간으로 도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인호가 70년대 도시 풍경의 재현으로 공간과 주체의 공간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은 당대의 다른 작가와 달리 도시의 외연을 넘어서고 있다.<sup>300)</sup>

이처럼 최인호의 소설의 저항적인 측면을 부각하게 된 저변에는 최인호의 소설이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길항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도피적인 면모가 19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1970년대 후반 발표된 소설들은 도시의 혼육에 저항하려는 새로운 주체의 양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최인호 소설의 인물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sup>301)</sup> 이 논의들은 도시적 감수성이나 도시적 병리라는 당대의 비평의 반복을 넘어서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도시성을 적극적으로

---

299) 김현, 「재능과 성실성」, 『김현문학전집4』, 문학과 지성사.

이동하, 앞의 글, 429면.

300) 이평전, 앞의 글.

이 논문에서는 조세희 문학의 원천을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하층민들의 소외공간으로 읽거나 이문구 소설을 산업화에 따른 농촌 공간의 축소, 도시 공간의 확대로 분석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그것이 도시공간에 대한 위상학적 사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인호 소설이 위상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측면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글, 186-187면) 이들 작가와 최인호의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본고에서는 최인호 소설의 공간을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301) 박찬효,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보행자의 존재성과 도시 공간의 재장소화 양상」, 『현대소설연구』 60, 현대소설학회, 2015.

분석하여 주체화나 작가의식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인호 소설에 있어서의 도시성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토대로 본고는 최인호가 소설에서 도시가 ‘도시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였던 서울내기로서 서울의 장소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서울에서의 거주 문제에 천착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최인호 소설에 대해 산업화 시대의 인간소외 문제라는 이념적인 차원과 함께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서울에서 집의 문제를 통해 장소성의 변화를 포착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적 감수성’에 초점을 두는 편이었지만, 최인호 소설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근대화 양상과 이농이나 고향상실이 아닌 도시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의 소설이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아닌 서울에서의 서울의 이동, 서울의 변화를 보여주며, 서울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양가적 공간으로 서울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sup>302)</sup>

당대의 다른 작가들이 고향인 시골과 대별되는 것으로서의 도시를 그려낸 것과 달리 최인호에게 있어 “도시-서울은 고향이면서도 이방”이었다. 최인호의 소설에 나타나는 서울의 모습은 김승옥이나 이청준의 도시-서울의 모습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60년대의 소설에서 서울은 주로 진입해야 하는 장소였으며, 강간과 자살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고향과 다른 환멸의 공간(「역사」, 「환상수첩」)이었다. 이에 비해 고향은 “훼손되지 않은 원본이 존재하는 환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최인호의 소설은 서울에서 서울로의 이동, 서울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지방에 고향을 둔 하숙생이나 이주민이 서울을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한 것에 비해, 최인호의 소설에서는 서울이 “점차 확장

---

302) 강유정, 「최인호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집>의 상징성 연구」, 『인문과학논집』 27, 2014,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8-10면.

되는 생명체”로 그려지며 서울의 변화상이 드러난다.<sup>303)</sup>

이 점은 서울을 추상적인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본고의 참조점이 된다. 특히 최인호가 다른 작가들과 서울을 다르게 인식하였으며 서울의 변화상이 드러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서울의 내부자였던 최인호가 장소성 상실로서의 서울을 인식하면서도, 서울을 삶의 공간으로서 받아들이면서 타인과의 친밀감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즉, 국가주도의 도시개발로 인해 장소애(topophilia)의 대상으로서의 서울은 상실되었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 장소의 의미를 남녀 간의 사랑과 타자에 대한 탐색을 통해 만들어갔음을 고구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현재의 서울을 생각할 때 근대도시로서의 서울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19세기부터 500여 년간 유일한 도시였던 한양에서부터 서울의 역사는 시작된다. 조선을 거쳐 개항에 이르는 동안에도 한양은 ‘상인과 서민의 도시’로 변해갔으며, 개항 이후 식민지 시기 일본인에 의해 도시개발이 되고 근대적 소비문화 또한 유입되었다. 광복 이후 급속한 성장으로 서울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나 엄청난 팽창을 하게 되는데 국가 주도의 개발은 이러한 서울의 급속한 성장을 가속화시켰다.<sup>304)</sup> 이는 가히 ‘서울의 탄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러한 ‘서울의 탄생’은 국가 주도의 도시개발로, 1966년 김현옥 서울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서울은 항상 ‘공사중’이었다. 서울은 ‘사대문’에서 서울 외곽의 변두리까지 확장되고 점차 현재 서울의 모습으로 팽창하면서 변화해갔다.

서울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어도 ‘서울 사람’은 없는 도시”라는 인식은 서울에 이른바 서울 토박이보다 타향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sup>305)</sup> 하지만 서울에서 태어나거나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에게 서울이란 장소애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조해일이 왕십리를 추억의 ‘장소’로 회상하듯

---

303) 위의 글, 9-10면.

304) 이영석·민유기 외, 앞의 책, 18-37면.

305) 정송교·김영미, 「서울의 인구현상과 주민의 자기정체성」,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32면.

이 최인호는 자신이 태어난 서울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내기였던 최인호는 이러한 서울의 변화상을 감지하고 그 변화상을 소설에서 재현하고 있다. 최인호의 초기의 소설에서 서울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서울로 탄생하는 변화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서울이 상경민들 혹은 이주민들이 ‘서울사람’으로 탄생하는 과정이었다면<sup>306)</sup> 서울내기인 최인호에게 있어서 서울은 고향이 아닌 ‘집’의 상실로 드러난다. 상경민이자 이주민들이 도시에서 자리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면, 서울내기들은 ‘집’을 잃거나 떠나야했다. 집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서 렐프적 의미의 ‘진정한 장소감’을 현시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sup>307)</sup>, 자본화된 도시 서울에서 집은 진정성을 잃고 ‘무장소placeless’적인 공간이 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sup>308)</sup>

최인호의 소설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 중 대다수가 「타인의 방」에 새롭게 등장한 도시적 공간인 아파트에 주목을 한다. 1971년 당시만 해도 낯선 공간이었던 아파트를 다룬 「타인의 방」에 대해서 최인호의 도시적 감수성이 더하여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타인의 방」에 대한 평가는 소설의 공간인 아파트에 대한 상반된 해석 즉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로 보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자유의 측면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석과 평가는 1970년대 아파트와 관련한 논문에서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다루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를 내놓는다.<sup>309)</sup> 하지만

---

306) 김문정, 앞의 글.

307)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6-100면.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이 토대, 즉 존재의 거주장소dwelling-place of being이다. 집은 단순히 당신이 어쩌다 우연히 살게 된 가옥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인 것이다.” 같은 책, 97면.

308) “무장소성이라는 것을 후기 산업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단순화시키고, 더 나은 계획과 설계를 통해 이 무장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무장소성이 일종의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가 점점 지배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깊이 있는 장소감을 가지거나 장소를 진정하게 창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위의 책, 179면.

309) 오창은, 「도시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앞

최인호에게 있어 아파트는 집을 상실하게 된 정황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최인호 초기 소설에서 있어서 도시는 항상 ‘개발 중’이다. 「2와 1/2」(1967), 「무너지지 않는 집」(1968), 「순례자」(1969)는 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서울은 고정된 공간 혹은 실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늘 ‘개발중’에 있으며 자본에 의해 지어지거나 부숩진다. 자본화된 도시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영원불변하여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채무’로 인하여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인부들이 부수는 그녀의 집은 본디 어렸을 적 내가 살았던 집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채무로 인해 집을 빼앗겼듯이 나의 아버지 또한 채무로 인하여 집을 빼앗겼던 것이다.

“빨리 결판을 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집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많은 빛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망할 놈의 자식이 빚만 안고 쓰러져버렸거든요. 별수 없이 왕초가 이 집을 차압했지요. 그리고 이 집에 큰 음식점을 짓는답디다요. 다행히 우리는 부수는 작업과 다시 짓는 작업을 둘다 청부 맡았지요. 헛허허.”

나는 대꾸 없이 하나하나 무너져내리는 그 집을 쳐다보았다.

방금 그 집의 지붕은 거의 그것과 같은 이빨에 절반이나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기계충에 반쯤 머리털이 빠져버린 빈민의 아들처럼 불쌍사나웠다. 이제 그 집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지붕도, 벽도, 나무도, 또한 과거의 영화와 저 썰렁하고도 비릿한 인간의 때, 수십 년을 두고 내려온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도 함께 모두 허물어져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무너져버린 죽은 자의 슬픔 위에 새 기쁨이 설 것이다.<sup>310)</sup>

자본화된 도시에서 집은 돈으로 교환 가능하므로 자본의 증식을 위해 빨리 부숩버려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집은 안식처가 아닌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상가로 탈바꿈된다. 집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스며있던 기억과 감정 또한

---

의 글.

이평전, 「‘아파트’ 건축과 공간 질서의 생성과 파괴-19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10) 최인호, 「무너지지 않는 집」, 『최인호중단편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2, 54-55면.

사라진다.

도시 서울에서 집이 진정성을 상실한 공간이 되어버린 정황은 「순례자」에서 또한 포착된다. 이들은 ‘진정한 장소’로서 집을 찾아 떠나지만 이미 ‘집’은 교환수단으로 전락했다. 「순례자」에서 나는 어머니와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거룩한 순례’를 시작한다. 이들은 집을 판 돈으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교외의 양옥집을 구하고자 수유리로 향한다. 그동안 어머니는 집에 세를 놓거나 팔아 자식들을 키워내고 교육을 하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집’을 돈으로 교환하여 필요한 돈을 충당하여 형제들을 키워왔으며, 집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도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시골과 달리 도시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는 한 생산수단이 없으며, 생산을 하지 않는 이들은 자본의 증식은커녕 보존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본의 축소는 집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을 팔 때마다 사실 어머니는 주름살이 두어 개씩 늘곤 하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오늘날까지 십오륙년 동안, 별이 하나 없이 우리에게 오직 집을 줄이는 것만이 가장 큰 수입이었기 때문이었다. 큰형이 대학교 들어갈 때엔 아랫방에 세를 주었고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집을 팔았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사가는 집은 으레 방이 서너 개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인방을 제외한 문간방은 막내아들 중학교 등록금용이요, 사랑채는 비싸만 가는 내 대학교 입학기 등록금용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세를 줄 방이 없으면 어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내놓았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를 갈 때마다 언덕 하나를 넘어야 했고, 나중엔 둘, 다음엔 네 개, 학교에 가려면 처음엔 도보로 십분 내로면 충분하던 것이 버스 다섯 정거장, 처음엔 수돗물이 팔팔 나오다가도, 다음엔 공동 수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한 바깥씨의 수돗물을 날라와야했고, 후엔 숯재 저 언덕길 아래에서 허이허이 땀을 흘려가며 펌프물을 길어와야 했던 법칙에 이미 익숙해 있어서 이번엔 적어도 언덕 다섯 개 이상과 시내로 내려가려면 버스 정류장 열다섯 개, 우물물을 먹고 배탈이 날 계라는 각오쯤은 하고 있었다.<sup>311)</sup>

---

311) 최인호, 「순례자」, 앞의 책, 72면.

「순례자」에서 ‘집’은 자본화되어 이들 가족의 생존 기반이 된다. 도시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닌 ‘돈’인 것이다. 집이 이백만원에 팔렸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집의 가치가 대들보나 뼈대가 아닌 ‘돈’으로 환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장마철에 산사태가 날지 걱정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 장’에 팔렸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이왕 멀리 갈 바에야 독방과 ‘문화인’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교외의 싼 집을 사자는 아들들의 말에 모자는 ‘교외’로 집구경을 가게 된다. “조선집을 사지 말고 양옥집을 샅시다”라는 아들들의 애원으로 신흥 주택단지가 생긴다는 수유리쪽으로 나선다.

그래 아예 멀리 갈 바에야 ‘두 장’에서 문간방과 건넌방의 전셋돈, 복덕방비와 잡비를 제외하고 남은 ‘한 장 반’의 우수리도, 아예 툭 떨어진 교외에 싼값으로 아담한 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우리가 기껏 집 팔아 공부해서 얻은, 무형의 재산인 ‘문화인’답게 텔레비전도 놓고, 전화도 놓고, 막내동생 소원인 전축과 재즈 판, 나의 소원인 아담한 내 서재와 맘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독방, 그리고 은밀한 눈빛으로 책상 위를 비추는 갓 스탠드, 이런 것도 장만해놓자고 우리들은 결의했다.<sup>312)</sup>

이 소설은 70년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도시에서 ‘집’이라는 가치가 ‘보금자리’가 아닌 ‘자산’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70년대의 아파트 개발 및 강남 개발 그리고 아파트 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들이 도시에서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이 점차 확장되어 감에 따라 교외라고 생각하여 만만히 보았던 수유리의 집 또한 이제는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

312) 위의 책, 73면.



어느 틈엔가, 사람이 살지 않았고 그저 시냇물이나 흐르며, 가까운 국민학교에서 소풍나와 도시락을 까먹던 교외의 수유리도 이제는 버젓이 땅값을 올리고, 하루의 일과인 양 재건축조 하듯이 집값을 올리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별 괴상한 치미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버린 모양이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신혼 사관학교 일기생들이, 자기들이 이루어놓았던 황량한 별판의 보금자리가 차츰 차츰 비싸진다는 사실이, 김장을 담그고, 구공탄을 사들이는 소꿉장난보다도 더 신나는 것임을 일찌감치 터득한 모양이었는지 그저 벽돌로나 집을 짓고, 인조대리석을 몇 개 붙이고, 변소보다 작은 가스 사형실 같은 목욕탕이 있는 집이면 무조건 ‘두 장’이었다.<sup>313)</sup>

교외라고 생각했던 수유리의 변화는 실로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주말 도봉산으로 등산 가는 사람들과 통기타를 치는 청년이 있는 버스 안의 풍경은 마치 나들이를 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고 혜화를 거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길은 나에게 서울 도심에서 멀어진다는 비애를 안겨주지만 “저 소음이 피는 도시가 사장을 핏는 파도처럼 아득히 먼 그러한 곳”에 대한 기대를 안고 수유리에 도착한다. 하지만 복덕방 노인의 안내에 따라 집을 구하려 다니면서 수유리가 더 이상 교외가 아니며 집값이 상승하였다는 사실과 마주친다. 가족들이 원하는 이상과 가까우면서 ‘두 장’에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요원해 보일 때, 비탈길에 우뚝 서 있는 빨간 벽돌집을 발견한다. 네 개의 방과 옥상과 베란다가 있으며 정원이 있고 장독대가 크며 펌프가 있어 모자의 마음에 꼭 들은 집은 게다가 ‘한장 반’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자는 비로소 가족의 보금자리로서의 ‘집’을 찾았다는 생각에 만족해 한다.

아, 아, 저것이 우리집이다. 우리의 보금자리이다. 동리 아낙네들끼리의 싸움 소리. 손님을 부르는 장사치 소리. 앞집의 전화벨 소리. 우물물처럼 탁한 인정. 그 모든 것이 우리들만의 집이다.<sup>314)</sup>

나는 드디어 ‘우리집’으로 명명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

---

313) 위의 책, 80-81면.

314) 위의 책, 87-88면.

도하지만 알고 보니 그 집은 6. 25이후로 무덤 자리로 집에 든 사람들이 불구가 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죽는 ‘흉가’라는 것이다. ‘장소’로서의 집을 상실한 순간 수유리 거리의 풍경은 을씨년스럽게 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동네는 냄새를 풍기는 곳으로 인식된다.

모자는 결국 도심을 벗어난 교외에서조차 보금자리를 얻지 못한 채 순례를 마친다. 이 소설에서는 당시 도심에서 밀려나는 도시민의 모습과 교외의 새로운 주택단지 건설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도시인들이 ‘보금자리’로서의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을 암시한다. 어머니가 ‘장미원’을 보면서 “아아, 난 여기에 집을 짓고 싶다. 오래도록 여기서만 살고 싶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이다”<sup>315)</sup>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현실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2와 1/2」에는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분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서울시장의 공고를 보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야 하는 남성이 나온다. 서울시장의 공고(명령)는 절대적이어서 이 공고에 대해 남성은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새로운 서울”이 무덤 위에 솟아난다. 죽은 자 위에 산 자들의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죽은 자-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서민적인 희생’으로 일제에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서울이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주 적은 시간 이외엔 끊임없이 혹사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요일 오후까지, 어떤 때는 일요일까지도 나는 근무를 해야 했고, 그것은 이번주만이 아니었다. 어제, 그제,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줄곧 부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본의 아닌 아픔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집단적인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따스한 체온을 나누려면, 그저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거나, 시민증을 꼭꼭 가지고 다니거나, 국민의 의무인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고, 군복무를 필한다는 자격 이외에도, 예방주사처럼 합리화된 독소에 몸을 떨어야 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네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가령 투표를 한다는 최대의 권리 밖에서 사회는 움직여지고 있었고, 그저 나는 언제나 아픈 곳이라고는 없이 생이빨을 빼

---

315) 위의 책, 91면.

야 하는 듯한 본의 아닌 아픔 속에서 양순하게 사육되어 온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내가 신화처럼 존경하는 아버님은 일제 강점기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본놈들에게 처형된 사람이었다. 마치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어처구니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께겐 아주 서민적인 퇴폐한 도덕이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나 내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것처럼 서민적인 희생 같은 것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박판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단지 내가 이 판에 끼어들어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불안의식과 체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만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돈을 따고 잃는 것은 그들의 권리요, 훈장을 나눠달고 마침내 열쇠장수처럼 온몸에 훈장을 달고 찢그렁 거리는 분열식을 올리는 것은 모두 그들의 것이었다.<sup>316)</sup>

앞선 소설들이 1960년대 후반에 창작되거나 발표되면서 도시, 도심 개발로 인한 서울의 변화상과 '집'의 상실로 인한 장소성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미개인」(1971)은 소위 강남 개발로 인한 장소성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미개인」은 강남 개발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욕망이 심화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폭력성과 광기를 그려내고 있다.

「미개인」은 1969년 실제 사건을 소설 속 주요 소재로 삽입하면서, 시간적 배경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9년 대왕국민학교 학부형들이 당시 성동구 내곡동의 에팅저(Ettinger) 마을의 미감아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등교 거부하였던 사건을 주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로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1950년대 말부터 집행되고 1960년대 한센인 정착 사업이 진전되면서 한센인 자녀의 취학 문제가 수면에 떠오른다. 1958년 대전 동광교, 1964년 월성군 물촌교, 1960년대 부산 일광교 등에서도 한센인 자녀의 취학을 둘러싼 분규가 발생하는 등 한센인 자녀에 대한 등교저지와 차별이 발생했다.<sup>317)</sup>

316) 최인호, 「2와 1/2」, 앞의 책, 42면.

317) 김려실, 「1970년대 생명정치와 한센병 관리정책: 김정한의 「인간단지」와 최인호의 「미개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2016, 285면.

김려실은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 소설이 한센병 관리 정책의 모순을 재현하였다고 본다. 즉 언론에서 이 사건이 학부모의 몰상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 반면, 최인호는 한센인에 대한 배제의 정치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이다.<sup>318)</sup> 송은영 또한 미개인이 “공동체의 행복과 질서라는 목표 뒤에 숨겨진 배제와 추방의 논리”<sup>319)</sup>를 서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박정희 시대의 생명정치라는 맥락에서 후자는 이 시기의 ‘조국 근대화’를 위시한 국가 폭력과 거대 자본 중심의 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배제의 논리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시공간이든 실제의 장소를 반영한 것이든 간에<sup>320)</sup>, 이 소설 속의 장소가 단순히 소설의 배경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며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이 한창인 남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불도저가 웅웅거리는 소리는 이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S동의 장소성의 변화로 인한 배제와 추방의 광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월남에서 돌아온 ‘나’는 제대 후 최근에 서울시에 편입된 남서울 근처의 학교로 부임 받는다. ‘나’가 S동에 가서 마주치는 것은 “불도저가 왕왕 거리며 산턱을 깎아내리”는 풍경이다. 이 소설의 도입부의 최근 서울에 편입된 ‘S’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지금의 강남이 탄생하는 순간

318) 위의 글, 286면.

319) 송은영, 「1970년대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최인호의 『미개인』과 『예행연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18면.

320) 송은영은 이 소설이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와 다른 가상의 시공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려실은 실수로 보인다고 했고, 남서울 변두리의 s동이란 세곡동이며, 개미마을이라는 이름의 문둥이촌은 내곡동의 음성자 정착촌 에턴저 마을, 문둥이의 아이들이 배로 통학하는 썩어가는 냇강은 두 동리를 가로지르는 세곡천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려실, 앞의 글, 286면.

이후 후속 연구인 『서울탄생기』(2018)에서 송은영은 왜 허구적 공간이라 보았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즉 대왕교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69년 4, 5월인데, 소설 속에서는 대전, 부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 것이 1970년 7월 이후이기 때문에 소설 속 공간이 실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S’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허구적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송은영, 같은 책, 372면.

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S동은 아직 농촌의 분노 냄새가 풍기고 있으며 도로 또한 정비가 안되고 불도저 소리가 끊이질 않고 낡은 다방이 있는가 하면 간이 막사가 들어서 있는 낡음과 새로움이 뒤섞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질퍽이는 땅 위로 대전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시원하고 넓다. 이 넓고 시원한 고속도로의 개통과 쉬지 않고 공사중인 불도저는 삶의 터를 파괴하고 있는 중이지만, S동 주민들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열망으로 흥분이 가득 차 있다.

S동, S동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은 한마디로 요란스런 동리였다. 언제나 땅은 질퍽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생선 장수처럼 장화를 신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편에선 불도저가 왕왕거리며 산턱을 깎아내리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농촌 특유의 분노 냄새가 풍기고 있는 거리였다. 거리 양 옆엔 간이막사 같은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빼격이는 의자가 있는 다방이 있기도 했고, 석유를 파는 노점이 있는가 하면, 유난히 정결한 느낌을 주는 주유소가 서 있기도 했고, 여관과 터키탕이 세워져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물 옆엔 아직 이장이 끝나지 않은 때 문인가 묘지들이 드문드문 양지바른 곳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매우 엄중한 문구로 몇월 며칠까지 연고자가 없어 이장되지 않는 묘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판을 보았다. 그 경고판은 산비탈길에 우뚝 서서 위엄을 떨치고 있었다. 거리 옆으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시원하고 넓은 고속도로 위로 매끈한 차들이 썩썩이며 대전으로, 부산으로 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땅값이 뛰고 있었다. 유난히 질퍽거리다가는 유난히 먼지가 피어오르는 거리로, 납작한 세단들이 소달구지를 피해가면서 이곳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와서 쑥덕이는 흥정을 하고는 사라져버리곤 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뛰어오르는 땅값에 반쯤 혼이 나가서 모두들 앞니 빠진 유아 같은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까지의 밭을 가지 않고, 그곳에 대신 벽돌 공장을 세우거나 그것도 아니면 복덕방으로 전업을 해버리고 말았다. 처음에 그들은 혹 다음날이면 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땅값이 수그러들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얼마만큼씩 땅을 처분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그저 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이, 재산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 버스의 노선은 연

장되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새로운 소형 문화주택이 밭 가운데 서기 시작했다. 거리거리엔 살아간다는 사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이나 하는 듯한 시끄러운 동요가, 아우성이 물결치고 있었다. 이 추세로 보면 그들은 모두 신흥 재벌이 될 판이었다.

다행스러운 호경기가, 간밤에 달을 먹는 꿈을 꾸고 주택복권을 사서 일들에 당첨되었다는 조간신문의 기사가, 먼 곳의 일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나 내 눈엔 오히려 그들이 갑자기 정장한 그 차림새에 반비례해서 더욱 촌스러워보였고 야만스러워 보이기도 했다.<sup>321)</sup>

1967년에 건설이 결정된 경부고속도로는 구간 별로 개통이 되었는데, 대전, 부산으로 가는 구간이 준공되어 자동차들이 달리게 된 것이 1970년 7월 이후였으므로<sup>322)</sup> 송은영의 판단대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과 대왕교 사건 사이에는 시기적 낙차가 있다. 문제적인 것은 미감아들에 대한 배제에 내재된 원주민들의 욕망과 당시 서울의 개발에 내재된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 당시 영동 지구였던 세곡동의 장소성이 효과적일 거라는 작가적 판단이다. 강남의 본격적인 개발이 1972년부터 이루어졌으며 1970년 전후의 영동지구가 허허벌판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세곡동의 변화에 대한 예리한 포착은 서울이 고향이었던 최인호와 가족이 서울의 팽창과 자본의 부족에 의해 도심이었던 종로에서 당시 번두리였던 북아현동으로 비자발적인 이동을 통해 체득한 서울의 자본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작용한 바도 적지 않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재벌이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강 건너 나병 환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애써 싹튼 경기(景氣)의 씨를 스스로 짓밟는 결과”<sup>323)</sup>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광기의 빛을 띠게 된다. 이러한 광기는 불도저가 밤낮없이 작업하면서 내는 소리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샛강 건너의 개미마을의 분교가 본교에 편입되면서 음성 나환자의 자녀들이 본교에 등교하게 되면서 생긴 아이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에 S동 부모들

321) 최인호, 「미개인」, 앞의 책, 250-251면.

322)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 이야기 1』, 앞의 책, 209-215면.

323) 최인호, 「미개인」, 앞의 책, 275면.

이 학교에 찾아와 미감아들의 등교를 반대 거부한다. 이들이 문화인을 자처하며 “문둥이 새끼”들과 자신의 아이를 같이 교육 시킬 수 없다며 학교 교장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현실에 정선생이 자조하며 그들이 문둥이 아이들을 죽일 거라고 예견할 때, 미감아들을 옹호하는 ‘나’에게 사내들이 찾아와 나를 협박할 때, ‘불도저가 뽁뽁 거리는 소리’는 배경 음악처럼 이 소설에서 수시로 등장하면서 광기와 폭력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가) 이보시오, 선생. 고상한 말 쓰지 마시오. 당신만큼 우리도 문화인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환자가 아니라 문둥이요. 더럽고 축축한 문둥이 새끼요. 그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애들은 더럽고 축축한 문둥이 애들이 아닙니다. 이 봐요, 선생. 소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이없는 듯 꺾꺾거리면서 말을 했다. 그렇다면 선생은 문둥이하고 악수도 해 보이겠소?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 일테면 그것이라도 할 수 있겠소? 이러지 마시오, 헛허허. 어디선가 불도저의 뽁뽁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갓 도배질한 벽 안쪽에서 서서히 썩어들어가는 강한 부패의 향기가 났다.(…) 죽은 자의 무덤은 서서히 이장된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불도저는 새로운 주택단지를 형성한다. 그 위에 아름다운 소형 주택이 건립된다.<sup>324)</sup>

(나) 우리는 지금 오로지 까뭉개고 부수고, 가진 것을 박살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소. 그런데 그런데 말이오. 우스운 것은 일단 부숴놓은 것은 추린단 말이에요. 부술 때는 언제고, 파편 조각을 들고 올 때는 언제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스카치 테이프로 합리화 시키거든. 일단 부숴진 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댕자, 이미 견인력이 상실된 것이 붙여지겠소? 무슨 소린 줄 알겠소?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아주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멋대로 상상하시오. 어디선가 불도저의 뽁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sup>325)</sup>

(다) 어디선가 불도저의 뽁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강 건너 사방에 격리된 작은 땅에 그들의 살림처를 구해주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말하자면 남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선생, 선생이 역설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그들끼리의 모랄이 아

---

324) 위의 책, 260-261면.

325) 위의 책, 265면.

니겠소. 그들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들 문둥이끼리의 사회 밖, 구태여 정상인 우리들의 마을로 침범해온다는 것은 악랄한 처사요, 우리들을 비문화인 취급하고 있는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때 저 강 건너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져 우리 마을로 들어온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애써 짝튼 경기(景氣)의 씨를 스스로 짓밟는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눈썹 없는 얼굴로 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활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이 마을이 문둥이촌 되어버리는 꼴을 말입니다.<sup>326)</sup>

(가)에서 아이들이 음성 나환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며 유전되는 것도 아니라는 ‘나’의 말에 학부모는 우리도 ‘문화인’이라고 응수한다. 선조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시절에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문화주택이 생기는 동네의 변화는 이들이 스스로를 ‘문화인’으로 자처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강변에서 개를 잡아먹고, 약자인 미감아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미개인’이며 개발을 통한 근대화 또한 ‘미개한’ 행위임이 은연 중 폭로된다. 식민지 시기 태어난 정선생은 그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살인과 방화 약탈”에서 비껴나가면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뚜렷한 대상 없이 죽창을 들고 서 있는 셈”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말한다.

인용문(나)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란 파괴하고 건설하는 도시 개발을 통한 자본주의적 광기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을 모아 선동하는 청년은 “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살고 있어야 할 문둥이 자녀들이 우리 땅을 넘보고 있는 것”<sup>327)</sup>이라고 선동한다. 문둥이들에 의해 자신들의 ‘장소’가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이 주장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설득력을 획득한다. 즉 문둥이 동네라는 오해 때문에 오르던 땅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는 주민들이 미감아들을 추방하여 자신들의 ‘장소’를 지켜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배제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

326) 위의 책, 274-275면.

327) 위의 책, 268면.



S동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도저의 뿔뿔거리는 소리’는 극단적 이기주의 조차 합리화시키며, 도시 개발로 인한 서울의 한 동네의 장소성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흥분과 폭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인호는 서울의 도시개발에 의한 집의 상실로 인한 장소성의 상실과 도시 개발(강남 개발)로 인한 장소성의 변화를 통해 서울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였다. 「미개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소의 변화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 또한 초래한다. 집이 개인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의 토대 즉 존재의 거주 장소(dwelling-place of being)라고 할 때<sup>328)</sup> 도시개발로 인한 집의 장소성의 변화는 도시민들의 정체성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파괴되고 건설되는’ 서울의 도시개발로 도시민들은 도심에서 번두리로 거주 장소를 옮기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시 개발로 인해 ‘새로운 서울’은 계속 확장되지만 도시민들은 진정한 장소인 ‘집’을 상실한다. 이러한 ‘집’의 상실은 「타인의 방」에서 ‘아파트’라는 현대적 주거공간의 등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아파트는 1970년대부터 문학의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작가들이 상경민이나 영세민, 철거민의 시선에서 그려낸 것과 대조된다.<sup>329)</sup> 그는 “아파트에 사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아파트의 속살을 그려낸 최초의 작가”인 것이다.<sup>330)</sup>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으로 도시빈민의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도입된 아파트는 주거공간의 획일성, 익명성, 무관심 등 부정적인 공간으로 묘사되며 구별짓기와 계급의 분화를 보여주기도 하며, 「타인의 방」 또한 소외와 정체성의 부재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sup>331)</sup> 하지만 「타인의 방」에는

---

328) 에드워드 켈프, 앞의 책, 97면.

329) 조정래의 『비탈진 음지』(1973)에서처럼 상경민의 시선이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78)이나 윤흥길의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에서처럼 영세민이나 철거민의 시각에서 그려졌다. 그곳은 상상할 수조차 없도록 비싼 것으로서 이제 막 상경한 촌놈이 감히 소유해 볼 엄두도 없는 고가의 물건이었다. 이경재, 『한국현대문학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2017, 269-270면.

330) 위의 책, 271면.

아파트의 내부자의 시선으로 삶의 공간으로서 아파트의 안락함과 편리함 또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에 「견습환자」에서부터 ‘아파트 생활자’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최인호는 「타인의 방」에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생활자’를 그려냈다고 평을 받는다. 이때 아파트는 대도시의 삶을 압축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타인의 방」은 아파트라는 공간을 통해 ‘도시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한편 ‘현대인의 물화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잠자는 신화」 연작에서까지 이어져 천편일률적인 삶을 사는 기능인의 왜소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sup>332)</sup> 당대에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도시의 삶의 양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인호는 아파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했던 당시 엘리트들<sup>333)</sup>과 달리 현대적인 삶의 공간으로 인정하면서도, 거리감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서 물화현상이나 소외의식의 주제의식만큼이나 주목되는 것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장소가 독자에게 주었을 감각적인 측면이다. 1971년에는 아직 아파트가 낯선 공간이었던 만큼 사내의 동선을 따라 제시되는 아파트의 공간과 삶의 모습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내가 피로해 하고 고독을 느끼는 와중에 그의 동선을 따라 묘사되는 아파트는 매우 현대적인 장소이며, 아파트라는 공간이 가진 장소성에 의해서 이 인물이 당대의 도시인으로 규정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1930년대에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이나 채만식의 「염마」에도 등장하지만 이때 아파트는 부정적인 공간이나 임시 거주 장소 정도로 등장한다.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유입 인구의 증가로 주거공간이 부족하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수 많은 집 중 아파트

---

331) 이평전, 「‘아파트’ 건축과 공간 질서의 생성과 파괴-19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147면.

332) 김현, 「재능과 성실성」(1974), 『문학과 유토피아, 공감의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2, 193면.

333)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문학과 지성사, 1993.

는 주거공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sup>334)</sup> 1958년에 광복 이후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건설되고, 대한주택공사가 1961년에 착공한 마포아파트가 건설된다. 마포아파트는 초기 입주자가 전체의 10%도 안되었지만, 이후 문학가 화가 등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의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으로 점차 자리잡는다.<sup>335)</sup>

1966년 창작된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마포아파트는 풍경으로 등장할 정도로 이질적이지만, 마포아파트의 성공을 토대로 대한주택공사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 동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 단지(1968년 건립, 34동 1,313가구), 한강맨션아파트 단지(1970년, 23동 700가구), 외국인아파트(18동 500가구)를 건립하는데, 마포아파트가 15평 이하의 소형 평수였던 것과 달리 이 아파트들은 15평에서 55평의 규모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으며, 이후 민간업자들이 민영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sup>336)</sup>

즉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이며 연탄을 사용하였던 마포아파트가 큰 주목을 끌지 못한 것과 달리 동부이촌동 대규모 아파트의 큰 평수로 기름 보일러식 중앙난방을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소거되기에 이른다.<sup>337)</sup> 점차 아파트는 대도시 서울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기 전인 1971년에 쓰여진 「타인의 방」에서 아파트는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아파트 복도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욕실로 욕실에서 방으로 그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묘사되는 집의 내부와 그의 행동을 통해 현대적이고 서구적이며 편리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생활이 묘사되고 있다. 최인호 특유의 도시적인 문체와 도시적 감수성을 더해 아파트의 현대적이며

---

334) 손종업, 앞의 글, 245-247면.

335)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앞의 책, 275-279면.

336) 위의 책, 275-282면.

337)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34-36면.

편리한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그는 방금 거리에서 돌아왔다. 너무 피로해서 쓰러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서 자기 방까지 왔다. 그는 운수 좋게도 방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아파트 복도에도 사람은 없었다.<sup>338)</sup>

「타인의 방」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신의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소설은 그의 동선을 따라 아파트란 현대적인 장소로 독자를 초대하고 있다. 독자는 그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아직은 낯선 아파트의 내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거주 장소로서의 아파트 생활을 간접경험하게 된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웃을 뒤로 한 채 문을 열고 들어와 아내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출장에서의 피로감으로 지쳐 분노한다. 하지만 스팀기운이 새어나갈 틈이 없는 거실을 지나, 욕조가 있으며 더운 물이 나오고 샤워할 수 있는 욕실에서 피로를 풀면서 “역시 집이란 아늑한 곳”이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며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욕실을 나와 한결 서늘한 거실 찬장 속에서 분말 주스와 설탕을 끄집어낸다. 그는 바닥에 가루를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면서 주스를 타고 설탕을 서너 숟갈, 그러다가 드디어 거의 열 숟갈도 더 넣어버린다. 그것에 그는 차가운 냉수를 섞는다. 그리고 손잡이가 긴 스푼으로 참을성 있게 젓는다. 그는 컵을 들고 한 손으로는 스푼을 저으면서 전축 쪽으로 간다. 그는 많은 전축판 속에서 아무 판이나 뽑아든다. 그는 음악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전축에 전기를 접속시키자, 전축은 돌연히 웅거리면서 내부의 불을 밝혀든다. 레코드판 받침대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한다. 그는 원반을 가볍게 날리는 육상 선수처럼 얇은 레코드를 그 받침대 위에 떠올린다. 바늘이 나쁜 전축은 쉼쉼 잡음을 내다가는 이윽고 노래를 토하기 시작한다. 그는 음악을 들으면서 소파에 길게 눕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는 안정을 느낀다.<sup>339)</sup>

---

338) 최인호, 「타인의 방」, 앞의 책, 183면.

339) 위의 책, 192면.

이처럼 최인호의 소설에서 아파트는 대도시인 서울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드러내면서 「타인의 방」을 비롯하여 「전람회의 그림」-식인종, 「개미의 탑」에서 주로 젊은 부부나 젊은 여성이나 독신남성 인물들의 거주 공간으로 등장한다. 소위 도시인의 현대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한편 현대인의 고독이나 소외나 단절을 주제화하고 있다.

「전람회의 그림」에는 당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의 면모가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대부분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랜 전세방을 뛰쳐나온 서민층이나 갓 결혼해서 주책없게도 대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키스를 입이 부서져라 해대는 신혼부부들로, 그래도 자기들을 책깨나 읽고 음악깨나 듣는 인텔리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의 아파트는 꽤 인기 있는 살림처로, 뭐랄까 저녁녁이면 슬리퍼를 끌고, 자기애들 유모차에 태우고, 오르락내리락 아파트 앞 공터를 오가며 어설픈 외국영화 흥내를 내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환영받기엔 아주 안성맞춤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sup>340)</sup>

당대의 아파트가 젊은이들에 인기였음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1970년대 아파트 담론을 보면 70년대에는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담론, 획일화와 고립 등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웃과의 단절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음을 볼 수 있다.<sup>341)</sup> 이러한 당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앞서 「타인의 방」에서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았어도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상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전람회의 그림」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의 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 구조란 것은 기묘한 것이어서, 같은 건물 속에 살고 있는 동거인이면서

340) 최인호, 「전람회의 그림 3」, 앞의 책, 183면.

341) 김혜숙, 「아파트 생활기사의 주거 담론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2),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14, 140면.

도 엄격한 타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구조 골격으로 빚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42)</sup>

이웃을 “엄격한 타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아파트의 구조’로 인한 것으로, 아파트는 영화배우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공간에 산다는 만족감을 주지만 이러한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이웃을 공포의 대상인 ‘식인종’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 ‘유령’으로 대상화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식인종’으로 오해받던 이웃은 평범한 사내에 불과하였으며 행방불명되었던 아이는 식인종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출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진다.

꼬마가 발견된 것은 경찰에 의해서였다. 녀석은 서울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잡힌 순간에도 손에 훔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소년을 집으로 데려올 해도 막무가내로 집에 오려 하지 않더라고 했다. 경찰이 그 이유를 묻자 집이 무서워졌다고 선선히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왜 집이 무서워졌는지 경찰이 다시 묻자 소년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이 무섭더라는 것이었다.<sup>343)</sup>

어린이에게 있어서 집은 안전한 장소로 느껴져야 하지만 꼬마에게 집-아파트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꼬마에게 집은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344)</sup> 이처럼 최인호는 단편 소설에서 아파트를 매력적인 공간이자 장소상실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단편소설에서 ‘진정한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그려냈다면, 장편소설인 『별들의 고향』, 『도시의 사냥꾼』, 『천국의 계단』, 『불새』 등에서는 젊은 남녀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인호는 도시 개발로 인한 집의 상실과 새로운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등장을 통해 서울의 장소성의 변화를 예리하게 그려내는 한편, 아파트라는 새로운 장소를 서

342) 최인호, 「전람회의 그림」, 앞의 책, 184면.

343) 위의 책, 192-193면.

344) 투안은 장소가 안전(security), 안정(stability)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맥락에서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이푸 투안, 앞의 책, 222면.

울의 주거공간의 하나로 수용하였다. 즉 최인호에게서 아파트는 ‘물리적 장소’로서 다가오는 한편 “유표화(marked)된 ‘공간’적 의미체”이기도 했던 것이다.<sup>345)</sup> 1970년대 초 아직은 아파트가 낯설고 새로운 주거공간이었던 시기에 최인호는 아파트의 실제 거주 장소로서의 측면을 그려내는 동시에 이종공간(heterotopia)으로서의 아파트 표상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아파트는 서울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인 ‘집’으로서 일상적인 장소로 그려지고, 최인호는 이러한 삶의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서사를 다양하게 포착하였다.

## 5.2. 개별자로서의 도시민과 친밀성 회복의 가능성

초기도시사회학자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새비지와 와드는 대도시가 개인주의와 획일성, 고독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대도시 속에서도 도시적 공동체가 발견되며, 여기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46)</sup> 최인호는 초기 소설에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집의 상실에 천착하는 한편, 점점 일상화되어 가는 도시 공간에서 개별적 개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해 고민을 한다. 이러한 고민은 점차 개인에서 도시공동체로 확장하며 사랑하는 남녀에서 이복형제, 이웃 등 타인과의 친밀성을 통해 서울이라는 장소에서 서울의 내부자로서 실존적 장소의 탐색을 시도한다.

「타인의 방」에 등장하는 이 아파트 거주자들은 ‘근대화의 침병’으로서 새로

345)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박완서 단편소설을 사례로」, 『로컬리티인문학』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103면. 오늘날 아파트는 무표화(unmarked)되었지만, 1970~80년대는 실제 도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주거의 장소이면서 ‘주거공간의 이념화’경향을 대표하는 담론적 표상으로 호명되었다. 즉 실제하는 장소이면서 온갖 추상화된 가치를 함축한 이상적인 집으로서의 주거 이데올로기를 실어나르는 공간적 표상으로서의 이종공간(heterotopia)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같은 글, 102-103면.

346) 마이크 새비지·알랜 와드, 김왕배·박세훈 역,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 140-142면.

운 서구식 주거 형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sup>347)</sup> 이 소설의 발표 당시만 해도 아파트란 공간은 일상생활이기보다는 낯설고 새로운 공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방」의 아파트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점점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간다. 최인호의 인물들은 개별성을 유지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타인인 아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남편은 ‘사적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아내와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의 거리에서 돌아와 피로에 지친 채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내가 집에 있기를 바란다.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면서도 아내와 공유하는 사적 공간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역시 집이란 즐겁고 아늑한 곳이군”이라고 생각한다.<sup>348)</sup> 즉 아직은 새롭고 낯설은 아파트라는 도시의 주거공간은 비장소적인 주거공간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었으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타인의 방」에서는 끝내 남편과 아내는 만나지 못하지만 말이다. 아파트가 점차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도시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아파트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고, 도시에서의 삶 속에서 도시민들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별들의 고향』에서도 ‘나’는 아파트에서 혼자 있을 때 권태와 절망감을 느끼지만 아파트에서 경아와 함께 하는 시간은 “소중하고 축복받은 시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직 아침잠이 덜 깨어 머리맡에 배달된 조간신문의 잉크 냄새가 향그럽고, 아파트 방을 스치는 기적 소리가 역마의 울음처럼 지나가고, 커튼 사이로 빠져 들어온 새벽의 우윳빛 같은 빛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새 담배에 자기 입으로 빨아 붙여 잠든 내 입에 물려주고, 부지런히 그것이 마치 새벽에 집 주위를 쓸어내는 아침 청소인 양 속내의 바람에 통통한 젖가슴과, 희고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반짝이면서 아침 운수를 점쳐보는 그녀의 모습을 훑쳐보는 순간은 나의 가

347)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앞의 글, 258면.

348) 강유정, 앞의 글, 15면. 강유정은 옆집 남자에 대한 폭력적 반응이 친밀성을 원하는 아내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소외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 소중하고 축복받은 시간이었던 것이다.<sup>349)</sup>

이후 이러한 친밀감의 희구는 장편소설에서 남녀관계의 경우, 『도시의 사냥꾼』처럼 세간의 도덕을 초월한 사랑으로 나타나거나 『천국의 계단』처럼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초월한 사랑으로 그려지기도 했다.<sup>350)</sup>

『도시의 사냥꾼』의 승혜와 현국은 불면증에 시달린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혼을 선택했던 승혜는 위악적이고 속물적인 남편에게 종속되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명훈은 기업의 후계자로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지만, 승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암투병과 죽음을 겪은 승혜는 운명처럼 느끼고 명훈과의 결혼을 한다. 남편의 바람과 혼외자식을 대하는 남편의 비인간적인 모습,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환멸을 느낀 승혜는 이혼을 한 것이다. 남편과 별거 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승혜는 죄악이라 생각하면서 아이를 지우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현국 또한 출산 후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아이를 병원에 갖다버리는 아내에게 지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둘은 이 불면증으로 인하여 새벽의 동물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감옥과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도시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 불면증은 이들의 만남의 동기가 되고 두 남녀는 이 만남을 통해 치유가 되지만, 기혼자의 비윤리적인 사랑은 이들에게 높이고 형벌로 다가온다.

도시는 그들이 벗어나야 할 거대한 감옥이었다. 좁고 황량하고 어두운 거대한

---

349) 최인호, 『별들의 고향 1』, 여백, 2015, 198면.

350) 박찬효는 「견습환자」를 비롯한 초기 단편소설에서 인물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사랑 추구 양상을 통해 최인호 소설의 도시인들이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나 좌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낭만적 사랑은 사회가 지향하는 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낭만적 사랑이 상대에 대한 열정이나 희생보다 경제적 능력, 외모 등을 우선시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쾌락적 성을 즐길 뿐이며, 일상의 지루함으로 쉽게 좌절되기 때문이다.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54-264면. 이와 달리 소위 대중문학으로 분류되는 『도시의 사냥꾼』이나 『천국의 계단』은 결혼의 성사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초월한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

감옥이었다.

그들은 죄인이었으며, 마악 도시의 뒷을 뛰쳐 나온 탈옥수였다. 그들을 감시하던 간수의 눈길을 피해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피를 흘리며 때로는 울면서, 도망쳐 나온 거대한 도시가 저만큼에서 집행 유예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그것은 높이였으며 형벌이었다.<sup>351)</sup>

최인호 소설 속에서 이렇듯 병리적인 도시와 도시인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인호 소설의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대 활동했던 이문구, 문순태의 농촌 공동체나 김승옥, 이청준의 이향자의 존재와 다른 ‘도시공동체’가 재현된다. 최인호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나 대학생, 문인 등을 주인공으로 삼아 도시와 도시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소설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속성이 드러난다. 도시인들은 익명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기 때문에 속내를 감추는데, 짐멜은 이것을 ‘반감’을 통해 거리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서로를 이방인으로 배척하는데, 여기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는 친밀감의 형성이 중요하다. 최인호의 소설에서 ‘결혼’을 통한 낭만적 사랑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sup>352)</sup>

이처럼 『별들의 고향』, 『천국의 계단』, 『도시의 사냥꾼』에서 남녀의 사랑을 통한 친밀성의 회복은 70년대 후반이 지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여성이나 배다른 형제, 이웃으로 확대된다.

『내 마음의 풍차』(1975)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주인공은 아버지의 부름으로 어머니를 떠나 배다른 형제와 살게 된다. 위악적인 ‘나’와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순수한 동생은 처음에는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섞여 들어간다. 집에 자신만의 모조 도시를 건설했던 동생은 ‘나’로 인해 현실의 도시 속으로 나오고 연애를 한다. ‘나’ 또한 동생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351) 최인호, 『도시의 사냥꾼 하』, 예문관, 1977, 257면.

352)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앞의 글, 251면.

사생아인 ‘나’에게 아버지의 집은 거꾸로 뿌리를 박아야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나’는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생활한다. 영리하고 영악한 그는 이 집이 자신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집’이 아님을 바로 간파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은 존재의 근원이자 정체성의 토대이지만, 사생아이며 외부자인 ‘나’는 집과의 합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자신을 숨긴 채 이 집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가 훔치려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어떤 정신, 정체성으로 파악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sup>353)</sup>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집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대로 뿌리박은 것이 아닌 거꾸로 뿌리박은 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겉으로는 무표정과 태연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주위의 모든 것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거야.

이 집의 모든 것. 이 집의 분위기. 내가 훔치려고 마음먹은 것은 만년필이나, 박제된 독수리, 콘사이스나 정구채, 이런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닌 것이다.

나는 이 집을, 이 최초로 맞이한 집을, 내게 ‘손들었’을 시킨 동생의 물총 세례를, 어머니의 기도문을,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올 것을 권유하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이 모든 것을, 내가 부딪치는 최초의 인상을 나는 훔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다.<sup>354)</sup>

진정한 장소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나’와 달리 이러한 ‘나’의 짝패처럼 등장하는 동생은 순수한 인물로 그려지고 외부와의 접촉 없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다. 동생은 자신의 방안에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었다. 구뚝방, 케이크점에서 신호등까지 정밀하게 만들어진 그 도시의 거리에는 사람이 없기에 ‘나’는 그것이 “이상한 거리” “죽

---

353) 렐프는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고유한 특성”을 장소정체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7면.

354) 최인호, 『내 마음의 풍차』, 중앙일보사, 1975, 52-53면.

음의 도시”라고 말한다. 이것은 렐프 식으로 말한다면 장소정체성이 상실된 도시로 ‘나’에게 있어 사람이 없는 도시는 이상할 수밖에 없다.

방바닥에는 조그마한 도시가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지.

건물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가로수까지 만들어져 있었으며 전차는 그 사이를 신이 나서 달리고 있었어.

너무도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도시에는 구뚝방, 케이크점, 약방, 술집, 교회, 거리의 신호등, 없는 것이 없었어. 네 거리를 지나면 지하굴까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 사이를 기차가 사납게 달리고 있는거야.

그러나 그 도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오직 궤도 위를 달려가는 전차에 불과하였다.

그러니까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

주위의 거리가 정교하면 할수록, 우리가 간밤에 꾸 꿈속과 같은 거리,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빨간 벽돌집들이 연이은 거리가 정교하면 할수록 그 사이를 달려가는 전차가 오히려 생경한 느낌이 들어오더군.

이상한 거리야.<sup>355)</sup>

동생은 이 도시의 주민은 외출한 상태이고 거리에 ‘나’ 혼자만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동생은 외출하지 않은 채 자기가 만든 도시에 대해 도시계획을 한답시고 도랑을 파고 강을 만들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한 도시에서 도시계획은 공허한 작업이 될 뿐이다.<sup>356)</sup>

그는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처럼 조그마한 도시 위에 우뚝 솟아 신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리에 남아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

잠시 후 동생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거리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외출하였지만 이 거리에 남아 있는 사람은 있어. 딱

---

355) 위의 책, 56면.

356) 동생의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세계는 마치 진공의 상태처럼 모든 사물이 무중력으로 둥둥 떠 있는 거야. 하늘도, 나무도, 땅도, 모두 뿌리도 없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거지. 위의 책, 69면.

한 사람.

그게 누구니.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나야.

동생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찔러 가리켰다.

이 거리엔 나 혼자 남아 있어.

(...)

그들은, 이웃들은 새벽에 외출하였거든. 그런데 난 그 시간에 늦잠을 자고 있었단 말야. 깨고 보니 이미 모두들 떠났어.

그럼, 그럼 말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거니. 이 거리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sup>357)</sup>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거꾸로 뿌리박는 장소라면, 동생이 만든 도시는 사람과 장소가 극단적으로 분리된 장소이다.<sup>358)</sup> 위악적인 ‘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한, 집과 동일시를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가 누락된 도시를 무의미하게 생성하고 파괴하는 동생 또한 ‘진정한 장소감’을 느낄 수 없다.<sup>359)</sup> ‘나’이든 동생이든 이들에게 집은 진정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서 동생은 자기가 만든 도시를 무너뜨리고, 거리로 나가 경험을 확장하며 새로운 장소를 꿈꾼다. 나 또한 거꾸로 뿌리박은 집이 아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

「두레박을 올려라」(1977)에서 주인공은 무력한 대학생으로 등장하는데, 여자 아이를 만나고 여자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돕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

357) 위의 책, 57-58면.

358) 렐프는 사람과 장소를 심각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객관적 외부성(objective outsideness)이라고 보며 지리학자나 도시계획가의 지적 태도가 이와 같다고 보았다.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120-121면.

359)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있다는 느낌이다. 이 소속감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집이나 고향, 혹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무의식적인 장소감은 과거 어떤 사회만큼이나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필수적일 것이다. 그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이 된다.” 위의 책, 150면.

주인공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여자아이를 자신이 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자아이에 대한 감정이 성애적 사랑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친밀함이 발견된다. 이처럼 최인호는 젊은 남녀의 사랑에서 남녀간의 사랑 이상의 숭고한 친밀함으로 그려내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실존적 장소를 탐색한다. 그리고 조선작과 조해일이 그랬듯이 당대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최인호는 70년대 이후에도 소설을 계속 쓰면서, 그 대상을 노인으로 확대해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상의 계곡」(1982)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노인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발견하는 한편 도시의 새로운 장소로서의 공원이 등장한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는 새색시처럼 멋을 부리고 외출하는데, 어느날 나는 버스를 타고 제3한강교를 지나 장충동 공원에 가는 어머니를 미행한다. 노망이 나거나 묘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나’의 추측과 달리 어머니는 노인과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공원이라는 장소는 도심과 달리 일상의 경쟁이 없는 고즈넉한 곳으로 그려진다.

남산의 숲이 장충단 공원의 기슭까지 내리뻗어 공원 안은 키 큰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어린애를 데리고 나온 아낙네, 할 일 없어 시간을 죽이기 위해 나온 젊은 청년들과 여인들,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학생들, 예비군복을 입고 무엇 신나는 일이 없나 기웃거리는 젊은이들, 휴가를 냈는지 화사한 차림이 공원(工員)들로 공원 안은 축제일처럼 시끌시끌했다. 공원은 한결같이 넉넉하고 고즈넉해 보였다. 한치의 틈도 없이 달리고 뛰고 곤두박질치는 일상의 경쟁은 보이지 않고 한결같이 게으름 부리고 느려빠진 동물들처럼 공원 안의 사람들은 늘어져 있었다.<sup>360)</sup>

어머니는 아들인 ‘나’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생활하지만, 도시의 공원에서 숭고하고 다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의 공간은 어머니에게는

---

360) 최인호, 「천상의 계곡」, 『최인호중단편소설전집 4』, 문학동네, 270면.

진정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진정한 장소란 내부자의 경험과 장소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거지의 아들로 태어난 노마는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객사한 이후, 도시에 자기 집을 짓지만 투구를 쓴 사람이 와서 집을 부수었다. 우화적인 소설이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허가 판잣집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노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에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오십년을 동냥질을 하여 아주 작은 집을 소유하게 된다.

그는 어쨌든 예순일곱 살에 아주 작은 집을 소유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집을 가보았다. 나는 그렇게 작은 집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집의 설계 모형 같아 보였다.

집은 방 하나와 부엌, 그리고 손수건만큼 작은 마당을 갖고 있었다. 방은 그가 누우면 발가락이 문지방 밖으로 나갈 만큼 작았는데, 그래서 그의 집은 집이 아니라 누에고치 같아 보였다. 그래도 그것은 엄연한 집이었다.

그는 마당에 엉덩퀴도 심었고 나팔꽃도 심었다. 아침마다 나팔꽃이 피었으며 나팔꽃은 뚜뚜따따 주먹손으로 기상 나팔을 불곤 했었다. 그는 벽에서 자기 아버지가 남겨준 성경 한 페이지를 액자에 담아 걸어놓았다.<sup>361)</sup>

그 집은 정말 작아서 그의 몸을 모두 담지 못하고 ‘나’가 보기엔 ‘누에고치’ 같은 집이지만, 그 집은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고 존재의 거주 장소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집이라고 볼 수 있다. 거지 노인 노마는 집과의 완전한 동일시를 이루는 ‘실존적 내부성’을 경험하며, 그 집에서 평생 꿈꿔왔던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철거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거지 노인은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동리 사람들이 떠나도 그 집을 지키지만 체포되고 그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외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거지노인은

---

361) 최인호, 「이상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 『최인호 중단편소설전집 5』, 문학동네, 2002, 284면.

공원이 된 장소에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의 원을 그리고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만 공원 관리사무소는 거지 노인을 추방해 버린다.

「이상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나’는 거지 노인에게 한때 다락방이었던 사닥다리를 물려받는다. 비록 거지 노인이 평생 마련한 돈으로 지은 집은 자신의 몸도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는 공원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쫓겨나서 집이 남아 있지 않지만 ‘진정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며 도시의 이웃인 나에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 6. 결론

본고는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1970년대의 서울의 장소성 분석을 통해, 이들이 추상적인 도시공간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문학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갔음을 밝히고자 했다. 도시를 공간으로 파악한다면 추상적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지만,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파악한다면, 우리가 실존해야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작가들은 도시를 고향(시골)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립의 공간으로서 파악하며 이념적(추상적)으로 파악했던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달리 서울을 구체적 장소로 그려냈다. 이들은 서울의 내/외부자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서울을 이념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삶의 구체적인 장소로 파악하면서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그려냈다. 본고에서는 세 작가의 작품의 소설적 배경이 서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서울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배경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소설의 존재론적 기반으로 기능하였음을 도시인문학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했다.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은 당대 문단의 이데올로기와 대중사회화라는 새로운 문화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문학적 문법과 다른 문학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들은 경직된 문단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닌 문학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국민이나 민중으로 호명되지 않는 다양한 인간 군상, 특히 도시 서울에서 거주하는 서울사람들을 그려냈다.

세 작가의 소설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으로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의 문학연구가 역사성(시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사성 중심의 사유는 전통과 이식의 문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문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문제에만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거대담론이 아닌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사유할 때 도시문학의 의의는 증폭된다고 판단하고 이 세 작가의 소설을

‘다른 형식’으로 바라보는 틀로 도시인문학의 관점을 제안했다. 즉 문학에 있어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의 ‘장소성’의 탐구를 통해 역사중심주의적 서술과 거대담론에서 누락된 다양한 주체의 형상화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학사 서술을 시도하고자 했다.

1970년대는 1960년대의 도시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넘어서 국가 주도의 도시개발이 가시화되고 도심과 변두리 지역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양상의 편차가 심화되었다. 즉 이제 고향에 대립되는 도시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내에서의 도시의 구획과 배치가 문제시된 것이다. 한편 이것이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경험을 통해 현현되는 것으로서 ‘도시문학’이 아닌 ‘서울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서울문학의 계보 파악을 통해 한양과 경성, 서울에 이르는 계보를 형성하고,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는 서울 문학과 연속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푸 투안의 이론을 통해 공간과 장소의 차이와 장소의 가치를 점검하는 한편, 장소성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담론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고안물이라는 것을 참조점 삼아, 이들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정체성 개념을 본 논의에 있어서 분석의 큰 틀로 삼았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사람과 장소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 렐프는 장소를 내부자로서 경험하는가, 외부자로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크게 외부성과 내부성의 구분한다. 렐프는 이를 통해 장소의 본질이 외부, 그리고 경험되는 내부의 경험 속에 있다고 말한다. 본고는 이를 참고하여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가 서울의 내/외부자로서 서울을 경험한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 때 이 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서울을 각각, 행동의 장소(조선작), 감정입의 장소(조해일), 실존적 장소(최인호)로 유형화하여 이들 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의 의미를 탐구했다.

2장에서는 이들의 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이들이 문단이 아닌 독자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서울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소설 속 장소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등단 초기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의 관심을 받고 특히 『문학과지성』은 이들의 소설을 재수록하면서 호평한다. 초반에는 이 세 작가들과 문단의 이데올로기는 같은 지점을 향하는 듯 했지만, 이 세 작가가 상업영화로 성공하면서 이러한 관심과 독려는 사라진다. 이들은 문단과 독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는데 이때 이들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으로서의 문학을 선택한 점이다.

이들이 이념이나 추상으로서의 서울이 아닌 구체적 삶의 장소로서 서울을 그린 것도 이와 관련성을 보인다고 봤다. 1960~7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 서울은 시골/도시의 이분법적 도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 작가들은 이를 넘어서 서울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위해 작가들이 남긴 기록이나 다른 문인의 증언,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와 작가의 서울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다른 작가들이 이념으로서의 도시 서울을 형상화한 것과 달리 자신들이 경험한 장소를 중심으로 서울을 구체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조선작이 서울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외부자적 위치에 있었지만, 점점 서울의 내부자에 가까워지면서 서울이라는 장소경험을 통해 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으로 장소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의 삶을 주로 그린 조선작의 소설을 통해, 아무런 연고가 없이 도시적 삶에 다가간다는 것이 이들에게 요원한 일이었음을 「영자의 전성시대」를 비롯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미스양의 모험』, 『말괄량이 도시』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조선작의 인물들은 도시적 삶에 정착하기 위해 계층이동을 희망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견고한 도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작은 민족, 민중 이데올로기에서 비껴나면서 이념적이고 경직된 이념이 아닌 도시의 주변인들의 감성적 연대를 기대했음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조해일이 장소에 대한 관심이 외관의 특성에서 감성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곳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감점이입적 내부성(empathetic insideness)으로 장소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해일의 소설에서는 중산층의 장소경험과 하층민의 장소경험이 드러나는데, 초반에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문화적 소비생활이 제시되고, 이후에 도시 변두리의 판잣집의 목도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조해일의 소설에서 아파트란 주거공간은 부정적인 대상에서 선망하는 대상으로 변하는데, 초기 소설인 「아메리카」와 「무죄탈」에서 아파트는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장편소설 『겨울여자』, 『지붕 위의 남자』에서 아파트는 청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해일이 전반부에서 중산층의 청년들의 주거문화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후반부의 서울 변두리와의 장소경험을 통해 사회현실에 눈을 뜨고 부끄러움이라는 도덕감정을 촉구하고자 했던 서사전략이었음을 강조하였다.

5장에서는 최인호가 서울을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의 내부자였던 최인호는 고향 상실의 아님 도시개발로 인한 집의 상실과 서울의 장소성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를 소설화했다. 최인호의 소설을 통해 도시개발로 인해 집을 상실한 한편 도시적 삶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집을 상실한 도시민들은 도시적 일상성을 향유하면서 개별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친밀성 또한 추구하게 된다. 「타인의 방」에서 아내와의 친밀감을 회구했던 도시민은 『별들의 고향』, 『도시의 사냥』, 『천국의 계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친밀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회구는 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내 마음의 풍차』, 「두레박을 올려라」, 「천상의 계곡」, 「이상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친밀성이 탄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진정한 장소를 잃었던 도시민들이 도시적 친밀감을 통한 새로운 장소성을 탐색한 것으로 보았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_\_\_\_\_, 『미스양의 모험』, 예문관, 1975.  
\_\_\_\_\_, 『외야에서』, 예문관, 1976.  
\_\_\_\_\_, 『고독한 청년』, 열화당, 1977.  
\_\_\_\_\_, 『말괄량이 도시』, 서음출판사, 1977.  
\_\_\_\_\_, 『완전한 사랑』, 수문서관, 1977.  
\_\_\_\_\_, 『장대높이뛰기선수의 고독』, 삼조사, 1980.  
\_\_\_\_\_, 『미끼와 고삐』, 해냄, 1989.  
조해일, 『아메리카』, 민음사, 1973.  
\_\_\_\_\_, 『겨울여자』 상·하, 문학과지성사, 1976.  
\_\_\_\_\_, 『우요일』, 지식산업사, 1977.  
\_\_\_\_\_, 『지붕위의 남자』 상·하, 열화당, 1977.  
\_\_\_\_\_, 『키작은 사람들』, 삼조사, 1978.  
\_\_\_\_\_, 『갈 수 없는 나라』 상·하, 삼조사, 1979.  
\_\_\_\_\_, 『제3세대 한국문학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83.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4.  
\_\_\_\_\_, 『도시의 사냥꾼』 상·하, 예문관, 1977.  
\_\_\_\_\_,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 예문관, 1979.  
\_\_\_\_\_,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5, 문학동네, 2002.  
\_\_\_\_\_, 『별들의 고향 1』, 여백, 2015  
\_\_\_\_\_, 『나는 나를 기억한다』 1-2, 여백, 2015.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학과지성』, 『세대』, 『신문연구』, 『창작과비평』

## 단행본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구자황, 『이문구 문학의 전통과 근대』, 역락, 2006.
- 국토연구원 편,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5.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 \_\_\_\_\_, 『지성과 문학 : 70년대의 문화사적 접근』, 문학과지성사, 1982.
- 김덕영, 『환원근대』, 길, 2014.
-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00.
- 김 현, 『문학과 유토피아, 공감의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2.
- \_\_\_\_\_,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문학과 지성사, 1993.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 대중문학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 루스 배러클러프, 김원·노지승 역, 『여공문학』, 후마니타스, 2017.
- 루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2.
- 루이 알튀세르, 김웅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2007.
-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에코 리브르, 2010.
-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8.
- 마이크 새비지·알랜 와드, 김왕배·박세훈 역,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
- 미셸 마페졸리 외, 박재환 외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1994.
- 민족문학사연구소,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 베스 L. 베일리, 백준걸 역, 『데이트의 탄생-자본주의적 연애제도』, 앨피, 201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 1968-1970』,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2013.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8.
-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6권, 서울특별시, 1996
-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1-2, 한울, 2007.
- 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
-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 \_\_\_\_\_,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리, 2011.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공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1.
-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에드워드 S. 케이시, 박성관 역, 『장소와 운명』, 에코리브리, 2016.
- 에리히 프롬,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 에바 일루즈, 박형신·권오현 역,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이학사, 2014.
- 이광호, 『도시인의 탄생』,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 이경재, 『한국현대문학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2017.
-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돌베개, 2014.
- 이동하, 『현대소설과 도시사회』, 보고사, 2020.
- 이문구, 『이문구의 문인기행』, 에르디아, 2011.
-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 이영석·민유기 외, 『도시는 역사다』, 서해문집, 2011.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 정종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2 : 1955~97』, 열화당, 1997.

제프 말파스,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 2002.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3,  
조선작 외, 『사랑의 우화집』, 세대문고사, 1977.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작과 비평, 2018.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5.  
황석영,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101-5』, 문학동네, 2015.  
\_\_\_\_\_,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101-6』, 문학동네, 2015.  
홍준기 외, 『현대사상과 도시』, 라움, 2012.

## 논문

강민구, 「유하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강유정, 「최인호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집>의 상징성 연구」, 『인문과학논집』  
27,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강유진,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집과 도시의 공간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55, 우리  
문학회, 2017.  
강정아,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연구- 김소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고경선, 「『겨울여자』의 영화적 스토리텔링과 한계성」, 『스토리&이미지텔링』 6, 건국  
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고인환·오택호, 「조해일의 「아메리카」에 나타난 「미국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6, 우리문학회, 2015.  
곽상순, 「서사의 반전과 욕망의 역설 -최인호의 「술꾼」과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_\_\_\_\_,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정상성과 병리성의 상관성 연구 -「견습환  
자」, 「술꾼」, 「타인의 방」을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 곽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 권경미, 「하층계급 인물의 생성과 사회 구조망」, 『현대소설연구』 49, 현대소설학회, 2012.
- \_\_\_\_\_, 「대중소설의 도시적 교양성과 타자의 윤리」, 『현대소설연구』 56, 현대소설학회, 2014.
- 권철호, 「최인호, ‘조커-작가’의 기원」, 『작가세계』 28, 2016.
- 권혁래,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우리문학회, 2016.
- 권현정, 「1970년대 대중소설에 드러난 정치성과 대안 사회의 (불)가능성 - 조해일의 겨울여자 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7.
- 구자희, 「한국 현대 도시 소설에 반영된 생태의식(Ecologism)」, 『현대소설연구』 36, 현대소설학회, 2007.
- 김경연, 「주변부 여성 서사에 관한 고찰 - 이해조의 『강명화전』과 조선작의 『영자 의 전성시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3,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3.
- \_\_\_\_\_, 「70년대를 응시하는 불경한 텍스트를 재독하다-조선작 소설 다시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7, 284-286면.
- 김근호, 「현대소설 독서 체험에서의 시골과 도시의 장소성 : 문학교육사적 관점에서」, 『독서연구』 50, 한국독서학회, 2019.
- 김기범 외, 「근대문학작품의 도시풍경구도에 나타난 시·공간의 체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개발연구』 8, 청주대학교도시지역개발연구소, 2000.
- 김덕삼, 「이푸 투안(Yi-Fu Tuan)과 제프 말파스(Jeff Malpas)의 ‘장소’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김덕현, 「제4장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14(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6.
- 김동윤, 「포스트모던 시대의 일상성과 사회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미셸 마페졸리의 이론을 중심으로」, 『에피스테메』,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2007.
- 김려실, 「1970년대 생명정치와 한센병 관리정책 : 김정한의 「인간단지」와 최인호의 「미개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2016.

- 김명인, 「근대소설(近小說)과 도시성(都市性)의 문제 :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 김무숙,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구도적 상상력 고찰-『길 없는 길』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41, 국제어문학회, 2018.
- 김문정, 「1960, 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 \_\_\_\_\_, 「1960~70년대의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변화와 서울 사람의 탄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미란, 「도시소설의 전통과 1960년대 도시소설의 양상 : 모더니즘적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원우론집』 22,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미지, 「별들의 고향을 통해 본 1970년대 대중 문화와 문학의 존재 양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회, 2003.
- 김병덕, 「폭압적 정치상황과 소설적 응전의 양상」, 『비평문학』 49, 한국비평문학회, 2013.
- 김병로, 「최인호의 「유령의 집」에 나타나는 해체적 환상 담론 분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 김선건, 「1970년대 이후 노동소설에 나타난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 \_\_\_\_\_, 「최인호의 「지구인」에 나타난 하층민 재현 방식 연구」, 『코기토』 7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삼,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 - 최일남·이동하·최인호의

-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 김영옥,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1.
- 김원규, 「1970년대 최인호·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과 신체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_\_\_\_\_, 「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 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 \_\_\_\_\_, 「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 한국문예비평학회, 2007.
- \_\_\_\_\_, 「1970년대 소설의 하층 여성 재현 정치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은자,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에 나타난 도시 주변부의 삶과 도시발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73, 현대소설학회, 2019.
- 김은하, 「문화학 : 예외상태로서의 박정희 시대와 남성 주체의 형성 - 최인호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 -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9, 국제어문학회, 2007.
- \_\_\_\_\_,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성(性)과 성장의 서사 -1970년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 \_\_\_\_\_,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인식 연구 - 《길 없는 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 \_\_\_\_\_,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세계관과 성찰의 서사」, 『한성어문학』 38,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8.
- 김재경, 「최인호 소설 연구-내포독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2, 현대소설학회, 2018.
- 김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최인호의 「타인의 방」과 채영주의 「도시의 향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한민족문화학회, 2019.
- \_\_\_\_\_, 「1960년대 서울의 도시성과 사회적 전유의 문제 -박태순의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7, 한민족문화학회, 2019.
- 김정아, 「이문구 소설의 토폠피리아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종옥,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환상과 정치적 무의식: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 김주현, 「시각체험과 6·70년대 도시빈민 소설의 새로운 형식-박태순과 조세희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 김지윤,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미학」, 『우리말글』 72, 2017.
- \_\_\_\_\_, 「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2013.
- \_\_\_\_\_, 「197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 \_\_\_\_\_, 「조숙(早熟)과 만숙(晩熟)의 경계 - 1970년대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9, 중앙어문학회, 2014.
- 김진형, 「최인호 소설연구 : 인물과 세계의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창식, 「일제 하 한국 도시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춘식,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 김태윤, 「최인호의 1970~8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된 인물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택중, 「최인호의 「술꾼」에 나타난 부조리한 세계」, 『비평문학』 17, 2003.
- 김하서,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별들의 고향』과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단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한식, 「김승옥 소설에서 생활의 문제」,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2011.
- \_\_\_\_\_, 「도시 성장 소설의 배경과 성격: 1960-70년대 소설을 위한 시론」, 『한국문학연구』 4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 \_\_\_\_\_, 「상경 청년, 귀향 성장 서사의 의미」,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13
- \_\_\_\_\_, 「박태순 소설과 1960년대 서울」, 『현대소설연구』 5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혜숙, 「아파트 생활기사의 주거 담론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2), 한

- 국실내디자인학회, 2014.
- 김혜진,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나타는 권력의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노지승,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타난 하층민 여성의 쾌락」,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 \_\_\_\_\_, 「1970년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혹은 이주, 성노동, 저항의 여성 생애사」,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회, 2017.
- 류희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성’ 연구-박태순 · 조선작 · 조세희 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문재원, 「최인호 소설의 ‘아동’연구」, 『현대소설연구』 28, 현대소설학회, 2005.
- \_\_\_\_\_, 「요산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3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 박상준, 「반전과 통찰 -김유정 도시 배경 소설의 비의」,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_\_\_\_\_, 「1970년대 한국소설과 망탈리테」,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연애관의 탈낭만화 -1970년대~2000년대 연애소설에 나타난 연애관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 \_\_\_\_\_, 「조선작 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 \_\_\_\_\_, 「조해일의 단편소설 연구: 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포함하여」, 『현대소설연구』 53, 현대소설학회, 2013.
- \_\_\_\_\_, 「조해일의 소설과 도덕주의」, 『어문학』 121, 우리어문학회, 2013.
- \_\_\_\_\_, 「자학과 죄책감」,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 \_\_\_\_\_, 「우리를 상상하는 몇 가지 방식-1970년대 소설과 집단주의」, 『우리문학 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 \_\_\_\_\_, 「1970년대 소설의 여대생 표상」, 『어문논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 \_\_\_\_\_,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흑인 표상 연구」, 『국제어문』 76, 국제어문

- 학회, 2018.
- 박승윤, 「문체론의 언어학적 고찰 : Henry James 와 조해일을 중심으로」, 『인문과 학』 1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 박찬효, 「1960~70년대 소설의 ‘고향’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 박찬효,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보행자의 존재성과 도시 공간의 재장소화 양상」, 『현대소설연구』 60, 현대소설학회, 2015.
- 방경태, 「1930년대 한국 도시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방민호,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문학연구의 재인식』, 예 옥, 2010.
- \_\_\_\_\_, 「경성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 배경열, 「조선작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창녀서사와 서사전략 고찰」, 『인문학연구』 4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 배선애, 「1970년대 대중예술에 나타난 대중의 현실과 욕망 : 〈별들의 고향〉, 〈겨울여 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 백지연, 「196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주체의 관련 양상 연구-김승옥 과 박태순의 소설 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서덕순, 「자기서사 발견과 동일성 회복의 글쓰기: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회, 2013.
- 서동훈, 「한국 대중소설 연구 :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서우석, 「도시인문학의 등장 - 학문적 담론과 실천」, 『도시인문학연구』 6(2), 도시인 문학연구소, 2014.
- 서종택, 「해방이후의 소설과 개인의 인식 : 서기원, 김승옥, 최인호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 성현자, 「도시적 삶의 양식과 소설의 구조-「닭은 방들」, 「홍소」, 「타 인의 방」을 중 심으로」, 『개신어문연구』 7, 개신어문학회, 1990.

- 손영님, 「1970년대 전반기 청년영화와 청년 청년문화의 구성」, 전남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13.
- 손유경, 「유년의 기억과 각성의 순간」,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의 양상」, 『강원민문논총』 17, 강원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07.
- \_\_\_\_\_, 「기지촌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손종업, 「우리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계보학」,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  
회, 2011.
- 송기섭, 「장소성과 지역문학」, 『비평문학』 72, 한국비평문학회, 2019.
- 송민호, 「도시공간에 대한 미디어적 인식과 소설의 서사」, 『구보학보』 11, 구보학회,  
2014.
- 송아름, 「1970년대 ‘청년’이 재구성한 ‘호스티스’의 의미」, 『개신어문연구』 43, 개신  
어문학회, 2019.
-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 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 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 \_\_\_\_\_,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의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1970년대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 -최인호의 『미개인』과 『예행연  
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 송지선, 「문학지리학적 관점으로 본 이용악 시의 지식인의 소명의식에 따른 고향 서  
울의 장소성 연구」, 『국어국문』 72, 국어문학회, 2019.
- 송희복, 「역사와 문학을 보는 관점」, 『동악어문학』 56, 2011.
- 신지은, 「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4(2), 한국사회학  
회, 2010.
- 심재욱, 「1970년대 ‘증상으로서의 대중소설’과 최인호 문학 연구」, 『국어국문학』  
171, 2015.
- \_\_\_\_\_,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에 나타난 미학적 정치성 연구」, 『한어문교육』 38,  
2016.
- \_\_\_\_\_, 「최인호 문학의 명랑성과 미학적 정치성의 연구 - 1970년대 대중사회화와

- 대중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0, 2002.
- 안선영, 「최인호의 소설과 각색 시나리오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창모,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서울학연구소, 2010.
- 양철수,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에 나타난 남녀 간의 권력관계 연구」, 『인문학연구』 17, 2014.
- 엄미옥,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광장의 장소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 오경복,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 1970년대 소비적 사랑의 대리체험적 독서」, 『비교한국학』 1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5.
- 오경아, 「최인호 단편 소설 속에 나타난 아이 모티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오영록, 「소설과 영화의 플롯 짜기 양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9, 한국문학이론비평학회, 2015.
- 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 서울학연구소, 2009.
-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2, 중앙어문학회, 2004.
- \_\_\_\_\_, 「한국 도시소설 연구 : 196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도시의 불안과 여성하위주체」,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2013.
- \_\_\_\_\_, 「1970년대 초 한국소설의 미군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 한국문학이론학회, 2019.
- 오태호,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 용석원, 「1970년대 호스티스물의 각색 양상 연구 : <모범작문>과 <여자들만 사는 거리>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9, 겨레어문학회, 2012.
- \_\_\_\_\_, 「유신시대 창녀·호스티스 서사의 의의」, 『스토리&이미지텔링』 12, 건국대학



- 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6.
- 원승종, 「최인호 장편소설 『지구인』에 나타나는 폭력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56, 한국문학이론학회, 2017.
- 우찬제, 「불안의 상상력과 정치적 무의식 : 1970년대 소설의 경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유은정, 「도시소설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도시 권력」,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
- 윤정화, 「1970년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미국문화’」, 『비평문학』 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 음영철, 「최인호 소설에서의 불교사상과 동아시아 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 이가원,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이미지 연구-손흥규 장편소설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 연구의 과제」,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2013.
- 이명순,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와 남성 몸의 문화정치 : 최인호의 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2.
- 이민영, 「『영자의 전성시대』, 1970년대와 청년문화의 복화술」, 『우리어문연구』 63, 우리어문학회, 2019.
-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 이선미, 「‘청년’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0.
- \_\_\_\_\_, 「1970년대 최인호의 자유주의와 냉전의 심상지리 - 〈맨발의 세계일주〉(1975)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이선영, 「최인호 장편소설의 영화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성백, 「글로벌폴리스와 도시인문학의 가능성」, 『도시인문학연구』 1(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 이세영, 「사회변동이 소설형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소영, 「여성의 몸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54, 한국현대문학회, 2018.
-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비평학회, 2007.
-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현대문학의 연구』 3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 이숙, 「자아 발견으로서의 변신 양상 연구 -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과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이양숙, 「한국문학과 도시성」,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 \_\_\_\_\_, 「『원미동 사람들』에 나타난 도시의 일상과 도시공동체의 의미」, 『구보학보』 12, 구보학회, 2015.
- \_\_\_\_\_, 「재현공간으로서의 서울 미아리 달동네」, 『인문과학연구』 4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_\_\_\_\_,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 『외국문학연구』 6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 \_\_\_\_\_, 「도시적 삶과 폭력의 양상」, 『외국문학연구』 6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 \_\_\_\_\_, 「트랜스모던 공간으로서의 서울-염상섭 『효풍』의 현대적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10(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8.
- 이윤종, 「호스트, 호스티스를 만나다 - 영화 <엑스>의 액체 현대에 속박된 고급 성노동자들」, 『사이』 2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 이은숙 외, 「도시소설 속에 나타난 도시민의 여가공간 변화: 1950년 이후 수도권 배경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한국도시지리학회, 2008.
- 이은숙, 「한국 근대문학과 장소의 사회학: 문학 공간의 인식 체계와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3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 이은애, 「소설 속에 나타난 ‘강남’ 이미지 연구-〈강남몽〉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 이익성, 「김유정의 ‘도시소설’의 양상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13, 개신어문학회,

- 1996.
- 이정옥, 「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1970년대 ‘창녀문학’에 나타난 여성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양상」, 『한국문학논총』 29, 한국문학회, 2001.
-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 \_\_\_\_\_, 「‘아파트’ 건축과 공간 질서의 생성과 파괴 - 19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2013.
- \_\_\_\_\_,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대중’ 담론의 문학사회학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 \_\_\_\_\_, 「‘하위주체’형성의 논리와 ‘재현’의 정치학: 19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 \_\_\_\_\_, 「1970년대 ‘대중소설’에 재현된 ‘대중 정체성’의 의미 연구 - 조해일, 최인호, 조선작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6, 영주어문학회, 2017.
- \_\_\_\_\_, 「1970년대 ‘대중소설’에 재현된 ‘대중 정체성’의 의미 연구 -조해일, 최인호, 조선작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6, 영주어문학회, 2017.
- \_\_\_\_\_, 「1970년대 소설의 생체정치와 재생산된 신체 연구」, 『어문학』 140, 한국어문학회, 2018.
- 이혜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삶과 교육: 공부 경험과 자기 성취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혜정,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결혼의 의미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62, 2019.
- 이화진, 「조해일 소설의 이방인 의식과 공간탐색 - 197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7, 반교어문학회, 2017.
- \_\_\_\_\_,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50, 반교어문학회, 2018.
- 이현진, 「최인호 소설의 도시 공간과 주체의식 연구 :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희경, 「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5, 동서언론학회, 2012.
- 장경실, 「김승옥 각색 시나리오의 대중지향성 연구」, 『국어문학』 51, 국어문학회,

- 2011.
- 장서연,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장윤희, 「소설에 나타나는 고향탐색 모티프 양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 형상」, 『현대소설연구』 35, 현대소설학회, 2007.
- 전지은, 「서사 텍스트와 매체의 은유적 역학관계 연구 : 1970년대 소설과 영화의 매체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생태적 독법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12, 현대소설학회, 2000.
- 장윤희, 「소설에 나타나는 고향탐색 모티프 양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동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미 분석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8, 한말연구학회, 2001.
- 정덕준, 「1970년대 대중소설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도시의 생태학, 그 좌절과 희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 정미선, 「1960년대 도시 소설의 장소상실과 기획 공간」, 『어문논총』 2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4.
- \_\_\_\_\_,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박완서 단편소설을 사례로」, 『로컬리티인문학』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 정은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현전 양상 -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6,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 \_\_\_\_\_, 「최인호 소설의 모더니즘 미학적 특성 연구 - 「타인의 방」과 「개미의 탑」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5, 한국어교육학회, 2019.
- 정인숙, 「도시연구동향 : 국문학 분야 도시 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시인문학연구』 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 정인혁, 「초점화focalization를 통한 주제 교육 연구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대상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9, 2015.
- 정재원, 「일탈과 수락 : 최인호 초기소설 연구」, 『월우론집』 23,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휘청거리는 오후』와『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1.
- 조남현, 「한국현대작가들의 도시 인식 방법」, 『현대소설연구』 35, 현대소설학회, 2007.
- 조명기, 「1970년대 대중소설의 한 양상 : 조해일의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0, 대중서사학회, 2003.
- 조명기,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변증법: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와 서울, 밤의 산책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0, 중앙어문학회, 2012.
- 조명래, 「한국 도시사회의 변모에 관한 역사적 고찰」, 『도시와 빈곤』 71, 한국 도시연구소, 2004.
- 조미숙, 「『무화과』에 나타난 1930년대 경성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6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_\_\_\_\_, 「『빛의 계단』에 나타난 1950년대 서울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7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 조영란, 「유랑하는 청년과 여성 몸-장소라는 로컬리티 - 최인호 초기 중단편 소설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14.
- 조현일,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미학적 고찰 : 60년대 문예영화 <오발탄>과 <안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 현대소설학회, 2004.
- \_\_\_\_\_, 「대도시와 군중: 박태순의 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학회, 2007.
- 채희윤, 「조선작·최인호의 유소년 연구」,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학회, 2016.
- 최미진·김정자, 「한국 대중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김말봉과 최인호의 『별들의故郷』을 중심으로」,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학회, 2005.
- 최윤자,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최인호의 「개미의 탑」·장정일의 「펠리컨」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기술』 7,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2009.
- 최은영,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장소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 \_\_\_\_\_,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최정호, 「197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의 형상화 양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혜실, 「1930년대 도시 소설의 소설 공간」, 『현대소설연구』 5, 현대소설학회, 1996.
- 추애주, 「소외의 관점에서 본 여성다움에 관한 연구 : 한국대중소설에 나타난 女性 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추은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은미, 「1970년대 최인호 장편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정호, 「197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의 형상화 양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편집부, 「최인호 육필원고 해독하기」, 『월간 샘터』 31, 2000.
- 한강,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최인호 선생님 영전에」, 『문학동네』 20, 2013.
- 한형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계보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삶의 역사와 그 공간 지리의 변모」, 『서울학연구』 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 허만욱, 「1910년대 도시성 소설 연구- 근대성 문화기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홍성식, 『조선작의 초기 단편소설의 현실성과 다양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홍성암, 「도시소설의 주인공설정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12, 현대소설학회, 2000.
- 홍준기, 「도시와 성, 그리고 ‘법의 너머’로서의 사랑」, 『비평과 이론』 17(1), 한국비평이론학회, 2012.

## ■ Abstract

### Representation of Seoul in Urban Novels in the 1970s - With a Focus on the Novels by Jo Seon-jak, Jo Hae-il, and Choi In-ho

Lee, Hyeje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ed to analyze how Jo Seon-jak, Jo Hae-il, and Choi In-ho established their literary identities by signifying Seoul's place experience, rather than resorting to abstract, urban spaces. The three novelists resided in Seoul as insiders and outsiders and identified with Seoul not through ideology, but as a concrete place for living and depicted the city and its people in their works. By 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the novels written by the three writers, this paper took an urban humanities approach to show that Seoul did not only function as a background but also served as an existential basis in the novels.

This study posited that various entitie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meta-discourses could be represented by taking

a space- and-place-centered perspective rather than a historic (chronological) point of view. Drawing from Yi-Fu Tuan's theory,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place and the value of a place. This paper further adopted the argument that placeness does not exist as a fixed substance but is a social device created through discourse and practices as a reference point to analyze the placeness in the works of Jo Seon-jak, Jo Hae-il, and Choi In-ho. This study used Edward Relph's notion of the identity of the plac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identity of a place consists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place, which are created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a place and people who act as agents of the place experience. The identity of a place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a place, and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how the place experience of Seoul was signified in the novels by the three writers.

In Chapter 2, this paper examined the writers' experience of becoming outsiders of main literary circles, their lives in Seoul, and the places in Seoul that appear in the novels, before analyzing the writers' works. Although the three writers seemed to follow the ideologies of the literary circles at the beginning of their careers, they found success in commercial films only to lose the attention and praise from the literary circles. Faced with the dilemma of choosing either the literary circles or the popular readers, the three writers chose the



latter, which reflected their intention to pursue literature as a way to communicate and empathize with the readers.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writers portrayed Seoul not as an ideology or abstraction but as a specific place for living. The records left by the writers and the testimonies from other writers attest to the fact that the writers portrayed Seoul based on the actual places that appear in their works and their experience in Seoul.

In Chapter 3, this paper examined how Jo Seon-jak became an insider of Seoul and how he fictionalized his place experience in Seoul. Jo Seon-jak's main focus was to portray the lives of young people who moved to Seoul. He described how it was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settle and move up the social ranks in Seoul without any connections. This paper showed how Jo Seon-jak aimed to form emotional solidarity by stepping away from the national and people's ideologies and turning to the urban outsiders.

In Chapter 4, this paper analyzed the signific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lace experience of the middle-class and the lower-class in Jo Hae-il's novels. Jo Hae-il's novels begin with the cultural consumption of middle-class protagonists who live in apartments who later see the shack shanties scattered at the peripheries of Seoul. This paper found that Jo Hae-il used his depiction of the residential and cultural lifestyle of young middle-class protagonists, only to have them

experience the outskirts of Seoul, as a narrative strategy to portray the social reality and evoke the moral sentiment of shame.

Chapter 5 pointed out that Choi In-ho, an insider of Seoul, did not focus on the loss of his hometown but wrote about the loss of home through urban development. In his novels, the protagonists live the ordinary urban life and face existential issues in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The urbanites who lost their homes, their true places, seek romantic love or aim to restore their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neighbors. The urbanites who lost their true places in Seoul search for new placeness by taking an interest in other people.

As the nationalist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re realized, and the urban center and peripheries began to be segmented in the 1970s, survival was no longer the key issue for life in Seoul. Instead, the gaps in the quality and styles of life widened. The issue was no longer to survive in a city that differed dramatically from one's hometown. Instead, Seoulites faced the division and placement of the city in Seoul. For the three writers, Seoul was a representation of specific place experiences through which they attempt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oul literature" that distinguished itself from "urban literature." By examining the lineage of Seoul literature, this paper found literary-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Seoul literature, which began from Hanyang and Gyeongseong and still lives through even to this day.

**keywords :** space, place, place identity, place experience, Seoul Literature, everyday life, city, urban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08-30743